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한국인의 소화 위장약 - 노루모®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월 14일 목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158호

양봉욱씨(안산시청 보건복지과)는 3일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업무들을 챙기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 가야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춥다. 한겨울 바닷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양씨는 경제난으로 인해 모두들 가슴을 닫아 버려서 올 겨울은 더욱 추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대부도 풍지마을을 향해 차를 달리는 그의 가슴에는 어느새 온풍이 불고있다. 풍지마을의 서른명 고아들. 양씨는 그들의 해맑은 모습을 떠올릴때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풍지마을에 들어서기 무섭게 차를 향해 달려온 대복이 녀석은 어느새 양씨가 들고온 과자상자를 들고 방으로 달려가고 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향아는 언제나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날씨가 추운 탓인지 아이들은 큰 방에 모여 앉아 놀고있다.

"이놈들 방하이라고 종일 놀기냐"

둥지마을 가는 발길



제법 큰 소리로 꾸중을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 하지 않는 기색이다. 양씨와 아이들은 무서울 수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다. 양씨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새해 소망을 한마디씩 말하라고 주문했다.

"자전거 한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축구공과 농구공이 몇개 더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형들만 갖고 놀거든요."

아, 양씨는 편한 말을 했다는 생각을 한다. 저 소박한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기에는 여러날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MF 한파 때문에 이곳 둥지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줄어들 것만 같아서다.

3년전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으며 둥지마을과 친해온 양씨는 한달에 한번은 꼭 아이들을 찾아 온다. 어떤 때는 한께 잠을 자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형처럼 아빠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北에 국수공장 '보시'

평불협 미주본부, 北 사리원에 '금강공장' 3월 가동

하루 6천그릇 생산
매월 5천달러 지원
조불련 위탁 운영

불교계 최초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북한 국수공장 건설이 오는 3월 준공과 함께 국수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 상임부회장 장지현정사(前 진각종 LA심인당 주교)는 6일 서울 평불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호위원장과 국수공장설립 합의서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현재 황해도 사리원 지역에 건립이 진행중인 국수공장의 명칭은 '금강국수공장'으로 3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평불협 대표로 법타 · 도안스님, 지현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과 동시에 공장을 가동, 1인 평균 105g씩을 기준으로 하루에 약 6천그릇의 국수를 생산할 예정이다. 평불협 미주본부는 지속적인 국수생산을 위해 매월 20톤 규모(약 5천달러)의 밀가루와 옥수수를 조불련이 지정한 중국업체를 통해 지급하게 된다. 지현정사는 "공장운영은 조불련이나 조불련이 해당지역 행정위원회에 위탁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우선 공장설립 기금으로 12월29일 1만5천달러(약 2천5백만원)를 조불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불련과 △탁아소, 학교 등 어린이에 우선 공급 △이번 합의에 준한 제2 제3의 공장설립 등을 합의했다.

평불협 중앙본부 회장 법타스님(은해사주지)은 "국수공장 가동은 남북한 불신해소 등 식량지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수를 생산하는 밀가루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계 일각에서는 IMF한파 등으로 침체된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에 국수공장 건립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한편 현재 북한에는 96년 11월 미주 가톨릭계에서 평양에 처음 국수공장을 설립한 것을 비롯 타종교에서 설립한 8개의 국수공장이 가동 중 이다.

〈김정은 기자〉



◇남측의 평불협 미주본부 장지현정사(사진 왼쪽)와 북측의 조불련 박태호위원장이 국수공장설립에 합의하고 기념 촬영했다.



◇가야산 골프장 결사저지 범국민대회가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골프장 안된다…민족유산 지키자"

해인총림대책위등 74개 단체 9일 서울도심 결의대회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 소속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등 74개 단체는 9일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스님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결사저지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구시대적인 관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고 김영삼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탑골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대국민 홍보전을 가졌다. 이와함께 일화(조계종 사회국장) 지원(전불련 지도위원)스님, 최열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 범국민대책위 대표단은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원길)를 방문하여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13일 해인총림대책위는 해인사 경내에서 국민회의 연등회및 대구경북대책위등 지역 4개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건설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해인골프장이 전면백지화될때까지 지지운동을 펴나갔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지역 4개단체는 7일 연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자인 가야개발이 공사에 착수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감시활동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무효심판청구의 제기와 신설된 사찰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굴암 공기조정시설 교체

경주 석굴암의 온 ·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공기조정시설이 새 것으로 교체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석굴암의 장기보존을 위해 석굴암 구조물 및 내부돔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기조정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월 17일경 완료된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14면
관람료 사찰 수입 급감 23면
北 성불사 첫 참배기 24면

현대불교 '98 5大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간절한 불심과 바람(願)이 빚어낸 돌부처는 천년세월 동안 민심을 어루만지며 생활속의 귀의처로 자리해 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돌부처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가리워져 있는 돌부처의 수도 적지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에 비해 보호관리상 어려움이 많아 천재와 인재로 급속히 훼손, 마모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 이대병원 신경정신과 박사 · 본지 논설위원)는 공동으로 전국에 산재한 이름모를 돌부처를 발굴, 역사성과 가치를 복원하는 성보지키기 불사를 벌입니다. 또한 불상연구의 권위자인 정영호박사(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학술적 고증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무심코 봐왔던 돌부처가 있다면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돌부처도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전국 사암의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보: 편집국 (02)722-4162〉

"영상으로 보는 백두대간의 숨결"

'98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우리민족의 기상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백두대간을 기행합니다.

원효 · 의상스님등 민족의 스승들이 대간의 속살에 사찰을 지은 뜻과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은 민족의 과제입니다.

매월 한차례 지면을 통해 선보이는 백두간대의 장중한 숨결을 느끼며 풍일을 방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보는 불교문화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우리의 사고, 언어, 생활, 역사, 문화 등 모든 것에는 불교적 의미가 스며들어있습니다. 늘 접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징물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가르침은 무엇인지 격주로 연재합니다. '98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불교 상징물의 문화적 가치와 가르침을 음미해 봅시다.

불화와 성화 비교 33장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372년이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784년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이전에는 서양과 교류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불화중에는 지구 반대편의 서양성화와 공통되는 점이 너무나 많아 놀라움을 줍니다. 종교심을 최고로 고양시켜 가장 총체적으로 표출한 것이 예술작품이라고 볼 때 이와같은 유사성은 지구촌 사람들이 하나이고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학림스님(예천포교원장)이 정리한 '불화와 성화 비교 33장면'을 감상하며 종교의 공통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 문화체험학교'

차(茶), 방생, 문학, 불교의식 등 불교문화를 이론과 현장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익히는 문화체험학교를 엽니다. 월 1회 불교문화가 숨쉬는 현장을 독자와 함께 다녀온후 지면에 담습니다.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연중행사로 실시한 불교문화 테마여행의 호응에 힘입어 열리는 현대불교 문화체험학교를 불교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三寶淨財를 守護하는 三寶金庫 福田函!

최첨단기술로 제작되어 파손 및 도난을 방지하는 불교계 최초의 금고형 복전함! 미려한 외양과 견고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 금고 복전함의 특징 ●

1 신뢰성 혁신적인 기술로 8단컴퓨터 회로로 구성된 초정밀 제품으로써 믿음직한 제품입니다.

2 편리성 스위치 하나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번호를 쉽게 자유자재로 1단위부터 8단위까지 번호를 바꿀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3 안전성 틀린 번호를 3회이상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램프락 기능이 마비되는 이중안전장치로 삼보정재를 지켜 드립니다.

4 견고성 삼보금고의 원자재는 강도높은 강판으로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외부로부터 파손할 수가 없습니다.

5 디자인 상 하 연화문양으로 조각 주조되어 외형을 장식하였으며 현대감각과 불교미술적 조화를 이루는 콤팩트하고 중후한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의장등록 제 25848호



◆전면



◆후면

모델 A102



▲모델 A104(전면)



▲후면

※선착순 시·도 대리점 모집중

● 6개모델 복전함 규격 ●

■ 모델 A101
· 높이 550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67Kg
· 가격 ₩880,000

■ 모델 A102
· 높이 605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71Kg
· 가격 ₩980,000

■ 모델 A103
· 높이 605
· 가로 605 × 세로 395
· 중량 79Kg
· 가격 ₩1,050,000

■ 모델 A104
· 높이 605
· 가로 760 × 세로 395
· 중량 83Kg
· 가격 ₩1,150,000

■ 모델 A105
· 높이 690
· 가로 655 × 세로 425
· 중량 95Kg
· 가격 ₩1,250,000

■ 모델 A106
· 높이 695
· 가로 910 × 세로 545
· 중량 110Kg
· 가격 ₩1,380,000

불교미술관 三寶金庫
■ 상담전화: (02)739-2991/733-4800 ■ FAX: (02)739-2992
■ 은행온라인번호: 농협 053-01-014174, 국민은행:023-21-0288-067

사 설

'안방 부처님' 살리자

구제금융의 한파가 불교계에도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불자들은 더욱 가슴이 아프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총체적 경제위기가 몰아닥친 것은 제일차적으로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정경유착과 각종 부정부패의 그릇된 유산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마구 쓰러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IMF 파동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부도사태가 줄지어 일어나고, 수출차질, 물가폭등, 외환위기가 계속되어 우리경제의 기반이 와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으려는 금융회사들의 돈줄죄기로 기업자금난이 극심해져 부실기업뿐만이 아니라 흑자기업들도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3월에 가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달성이 이루어지면 기업부도사태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불교계의 유일한 영상매체인 불교텔레비전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3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상방송을 통한 포교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불교텔레비전임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불교텔레비전이 '안방 부처님'으로서 불교의 포교를 중심으로 한 언론매체로서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안방에서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매일 예불을 올리며, 부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교프교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불자들에게는 불교의 생활화·현대화·과학화를 통해 올바른 부처님 법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불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게 불교를 배우고 불교계 소식을 접함으로서 포교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불교텔레비전이 포교의 혁명을 일으킨지 3년도 채 안되어 IMF 한파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다른 기업들처럼 자체구조조정을 과감히 하여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60%의 감원 감량으로 버티려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불자들 모두가 불교텔레비전의 현실적 고통을 분담하자. 영상포교의 유일한 언론매체를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려보자. 우리 2천만 불자 모두가 남의 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일임을 인식하고 위기를 헤쳐 나가면 무엇이든 살릴 수 있다.

둘째, 불교계 지도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원력을 세우고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이 단결하여 불교텔레비전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종단간에 또는 단체간에 다소 견해의 차이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수신제가를 위해 승속을 막론하고 뭉쳐야 한다. 구심점이 흔들리면 불교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단을 이끌고 있는 불교계 원로 중진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교텔레비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셋째, 불교텔레비전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인내하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불교계에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하고, 인적 물적구조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사심을 갖지말고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처리하고, 공익성 공정성 투명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IMF한파 기도로 이기자"

수덕사등 전국사찰 철야정진법회등 잇달아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기원법회와 철야정진법회가 잇따르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매월 15일(음력) 철야정진법회를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불교연합회와 춘천승가회도 6일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밖에 제주불교총연합회, 태고종 강원교구 등도 신년하례법회를 통해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불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는 주지스님부터 총림대중과 신도들이 국난극복을 발원했다.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철야정진으로 경제한파를 수행력으로 물리치는 기원과 참회를 하고 있다.

설달 보름인 12일 밤10시 수덕사 황하정루에는 50여명의 대중스님들과 행자 및 직장인·보살, 초등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선공간을 가득 메웠다. 심술궂은 동장군이 몰려온 탓인지 두터운 방한복 차림의 신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참선을 할 때는 신심을 돈독히 하고 대불심과 대의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지 법장스님의 참선자세에 대한 지도법문에 이어 일제히 입정에 들어갔다.

이날 "수덕사는 수덕사요. 또한 수덕사는 수덕사가 아니더라"는 화두가 주어졌으며 다음날 새벽3시까지 50분 정진에 10분 경행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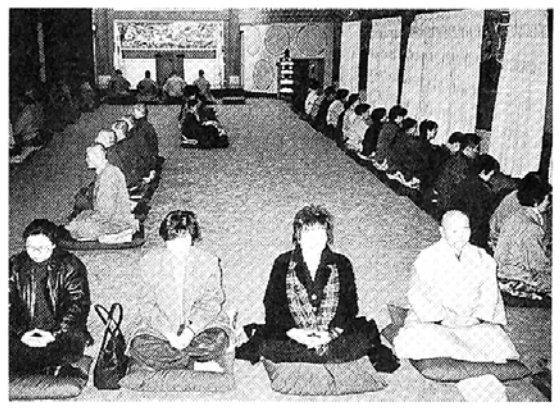
참선에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숙여지는 허리를 곧추세우는 거사와 50분이 힘에 겨운 듯 눈치를 살피며 문밖으로 나가는 초등학생도 보였다.

또 여기저기서 '제몸하나 마음대로 나투기도 힘들군'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네'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주지 법장스님도 입정부터 회향까지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며 휴식시간마다 힘들어 하는 불자들을 격려해 훈훈한 승속일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정진에 참석한 원진관(53·충남 예산)씨는 "경제 한파로 직장에서 광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며 "철야정진은 모든 상념을 떨칠 수 있어 좋았다"고 수행의 소감을 밝혔다. 이윽고 회향을 알리는 죽비소리에 참석자들은 철야정진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즐거워했다.

〈수덕사=김주일 기자〉



◇IMF한파를 참선수행 철야정진으로 이기자는 발원으로 수덕사는 주지스님부터 총림대중 전체와 신도등 1백여명이 초하루 보름마다 용맹정진하고 있다.

문경 김용사에 원인불명 화재

설선당등 3개동 전소

경북 문경 김용사(주지 자광)에 구랍 30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설선당(124평)과 누각(33평) 요사채(57평)등 3동의 건물이 전소됐다.

화재는 30일 밤 11시 50분경 설선당에서 시작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3개 건물로 옮겨 붙었다. 긴급출동한 문경 상주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지역주민이 진화에 나서 불길은 2시간 30여분만에 잡혔다.

전소된 설선당은 1백여년전에 지어진 대형강당으로 목조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었다.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은 화재의 원인과 관련 "30일 오후 2시경 군불을 지핀 후 아궁이에는 더이상 불을 넣지 않았다. 때문에 실화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청 소속 화재감식반도 정밀 검사를 통해 화인을 조사 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1백억대 건물기증 '거절'

임대보증금등 40억 부담…예산운영 애로

구랍 29일 밝힌 권이재씨의 1백억원대 건물 기증의사와 관련 동국대는 7일 임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학교여건상 이 건물을 기증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했으나 기증자가 원하는 한방병원 건립의 경우 대학부속병원으로서의 규모나 조건 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이 건물이 안고 있는 임대 및 전세 보증금과 시설 리스비용 등 40여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돼 학교예산 운영상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BBS사장 재고해야

전불련 8일 성명발표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스님)은 8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방송 신임 사장으로 추천한 성낙승씨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불교방송 사장은 방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불교방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번 성씨의 추천은 불교방송 사장 추천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송병욱씨 보석석방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피의자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송병욱씨(前 불교방송 상무)가 구랍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종교별 사업추진

종교지도자협 분과위 구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월주스님)는 구랍27일 공동대표및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97년 업무및 재정을 결산하고 98년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98년도부터 각 종교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위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불교는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언대사업, 천주교는 사회봉사사업, 개신교는 청소년 선도 관련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유교는 범국민 의식개혁 운동, 원불교는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사업, 천도교는 통일기반 구축사업, 민족종교협의회는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국대 입시 6.66대 1

승가대 3개학과 미달

교계 종립대학들의 98년도 정시모집 지원현황결과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평균 4.96대1, 경주캠퍼스 8.37대1, 위덕대학교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중앙승가대학의 경우 4개학과중 3개학과가 미달됐다.

이중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부 일반의 경우 50명 모집에 1백41명이 지원 평균 2.82대1을, 스님의 경우 17명 모집에 25명이 지원 1.47대1의 경쟁률을,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일반은 40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 2.7대1, 스님은 20명 모집에 27명이 지원 1.35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또 위덕대 불교학과는 31명 모집에 70명이 지원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승가대의 경우 사회복지학과(30)만 정원을 채웠을 뿐 불교·역경·포교사회 3개학과는 정원(30)에 미달돼 평균경쟁률 0.59대1을 기록했다. 중앙승가대는 2월9일 추가모집 시험을 실시한다.

"포교사연수교육 수련회로 대체"

조계종 포교원에 포교사단 보고서

조계종포교원이 매년 두차례 개최하고 있는 포교사 연수교육에 대해 해당 포교사들은 포교사 자격갱신의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연수교육을 소양함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련회로 대체하길 바라고 있다.

조계종포교사단 사무국이 지난해 12월 다섯차례 실시한 포교사 간담회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포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단에 대한 포교사들의 불신이 크며, 원인은 포교사에 관한 정책부재와 일관성의 결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교사의 종단내 위상정립, 통일된 복장의 제정 등을 통해 포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연수교육을 포교계층별·주제별로 실시하고, 우수포교사 시상등을 통해 포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포교원에 건의했다.

연수교육과 관련, 포교사단은 올 상반기중 포교사들의 활동분야별 조직편제가 완료되면 1박2일 이상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화사 성보전시관 건립

승병운동 유물등 전시…5월경 기공

조계종 제9교구본사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에 승병운동과 관련된 각종 유물들이 보존 전시되는 성보전시관이 건립된다.

동화사는 5일 교구종회를 열고 총 596평의 성보전시관을 오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기공, 내년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동화사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영남승병을 총지휘하던 영남도총섭이었던 사찰의 이미지를 특화시켜 호국불교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승병관련 유물전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동화사 경내 통일기원 약사여래부처님앞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성보전시관에는 이밖에도 9교구 본사와 말사에 산재해 있는 성보 5백여점이 순환전시될 예정이다. 동화사는 올해 착공에 앞서 이미 국고지원금 5억, 시지원금 5억원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제2공장 오픈도 기대하겠시요"

알솜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알루미늄단열재 생산 15년의 경력과 기술로 신제품 개발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6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전자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솜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전자파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냉·난방의 열효율을 한층높여 연료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알솜 1000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 전자유해파의 피해 차단효과!
-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경이적인 단열효과!

용 도 : 신축주택, 아파트의 난방파이프 바닥 등 기존주택의 장판면이나 침대

알솜 500
- 수맥과 전자파를 동시에 차단하고 이동이 간편하며 실내에서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메트형 제품

용 도 : 전기장판, 전기담요 상부 일반요, 침대(병원침상 등)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과 아스팔트와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의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인한 단열
독성차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줄무늬를 인쇄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알솜 100 단열과 방습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모든 건축물, 축사, 창고등의 바닥이나 벽체및 천정에 사용

전국대리점모집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 (代)

FAX : (0345)498-8998

긴축속 내실찾기로 '한파극복'

주요종단 무인년 브리핑

조계종 총무원장등 선거…신도교육의 해

태고종 종단발전기금 모금 전력

천태종 금강불교대 건립사업 진행

진각종 사회복지사업 본격 착수

경제난의 가속화 속에서 올 한해 동안 각종단은 어떤 일을 펼칠 것인가.

각종단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들도 최대한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즉 IMF체제하에서 줄어드는 각 단위사찰별 수입과 그에따른 분담금 납부의 저하 경향이 예상되는 만큼 '긴축속의 내실 찾기'를 꾀한다는 것이 각종단의 살림 기조다.

조계종 올한해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장단 및 의원 선출이 있고, 동화사 불국사등 9개교구본사 및 주요 직할사암 주지의 선출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종단내에서 적잖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12대 종회가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경제난과 종단의 지각변동 속에서 종단의 일반 행정과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조계종의 구체적인 연간 행정계획은 13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계종은 내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신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화 수립과 정착에 상당한 종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조계종은 지난해 10월 열린 종단지도자회의 결의에 따른 민족문화와 전법도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고종 동방대 건립을 위한 '종단중흥발전기금모금운동'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종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IMF한파 등의 영향으로 1백3억으로 책정해놓은 건립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금대상자를 당초보다 늘려잡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추진해 온 복지법인 설립과 종단이 담당한 종단협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등 긴축속에서도 주력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선암사 성역화 사업과 분규종식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두차례의 대형법회는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천태종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중일 삼국 천태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국제불교문화교류와 2천년 3월 개교예정인 금강불교대학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불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신규불사는 올해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또 종단운영도 책정된 49억원의 예산에서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가칭)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규모 확장 및 정보·자료축적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1백10억원의 올해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덕대 군승선발대학 지정문제 해결과 해외 및 국내포교 전략화사업, 종단사무전산화 작업 등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btn BBS 살아남기 '골몰'

프로그램 재방·감원등 체질개선 가속

IMF한파로 나라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교TV와 불교방송이 재정난 극복을 통한 살아남기 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두 방송사는 새 사장을 선임하고 인사 경영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두 방송사의 살아남기 전략의 기본 골자는 경비절감책. 공통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재방송과 감원이다.

불교TV는 협찬을 받고 있는 '신나는 연꽃동산' '차문화 산책' '우리절 우리스님' 등 일부 프로그램과 진각종에 방송시간을 대여한 '밀교강좌', btn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재방송을 할 계획이다.

불교방송은 현재 방송 중인 '고승열전 편양대사' 편이 끝나면 그동안 방송해온 '고승열전'을 전면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좀 차이가 나지만 감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사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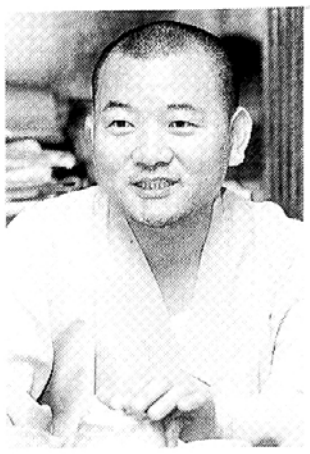
불교TV는 직원감원 작업에 착수. 7일자로 전직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또 프로그램 재방영 및 기존 프로그램의 재편집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매달 2억원씩 소요되던 제작비를 40~50% 선으로 줄이고 적자폭을 1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광고는 전년도 수주액인 12억원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교계 광고유치에 힘 쓸 복안이다.

불교방송은 제작비와 보너스 삭감에 들어갔다. 월 1억3천만원가량 배정되었던 제작비를 5천만원으로 60%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2월9일자로 프로그램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 사람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두 방송사의 모습에 모든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그러나 불교TV와 불교방송이 이러한 살림줄이기만으로 거듭나기에는 역부족일 듯하다.

외형적인 감원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구조적 모순의 과감한 타파, 기술력 확보, 지속적인 재원마련책 강구, 재교육을 통한 인원재활용 방안 등 방송 경영 두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한 피나는 자구노력만이 두 방송사의 가치있는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더불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만 두 방송매체는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연〉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불교TV 제19차 이사회에서 새사장에 선임된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을 만나 불교TV의 불황 타개책과 앞으로의 경영방침 등을 들었다.

- 불교TV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은 무엇인지요.

▲경영의 효율성은 경영합리화로 찾아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할 것입니다. 살림은 1년단위로 끊어 계획 실행하고 방법이 틀렸다면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불교TV라는 영상매체는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이고 사부대중이 동참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그동안 태응스님이 아니었다면 방송 유지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의 결손 차액은 투자의 차원입니다. 적자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창업한 방송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투자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본궤도에 오르면 이익배분이 가능한만큼 불교TV의 미래를 봐주세요. 불교TV의 대표로써 경영구조 제작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재원마련을 위한 별도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이사회에서도 회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각 이사들이 5천만원~1억원씩 증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구장 각 종단 불교단체 등에 불교TV의 문호를 개방해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2만여명에 달하는 주주들에게 정직하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주들이 한번만더 응집력을 보여주시면 불교TV의 미래는 낙관적일 것으로 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타개점을 찾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대불자 호소문'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은행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종단 교구본사 불교단체 그리고 이사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주주들과 협의해야죠. 조계종 총무원에도 계속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불교TV 개국 당시 교구본말사에 배정된 출연금 중 상당수가 미납되어 있어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부터 화주스님이 돼 불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TV가 추구하는 방송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TV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불교적인 방송이어야 합니다. 케이블TV라는 매체가 전문방송을 요구하는만큼 우리는 불교전문방송이 돼야죠. 방송은 보는 자, 시청자의 방송이며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불교인구를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팀웍, 불교TV 구성원들의 팀웍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자들의 뜻을 모아 운영하는 방송인만큼 가장 불교적이며 인간성 회복에 앞장서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끔 살아있는 방송을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 32번을 틀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방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 방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은.

▲모니터 기능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을 방송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불교TV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기구가 될 것입니다.

불교TV 새 사장 정우 스님

"재원확충·경영 합리화 매진"

강지연 기자

목어 행주치마 정신

"금모아 나라 살리자"

금모으기가 범국민 애국운동으로 불붙듯 번져가고 있다.

할아버지가 마고자 금단추를 뜯어내는가 하면 돌·백일·우승기념 등 각종 추억이 서려있는 반지와 행운의 열쇠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계종도 45개 종교·시민단체와 '경제살리기 범 국민운동'을 결성해 15일부터 금모으기를 한다.

재향군인회 부인들은 구국의 상징으로 행주치마를 입고 금모으기에 나섰다.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구를 물리칠때 아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날랐던 그 정신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나라를 살리자고 남녀노소 없이 장롱속의 금을 들고나와 줄을 잇는데 한쪽에선 사재기를 하느라 아우성이다.

지난 연말, 일부 소비자들은 밀가루·설탕·라면 등을 사재기 했다. 그리하여 생필품 품귀현상과 가격인상을 불렀다.

새해들어 커피·분유 등의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자 다시 사재기 바람이 일고 있다. 매장에 분유가 없어 "우리 아기 어떻게 하느냐"며 발을 구르는 엄마들이 있다.

분유를 사재기한 사람들은 이들 앞에서 유구무언일 수 밖에. 사재기로 품귀현상이 생기면 값은 더 오른다. 분유나 라면등은 오래되면 맛이 변한다. 그렇게되면 사재기는 절약이 아니라 과소비다.

내 이익만 챙겨 사재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재기는 남의 몫을 가로챈것과 같다. 결국 사재기는 탐욕이다.

'나만 살고 보자'는 망국병이다. 이러한 사재기와 부유층의 흥청망청 과소비가 멈추지 않는한 1$ 모으기 금모으기는 한강투석이요, 밑빠진독에 물붓기이다.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때 한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고 행주치마를 입고 나섰듯이 이제 우리는 합심해야 한다.

류시화씨가 쓴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당신이 신발 두켤레를 소유하고 있다고 둘다 신고 다닐 순 없지 않소. 그러니 한켤레는 날 주시오"

배낭속에 슬리퍼 한켤레가 든걸 보고 손톱 시커먼 인도인이 한 말이다.

그렇다. 어려울수록 남을 생각하자.



불교방송 새 사장 추천 성낙승 씨

"자금관리 통제 광고수입 증대"

불교방송 제4대 사장으로 성낙승씨(한국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 63세)가 추천됐다. 6일 열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성씨는 12일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도후스님)의 결의로 선출된다.

공금횡령사고와 경영악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방송의 새 사장으로 추천된 성씨는 △불교방송 정상화에 따른 관리능력 △두드러진 방송발전 마스터플랜 제시 △신심있는 불자라는 3개항의 조건에서 적합성이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씨가 제시한 불교방송 정상화 방안은 경영관리를 개선하기위해 영업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정한 조직관리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예산 및 회계관리를 초긴축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자금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며 광고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것.

특히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성씨의 30여년 문체부 공무원 경력으로 불교계 기여도가 높다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60년대 비구-대처승 분규시 문공부에 실무자로 역할했고, 종무실장 당시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와 전통사찰보존법 제정 및 89년 정부의 10.27 법난 사과담화 등에 직접 간여했다. 따라서 법난사과에 대한 불교계 보상으로 불교방송 설립, 중앙승가대 정규대 승격 등 정착적 실무책임자로 관계했다.

어쨌든 불교방송은 IMF 경제국난 속에서 산적한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을 맞아야할 시점이다.

위영란 기자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벤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피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킬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증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은 수감중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되새겼다며 조계사에서 국태민안 백일기도를 입재했다.

"새 마음으로 새 시대 맞자"

전두환씨 국태민안 100일 기도 '입재'

전두환 前대통령이 구랍 30일 조계사에서 '국태민안과 선망부모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100일기도'를 입재했다. 이날 입재식에는 부인 이순자씨와 장남 전재국씨 부부 등이 함께했다.

구랍 22일 출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온 전씨는 1천여 조계사 신도들에게 "석방을 위해 여러 불자님들이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인사 했다.

이어 전씨는 "서울의 한 가운데 이런 훌륭한 사찰이 있다는 것은 불자 모두의 기쁨입니다. 제가 자유의 몸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된 것도 다 여러 불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이 그간 감옥에서 느낀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 놓았다.

"저는 꼭 2년 20일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한가지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것은 백담사 시절에 느낀 것이기도 한데, 바로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 역시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돌리고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 내 불행의 원인을 '너'에게서 찾기 보다는 '나'에게서 찾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을 편케 한다는 것입니다."

전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권도 바뀌게 된 시기임을 환기시키며 "그간 마음에 품었던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털어 버리고 희망의 마음으로 새시대를 맞이하자"며 불자들을 격려하기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임연태 기자

나라사랑 '금 모으기' 동참



법타 조국통일평화불교인협회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8일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 박사학위 취득 기념으로 받은 금반지(두돈반)를 서울 종로구 주택은행 소공동지점에 접수시켰다.

제주 위기극복협회장 맡아



중원 제주관음사주지는 구랍 29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사회 위기극복 범도민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부산불교계 신년하례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 스님은 8일 부산불교신도회와 공동으로 코모도호텔에서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강화 공병 야전부대 위문



장윤 전등사 주지는 구랍 29일 전등사 자원봉사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강화 3835공병 야전부대를 위로 방문했다.

케이블TV서 신부와 대국

도신스님은 구랍 29일 케이블 서울 TV가 주관한 신년특별대국에서 경남 수산성당의 이재열신부와 친선바둑대국을 가졌다.

교차로

광명선원 부처님 점안식



초격 광명선원장 스님은 8일 개원 5주년 기념법회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교수불자회 신년법회

하만경 부경대 교수불자회장은 7일 혜총스님을 법사로 부산 감로사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국립창극단 단장에 선임



안숙선씨(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기능보유자)는 신임 국립창극단 단장겸 예술감독에 선임됐다.

'축역 한글대장경' 등 출판회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은 18일 불교방송국 대법당에서 〈축역 한글대장경〉 '제2권 방등부' '제6권 화엄부' 및 〈원심 이민환법사 법어집〉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제16회 중앙시조 대상 수상



김원각 시인은 '일산에서'라는 시로 구랍 26일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제16회 중앙시조대상을 수상했다.

제43회 현대문학상 수상



문학평론가 도정일〈사진 위〉 시인 천양희〈사진 아래〉, 소설가 윤대녕씨가 현대문학사가 주관하는 제43회 현대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도씨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나니' 천씨는 '오래된 골목'등 6편, 윤씨는 단편 '빛의 걸음걸이'로 수상했다.



동국대 연영과 특차 합격

가수 김수근, 이지훈, 그룹 HOT의 강타 등 3명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연기, 기술전공에 각각 특차합격했다.

사고다발 철로 건널목 설치



성문 부산 기장군 묘관음사 주지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사고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을 위협해왔던 묘관음사 앞 철길에 건널목이 설치돼 화제.

스님은 86년 처음 주민과 참배차 들른 불자들의 철도사고 사망소식을 접하고 건널목 설치를 위해 서울·부산 철도청,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선운사 태허스님 입적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 前 주지 태허스님이 구랍 29일 입적했다. 세수 63세 법랍 50세.

스님은 48년 백양사에서 묵담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선원에서 6하안거를 성만한후 백양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5대에 걸쳐 역임한 스님은 대흥사 주지 선운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등을 역임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31일 선운사에서 교구본사장으로 엄수.



서울구치소 불심회장 임장수씨

"교도소도 훌륭한 수행도량"

원력 있는 불자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전 교도관의 지장보살화를 위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통해 전 교도소의 수행도량화가 이뤄지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가장 불우한 이웃이 있는 곳.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보살행을 실천해 온 원력불자가 있다. 1백40여 불자 교도관들의 모임인 서울구치소불 심회 회장이자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서울·경기지부장인 임장수씨(생활지도계 공안담당·47).

그는 87년 6월1일 불심회가 출범한 이래 24시간 재소자들과 옥살이(?)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심으로 어루만지며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다. 임씨가 96년 12월18일 불심회 3대회장에 취임하면서 67명이던 회원이 6개월만에 120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4월에는 44명의 회원 전원을 서울 정광사에서 6개월 과정의 불교기초교리반을 수료케 했다. 또한 영치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무의탁 재소자 60명을 회원들의 박봉을 털어 관리하는 등 눈에 띄는 신행을 펼쳐왔다.

시국사범 단골 포교사 최근 고첩 고영복 교화

임 회장은 "서울구치소보다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만한 포교현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인연이 닿은 각종 증요사범 및 5백여 시국사범들에겐 가장 잘 알려진 포교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화한 이들 중에는 노태우 前 대통령을 비롯, 간첩 무함마드 깐수(前 단국대 교수), 아시아 마피아 두목 이복현,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 임종철 전대협 의장, 10여명의 한총련 의장과 50여명의 총학생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재판에 계류중인 고정간첩 고영복(前 서울대 교수)·심재운의 불교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불자가수회 이웃돕기 거리모금

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는 구랍 28일 명동 상업은행 앞 네거리에서 불우이웃돕기 가두모금행사를 벌였다.

이날 모금행사에는 명국환 남강수 김활선 김기례 김흥국 현당 너훈아 정진희씨 등 10여명의 불자가수들이 참석했다. 원로가수 남강수씨가 목탁을 치고 나머지 가수들은 모금함을 들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며 행인들에게 자비심을 호소했다.

회장 김흥국씨는 "IMF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만큼 불자가수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에 불우이웃돕기 가두모금행사를 벌이게 됐다"며 "모금된 성금은 전액 불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절에서 잤더니 시험도 잘 치러"



Focus

"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더니 논술고사는 물론 면접시험도 침착하게 치를 수 있었어요"

봉원사에서 숙식을 하며 대입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혹 재수(?)를 해서 다음에 또 시험을 치르더라도 꼭 봉원사에 다시 오겠다는 여유까지 보였다.

봉원사(주지 대운)가 지방 학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 서대문구청과 연계해 연세대, 이화여대 수험생 9명을 받은 봉원사는 시험에 대비한 최적의 분위기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연세대 자연과학부를 지원해 8일 논술고사를 치른 포항출신 김혜리양은 "논술고사 비중이 어느 해보다 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을 잘치렀다"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불을 새로 마련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준 봉원사와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한마음선원 마산지부 287,750원 △정토포교원 150,000원 △심정기 383,400원 △이종이 150,000원 △문은숙 130,000원 △김영철 100,000원 △임현주 100,000원 △민병덕 100,000원 △최현숙 100,000원 △윤석임 70,000원 △임성래 50,000원 △김창분 50,000원 △이태화 50,000원 △이정림 50,000원 △황신희 43,000원 △박진현 40,000원 △이송희 30,000원 △손수일 30,000원 외 △한미진 30,000원 △한 주 한끼굶기 1,295,000원 △기타(은행이자 등) 110,638원 〈1월7일 현재 총 896,665,636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 스님(본대학학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 박사(상락향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방종현(인성개발연구원장)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 사회 복지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정승석(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영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정휘욱(전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7년 12월 20일~ 98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6시 공교회관 및 동산빌딩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일시 1998년 2월 7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겔러리 4층)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부산 : 불서 보급사(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대전 : 보 문 서 점(257-0161)
⊙광주 : 불 일 서 점(232-7542)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 특전사항 : ❶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❷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 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 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 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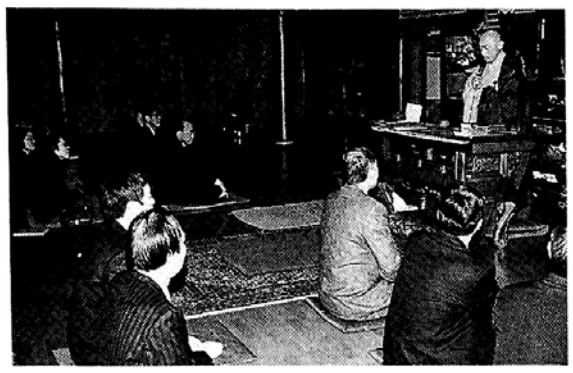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1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지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탐방 국세청 보리회



◇국세청 보리회 회원들이 구랍 27일 서울 칠보사에서 열린 송년법회에서 오원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다.

무소유정신 실천 '청렴공복'

국가적인 경제난과 정권교체기가 겹쳐 뒤숭숭한 공무원사회에서도 눈코 뜰 새 없이 앞만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가장 능률적으로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진 세무공무원들. 특히 국세청 산하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경인지방국세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세청 보리회'(회장 조원제·한국조세연구원 이사관·57) 회원 119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세무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96년 7월 11일 종로경찰서 경승실에서 창립법회(초대회장 김정부 이사관)를 가진 이래 부처님의 자비·평등사상과 무소유정신을 배우고 실천해 사심없는 세무공무원상을 확립해 왔기 때문이다. 보리회 회원들은 이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줄여 복지국가를 여는 공평과세를 앞장서 실천, 이웃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불국정토 건설에 매진해 왔다.

구랍 27일 저녁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서 열린 지도법사 이·취임 및 송년법회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전 지도법사인 오원스님(진해 성흥사 주지)도 "생활 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진치로 인해 오늘의 경제난이 도래했다"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로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경제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보리회는 2년전 국세청 이석희 차장(1급 관리관) 등 8명이 제주 월라사 주지 도종스님(지도법사)과의 인연으로 출범했다. 매달 칠보사(주지 오철스님·신임 지도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분기별 명찰순례로 심신을 정화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칠보사가 충남 아산에 마련한 보문복지관 건립불사를 후원했으며, 현재는 상당수 회원들이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총무간사인 설용준 세무조사관(국제조사1과·45)은 "부산지청 불자회인 수선회와 연계해 대구 대전 광주지청의 불자회 창립을 유도하고, 서울시청불심회 등 공무원불자회와의 연합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평과세로 빈부격차 해소 아산 보문복지관 매달 후원

김재경 기자

도심 '시민선방' 잇달아 개설

길상사·개원사·'좋은모임' 등 실직공포 직장인 '정신 휴양처'

"언제 직장에서 짤릴지 몰라 항상 불안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견딜수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자비의전화 상담요원들이 자주 받는 전화내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부도사태로 인한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붐'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이같은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도심속의 시민선방이 잇달아 개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6일 개원한 경기 군포시의 개원사 시민선방(선원장 도성스님, 0343-98-8001), 구랍 14일 개원한 서울 길상사(회주 법정스님, 02-3672-5945) 시민선방, 구랍 17일 개원한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이사장 월운스님, 0351-848-6114)의 참선교실이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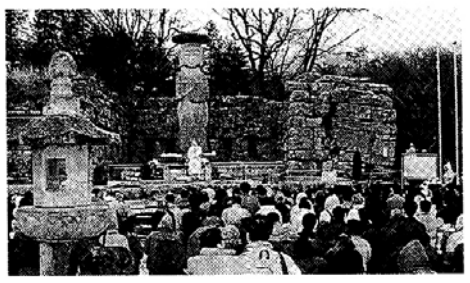
개원사 시민선방 선원장 도성스님은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현대사회는 정신적인 빈곤과 방황하는 의식을 양산해 왔다"면서 "물질적인 환경변화에 불안해 하는 도시민들에게 튼튼한 육신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참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좋은모임'의 김만휘 사무국장은 "매주 수요일 저녁 광명사 주지 의선스님과 나영채법사가 지도하는 직장인 참선교실이 호응이 좋아 요가교실도 따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도심포교당에 마련된 시민선방은 직장인들의 자기수양과 계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선학원중앙선원 시민선방(02-734-3410) △조계사 동방선원(02-720-6742) △부산 해운정사 시민선방(051-746-4812)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생활선방'(02-736-3327) △수선회 직장인반(02-732-5960) 등 전국 각 도심사찰과 신행단체가 시민선방을 개설,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

"IMF극복 마음에 달려있어요"

금강경독송회 세계사서 정초 호국법회



"온 국민이 경제불안을 느끼는 이 시기에 '장래 뭘 먹고 사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에다 대고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을 염해서 그 초조한 마음을 해탈 받으면 마음이 자유를 얻어 생사에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 1천여 회원은 1일 충북 중원 세계사 미륵부처님 앞에서 봉행한 정초 호국법회에서 '〈금강경〉 독송'과 '마음 바치는 법'을 통해 IMF위기의 극복을 발원했다.

이날 김재웅법사는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배를 회사에 벌어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복짓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해탈 받을 수 있다"면서 "항상 희망찬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자"고 법문했다.

김법사는 또 "경제학자인 케인즈도 경제는 70%가 그 지역 사람들의 심리작용이 좌우한다고 했듯이, 지금의 현 상황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 "2~3년 후에는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부처님 자비정신 계승 선재생명사랑캠프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3~5일까지 2박3일동안 충북 충주 자혜방생원에서 '98년 선재 생명사랑 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생명존중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고생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생명사랑 모의법정 발표' '세제 만들기' '심성훈련' '포살법회' 등의 일정으로 꾸며졌다. (02)278-8672



상월대조사 87회 탄신법요식

천태종총무원(원장 운덕)은 구랍 27일 구인사 삼강전에서 상월대조사 87회 탄신 봉축법요식을 봉행. 이날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스님과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와 원융종 총무원장 보인스님, 김용문 문체부 종무실장, 주병덕 충북도지사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했다. 운덕스님은 봉축사에서 "천태불자들은 대조사의 불교대중화와 생활불교화 등 유지를 받들어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광주사암련 불우청소년에 장학금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는 6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성도절법회에서 지역내 불우청소년 22명에게 9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성 송광사 방장, 정암 원각종 호남종무원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1부 기념법요식과 장학금전달식에 이어 2부행사로 극단 반야의 환생공연이 진행됐다.



불이회 제12회 불이상 시상

불이회(회장 홍타회)는 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12회 불이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종명박사(동국대 강사)가 불교사상 연구와 불교문헌 영역 등에 기여한 공로로 연구부문을, 33년간 장애자 재활교육에 전력해온 박근련씨(천마재활원 원장)가 실천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정병조(동국대 부총장), 김종서(서울대 명예교수), 정호영(충북대 교수)씨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청도경찰서 불자 법우회 창립

청도경찰서(서장 최경호) 불자법우회(회장 최관열) 창립법회가 구랍 27일 경찰서 내 강당에서 봉행됐다.

청도사암연합회(회장 홍관·적천사주지) 숙업사업의 일환으로 창립된 불자법우회는 독실한 불자인 서장을 비롯 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됐다. 홍관스님은 "직원간의 친목과 불심을 다지는데 법우회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법사회 통도사 수계수련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는 '세계불교운동4-불교신앙·불교생활'이라는 주제로 15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2시까지 양산 통도사 백련암에서 법사회 회원 및 부설 법사원 불교대학 학생,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264-1827

'맑고향기' 참선모임 개설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 청년회는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길상사내 사무실에서 눈푸른 젊은이들의 모임을 갖고 지도법사 덕조스님의 강의로 교리·참선공부를 한다. 20~30대 청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교재는 〈붓다의 가르침〉(대원정사 刊). (02)3672-5945

청송감호소 수계법회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은 구랍 24일 청송 제2감호소에서 위문행사를 갖고 수계식을 거행했다〈사진〉.

독경대회, 불자가수 추도성씨의 위문공연 순으로 이어진 이날 법회에서 계사 돈관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모든 죄업이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니, 오늘부터 수계제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닦아서 청정한 불자로서의 새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0561)41-0762



서울대병원 교양강좌 개설

서울대병원직원불자회(회장 조보연·교육연구부장교수)는 3일 오후 병원내 C강당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초청 신년하례법회를 거행.

동회는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1시에 정락스님을 법주로 환자들과 함께 하는 불교교양강좌를 상설키로 했다. (02)760-3176

충북청소년불자 동계수련

충북청소년불자연합(회장 염기섭)은 구랍 30일부터 1월2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동계수련회를 실시. 30여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행사에는 각 사찰소속 학생회 청소년불자 100여명과 지도자 20명이 참석했다. 수련회는 불교강의, 염불 및 참선과 108배 정진, 만남의 장, 수계식 등으로 진행. (0431)56-6254

구미거사림 매달 이웃돕기

구미불교거사림회(회장 김봉철)는 7일 오후 구미불교포교원에서 원장 혜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불우이웃돕기 등 새해 사업을 확정했다. 구미거사림회는 총무·교화·포교분과위원회별로 각 10만원씩 매달 소년소녀가장 및 불교양로원을 지원·위문키로 했다. (0546)54-6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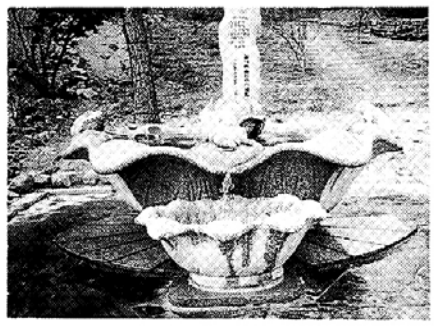
고침 156호 5면 대구개인택시정법회 기사중 '연꽃마을'은 '예천 연꽃마을'로 이사장 '각현'스님은 '정안'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1998학년도 제7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불교교육·법사교육,
법사를 양성하는 도량,
한국불교법사대학!
선교방편으로 포교하는 법사(法師)

체계적인 불교공부로
믿음을 성취하고
지혜와 복덕이 무량광대한
부처님의 사절(使節)인 법사가 되도록
한국불교법사대학 도량에서 함께
육화(六和) 수행 정진합시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 거쳐)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출강수업 ②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 720-1836·733-1959·737-5305
FAX : (02) 737-5305

법회안내

서울 영천사 (02)313-5189



◇주지 법하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백일기도 97년 10월15일(음) 입재, 98년 1월15일(음) 회향
※철야기도 24시간(낮중무휴) 회비 2만원

광주 금광사 (062)375-3191



◇주지 거광스님

정기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임시법회(기초교리강좌)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 임시법회 매월 넷째주 토요일 저녁9시
※인등축원(1년등) 1월18일(양) 오전10시
※기도기간 1월18~20일(양) 저녁11시

호국 연호사 (0356)85-0686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새해도 참나 찾아 출발
백양사 동계수행 결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쌓인 번뇌를 훔훔 털어버리고 참선수행의 바다에 나를 던져보자.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참가자 전원에게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이 직접 화두를 주는 선 수행 결사를 마련한다. 이번 동계 결사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참사람 수행결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보자를 위한 결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의 화두법문 △토진스님(고불총림 기획실장)의 좌선의(坐禪儀)·선종사 강의 △일수스님(운문선원 선원장)의 좌선실수 △지선스님의 현대인의 수행법 강의 △금강스님(참사람 결사운동 사무처장)의 〈벽암록〉 강의 등이 준비된다. 수행결사 기간 중에는 묵언과 참선수행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눈 덮인 겨울산사에서 수행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듯. (0685)92-7502

IMF 넘는 삶의 지혜
대원회 명사초청법회

IMF 경제한파 속에 명사들의 감로법문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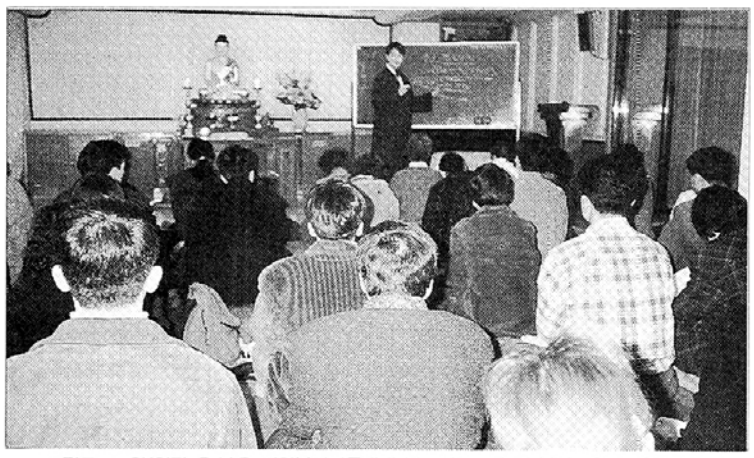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박은흔)는 18, 25일 대원회 법당에서 '명사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일 '법성게를 보는 시각'을 주제로 김지견교수(전통불교연구원 원장), 25일 '불교를 신행하는 기본자세'란 제목으로 이지행법사(한국불교대원회 상임법사)가 각각 법문하게 된다. (02)773-9171

보시행은 업보를 녹인다
정토포교원 봉사자 교육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베풀면 온갖 과보가 사라진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는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는 보시행을 실천할 것을 설하였다. 이런 의미를 되새겨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봉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정토포교원 서초법당에서 갖게될 이번 교육은 △15일 '불교의식 및 의례 익히기'(유수스님) △22일 '소모임의 조직운영 방식'(유정길 환경교육원사무국장) △2월5일 '봉사활동 사례연구'(유수스님) △2월12일 '정토회 봉사자의 역할 및 태도'(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스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379-1650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불교기초교리 및 봉사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7일 홍제법당에서 개최됐던 보수 청년회상임법사의 '유마경' 강의모습.

일연스님 체취 느껴보자
'맑고향기' 인각사 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8일 경북 군위 인각사로 생태기행을 떠난다. 한때 수몰 위기에 몰렸던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주지 대원).

이번 기행은 청정한 사찰을 찾아가 참배하고 댐이 세워져 물속에 잠길뻔 했던 인각사 주변의 생태조사는 물론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탈고한 역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02)741-4696

마애불 미소를 그리며
신라문화진흥원 백제권 답사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17~18일 고목우 신라촌 연구위원의 안내로 예산 수덕사와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태안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등으로 충남권 백제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백제의 옛 영화(榮華)를 고이 간직한 유물과 유적, 자연속에 살아 숨쉬는 옛성과 고찰, 민중의 애환과 숨결이 고스란히 신앙으로 녹아든 미륵을 찾아 떠나는 길에서 넉넉한 백제의 미소를 만날 수 있을 듯하다. 참가비 8만원. (0561)771-1950

사물의 본질 바로보기
서울불청 '사구게' 법회

불교사상의 핵심을 게송으로 읊는 〈금강경〉 '사구게' 법회가 서울불교청년회(회장 김인택) 주최로 만해교육원에서 매주 첫째 둘째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열린다.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의 지도로 참가자들은 사물의 본연상태를 4단계로 고찰하면서도 사물은 사구 중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02)730-9108

나의 수행일기



이경호 〈한전 전력경제처 선임연구원〉

나의 어머님은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 할머님과 함께 절에 가서 칠성불공을 드렸으나 세번째에도 역시 딸을 낳아 이름을 칠림(七林)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에 중단하지 않고 할머님과 어머님은 시골 암자에 가서 아들을 낳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려 잉태를 하였는데 임신 6개월에 6·25사변이 일어났다. 임신 6개월이 된 육신을 이끌고 피난을 가는 도중 하늘에는 온통 사방으로 대포 파편이 교차되고 있었다. 그때 어머님은 동네 앞 백백하게 우거진 콩밭사이 골에 몸을 엎드렸다. 그러나 대포 파편은 어머님의 옆구리를 파고 들었다. 길이가 약 7~8㎝ 정도인 파편이 박혔다.

그 당시로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도저히 생존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히도 미국 의료지원단에 수송돼 약 1년동안 병간호를 잘 받아 건강하게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모도, 태아였던 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들 기적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 평상시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평소 우리 할머님과 어머님은 남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던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음식을 마련해서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셨다.

이러한 보살행의 인연공덕으로 나의 목숨을 이어 주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다.

대구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명동입구에 있는 한국전력에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촌놈이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외로움이 따랐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도 남다른 불성이 있다고 관단했던지 한전 중부지점에 근무하는 정흔 보살이 특별히 찾아와서 1979년 12월 봉익동 대각사 불광법회를 안내해 주었다.

불광법회 광덕스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상태, 그 마음이 믿고 있는 상태, 그 안에 품고 있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윤회하고 있으나 반야의 눈으로 보면 본래 없는 것이며, 반야에 의해서 소탕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바라밀엄송을 강조하셨다. '마하반야바라밀'에는 막히는 것이 없으며, 한계도 없고, 있다 없다하는 것조차도 없는 존재성이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광덕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아 불광법회에 가입하였다. 1개월후 마하보살이라는 임원을 맡아 남다른 불심으로 전법활동을 해오던 중 1980년 10월2일 광덕스님으로부터 보행(普行)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보행이라는 법명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전법활동에 진념해 왔다.

또한 중구법회 명등보살임무를 부여받아 11년 2개월 동안 중구법회 불자에게 가정탐방 기도와 순례법회를 주도하는 등 노보살들에게 전법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4년 10월 16일부터 2년간 불광법회 부회장직을 맡아 불교포교에 앞장서 왔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1990년 3월 7일 불자모임인 반야회를 창립하여 직장법회로는 드물게 8년동안 중단없이 매주 목요일 저녁 5시30분(하계 6시30분)부터 단 한사람이 참석하더라도 법회는 어김없이 열리도록 했다. 간단(間斷)없는 전기처럼 법륜은 쉼없이 돌아갔다.

또 한전반야회에서는 매년 동계, 하계에 순례법회와 수련대회를 갖는다. 지난해는 6월에 영주부석사, 10월에 경주불국사에서 수련법회를 주관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한국전력에 근무하게 된 것은 할머니, 어머님이 쌓은 인연공덕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 법명인 '보행'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세해 아침에 발원해 본다.

'마음이 운명결정' 가슴에 새겨
한전반야회 창립…"법명 菩行 실천하며 살자"



게 시 판

♣ 인사

조계종 총무원
△최종환(복지재단 기획사업부장) △손상원(복지재단 복지계장) △이석심(총무계장) △박종학(서무계장대우) △이상봉(기획1계장 대우) △황찬익(홍보계장) △홍민석(문화1계장) △조계완(문화주임) △김승환(사회과장) △허권(사회3계장대우)

♣ 강좌

△구로복지관 역사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14, 15일 양일간 서울시내의·식·주 문화박물관에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역사교실을 개최한다. 회비는 2만원. (02)852-0525

△노인의전화 상담원교육=한국노인의전화(회장 이성우)는 14, 16일 오후2시 이화여대 부근 노후 복지센터에서 제8회 노인을 위한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5만원. (02)365-2272

♣ 모집

△목동청소년회관 경전교실=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경전교실을 개설한다. 강사는 경륜스님. (02)646-0183

△법사교육 수강생=한국불교법사대학(총재 이종오)은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과정은 법사·대법사과정. 접수는 2월25일까지. (02)720-1836

△슈퍼비젼 교육생=자비의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상담원으로 활동할 제7기 슈퍼비젼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명. 교육비는 무료. (02)737-7378

△능인선원 유급직원=능인선원(원장 지광)은 공양반에서 일할 불심이 돈독하고 신체건강한 40~50대 유급직원을 모집한다. (02)577-5800

△방송모니터 통신원=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방송모니터 통신원을 수시로 모집한다. 대상은 40세 미만의 전문대졸 이상. (02)712-5812

△사찰근무 여직원=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총본산 구인사 총무원과 각 말사에서 근무할 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98년도 여고졸업자. (0444)423-7100

♣ 답사

△삼국유사 현장기행=터사랑(대표 전숙희)은 17~18일 무박2일로 '삼국유사 현장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에는 '청도 운문사' '군위 인각사' '영천 거조암' 등을 둘러 보게 된다. 회비는 5만원. (02)725-1284

△경실련 문화역사기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설조스님·김윤환·유현석)은 17~18일까지 1박2일동안 '지리산 자락의 불교문화기행'을 주제로 답사를 간다. 이번 기행은 '만복사터' '백장암' '실상사' '마천 여래입상' 등 전북 남원 일대를 돌아 본다. 회비는 대상별로 4만원~7만원. (02)766-5390

♣ 이전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시 성북구 323번지 길상사내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41-4696

♣ 화촉

△선학원 편집실장 류봉수씨는 남귀순씨와 18일 오후3시30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 부음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모친 김판순여사(90)가 6일 타계했다.

△김용전문위원(조계종종회사무처)의 부친 김춘학씨(75)가 2일 저녁7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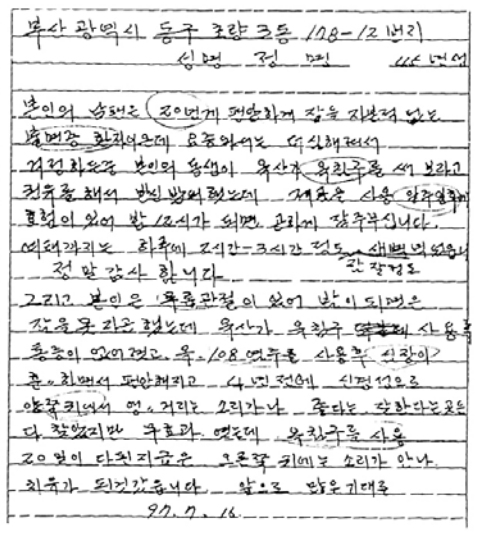
■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충북 충주시 산척면민이 재배한 순수 메주콩(백태)를 천등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황토방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장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울고 넘는 박달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광동부락에서 부락민이 직접 정성들여 씨뿌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콩만을 사용합니다.
·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 신비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황토 온돌방에서 볏짚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토불이의 정신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멋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 주 소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
● 전 화 : 0441)853-9982
● 핸드폰 : 011)467-9982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불면증

옥팔찌 옥반지 백팔염주
옥이불 옥베개 옥매트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社團法人 韓國佛教大圓會
理事長 朴銑炘

● 大圓法會 ●

상임법사 이지행
부회장 이광배
부회장 전찬규
부회장 손애정
부회장 허성구
부회장 임광순
부회장 이호령
부회장 오덕랑
부회장 심현옥
부회장 신성옥
부회장 배영옥
부회장 김용직
감사 이순자
감사 이상우
감사 이강인
감사 윤환연
감사 윤배효
감사 배영옥
감사 문황진
감사 김학민
감사 김용직
감사 김길성
감사 권오현
감사 고원규
감사 이지행

(이상 가나다순)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부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법회는 매주 일요일 10:30 / 12:30 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3-9171
FAX 756-7258

"목판화로 보는 석굴암"

정비파씨, 본존불등 38점 최초 판각작업
초파일경 조계사 전시… 해외展도 계획

종교심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예술품중 하나로 꼽히는 석굴암. 석굴암은 그간 수없이 그림과 조각, 판화, 사진 등 조형예술의 원천이 되어 왔지만 대부분 본존불이나 십일면관음상등 일부분에 그쳐 왔다. 그런데 목판화가 정비파씨(42)가 석굴암 조상 전체를 목판화로 옮기는 큰 원력을 세우고 새해를 맞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존불등 석굴암내 조상(彫像) 38점이 최초로 대형 목판화로 태어나고 있는 것.

"불심 깊으신 외할머니 등에 업혀 가던 5살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석굴암에 갔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만 나면 가 볼겁니다. 토함산 오르는 길이 포장이 안되어 있을 때는 아침에 떠나면 해가 질 저녁때나 되어 석굴암에 도착하지만 부처님의 신비스러운 미소를 대하면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기억이 떠 오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석굴암은 나의 뇌리에 붙박혀 있어요. 유리로 막혀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뵙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중에 문득 불 보살님들을 세상속으로 나가게 해 더 많은 사람들과의 폭넓은 만남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심정에서 판각의 원(願)을 세웠습니다."

재작년부터 구상에 들어가 스케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판각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 6월. 현재 사천왕, 팔부중상, 보살상, 범천 제석천 금강역사상 등 모두 20상이 완성됐다. 본존불, 십대제자, 감실부처님 등 18상이 남아있다. 실물원형을 30% 정도 축소해 판각하는 작품들은 모두 160㎝가 넘는 대형 작품들이고 신비로운 미소와 정교하고 유려한 선을 그대로 재현시키고자 노력해 불 보살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 그의 작업실(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들어가면 마치 석굴암안처럼 성스러운 분위기가 향불처럼 피어오른다.

"매일 백팔참회기도를 올리고 작업에 임하다보면 마치 나와 칼이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걸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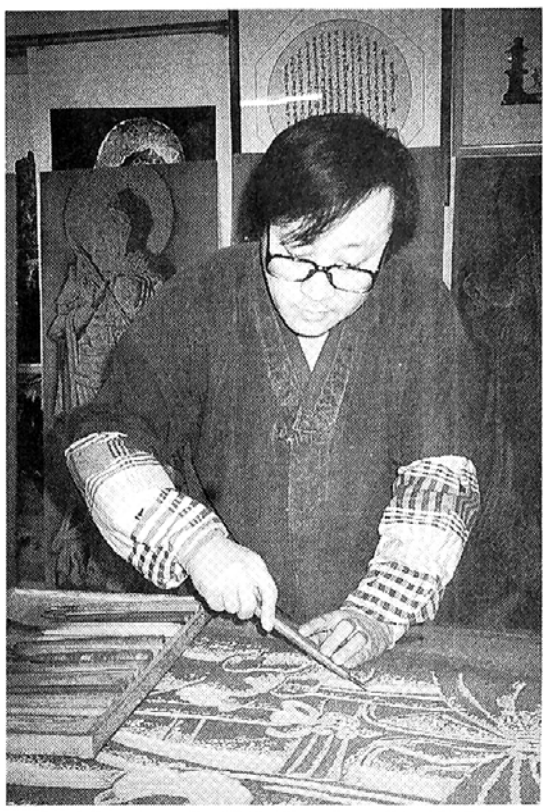
각 불보살상 뒷 배경에는 송강가사체로 '능엄신주'를 써 넣을 예정이다.

3월까지 판각을 마치고 초파일을 전후해 조계사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전시가 끝나면 부산 대구 경주와 해인사에서 전시를 갖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전시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국토기행' '흙 냄새-부처마을전' 등 그동안 개최한 개인전 제목에서처럼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모습과 정체성을 찾는 목판화작업을 주로 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온 정비파씨.

"다음 주제는 어둡고 고달픈 시대에 중생들을 구원해 준다는 미륵상입니다."

이경숙 기자



◇석굴암내 조상 38점을 대형목판화로 옮기고 있는 정비파씨.

불심시심 〈113〉

온갖 사물은 사람에게 달렸다

柳眉風動心搖樹 (유미풍동심요수) 버들눈썹에 바람 불자 마음은 나무 흔들고
谷口雲生性起塵 (곡구운생성기진) 골 어구 구름 뜨니 본성에 먼지 인다
莫把頭頭看外事 (막파두두간외사) 닥치는 모든 일 몸 밖의 일로 보지 마라
須知萬像屬眞人 (수지만상속진인) 온갖 물상은 참 사람에 속한 줄 알아야.

위 시는 묵암대사의 시로, 섣달 그믐밤(除夜)에 읊는 4수중 하나이다. 섣달의 그믐이란 한 해를 다하는 날이니, 내일이면 새해라는 희망의 부풀이 있기에 앞서 지난 한 해의 반성으로 매듭하는 것이 일상의 상례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제야라 한 시에는 어느 누구나 한 해의 반성에서 시작하여 인생의 전반적 되돌아봄의 회고시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위 시는 그러한 일상적 회고나 뉘우침에서는 거리가 먼 듯이 느껴진다. 개인적 삶의 회고라기보다도 인생의 수양적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느낌이다. 사물을 외형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속인에게 외모에 구애되지 않기를 바라는 스님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하겠다.

버드나무에 바람이 불 때 내 마음은 나무가 되어 흔들린다. 나무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림이 상리이다. 그러나 저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니, 비록 나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기에 저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깃발을 보고 바람이 움직인다거나 깃발이 움직인다고 다투는 두 스님을 보고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한 혜능선사의 이야기가 연상된다. 골 어구에 이는 구름을 보고 내 본성에도 먼지가 일겠다 함을 의식하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다. 이렇듯 일상의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나와의 인과적 유기성으로 반성하자는 선 수행의 요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사물의 존재나 자연의 변화가 나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나와 자연 사물이 동일 공간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무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물이 불성으로 묶여 있음을 의식하는 태도요,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른 자세인 것이다. 삶의 주체가 바로 나라면 나를 에워싼 자연이 나와 무관할 수 없다. 더구나 내 삶의 주체가 나라면 주체인 나로서 주변의 사물을 나와 유관한 것으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주체로서 주체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 된다. 이것을 인식한 그가 바로 참 사람이요 그를 일러 진인(眞人)이라 할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의 해석을 좀 유보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어적 결합으로도 음미해 봄직하다. 버들잎과 마음의 동질시, 구름과 성품의 동화는 시어적 구사로도 일정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겠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화제의 전시

갤러리사비나 가나아트스페이스 호랑이展

용맹스럽고 강인한 호랑이. 우리 민족과 너무도 친근한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늠름하면서도 익살맞고 다양한 호랑이모습을 감상하며 무인년 새해를 열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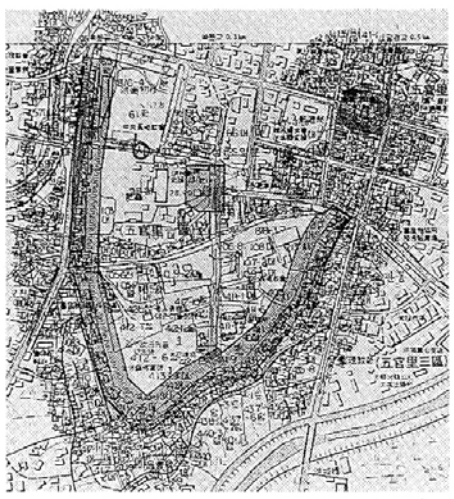
24일까지 서울 갤러리 사비나(02-736-4371)에서 열리고 있는 '호랑이展'에는



◇임효作 '호랑이' 부조.

김기창 김식 박수룡 사석원 임효 등 화가들의 익살스런 호랑이, 기하학적인 선으로 조형성을 살린 호랑이, 테라코타로 만든 호랑이, IMF시대의 호랑이 등 다채롭게 묘사된 18점의 호랑이를 볼 수 있다.

가나아트 스페이스(02-734-1020)는 15일까지 제1회 산신호랑이전을 연다. 삼신학회(회장 조자룡)가 주관하는 산신호랑이전에는 송규태씨가 복사설채한 산신탱화 등 1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통공예미술관(02-734-0132)은 31일까지 호랑이 까치 십장생 화조 등 6백여점의 민화를 전시 관매한다. 또 매일 까치호랑이 그리기 시범을 보여 민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홍성읍 문화재관리도면. 빗금친 부분이 문화재 소재지역이다.

"문화재 관리도면 공개합니다"

관리국, 1269건 수록… 훼손 사전방지 한몫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보호지역 포함)을 지형도에 표시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도면'이 제작돼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재관리국이 한국지도원에 의뢰,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이 관리도면은 총 1천2백69건의 국가지정문화재(부동산문화재)를 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고 있다. 도면제작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어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재지역 저촉여부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관리도면을 건설교통부, 시·도지사,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보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문화재 관리내용이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일반인의 열람요청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리도면을 전산화해 CD 롬으로 제작, 과학적인 문화재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시·도지정 문화재는 해당 시·도에서 자체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기석 기자

■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 월송스님 펴내

일엽스님 유고詩·법문 '접할 기회'

개화기 최초의 여류문인으로,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을 주창한 여성해방운동가로, 우리나라 근세불교의 걸출한 선승으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일엽스님(1896~1971)의 문학과 사상의 진수를 담은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삽기에〉(문화사랑 刊)가 출간돼 화제다.

60년대 초반 세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수상집 〈청춘을 불사르고〉의 저자 일엽스님의 이번 시집은 스님의 손상좌인 수덕사 환희대 월송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유고와 기존 문집에 수록됐던 시를 엮어 펴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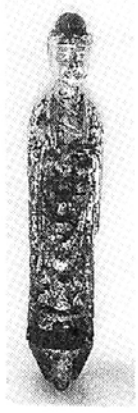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엽스님의 시를 집대성하여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고,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시집에는 '나' '님과 고적' '알거든 나서라' 등 일엽스님의 깊은 성찰과 사색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50여편의 시문과 방대한 사상이 집약된 금고옥조의 법어들이 들어있어 시대에 따른 일엽스님의 시세계 전반을 감상할 수 있다.



◇김일엽스님

러 하바로브스크 출토 불상 '고구려作'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인근의 코르사코프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사진)이 고구려식 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는 지난해 12월 22일 고구려연구회 정기학술회에서 '고구려 금동불상의 신례'를 통해 "하바로브스크 인근지역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6.9㎝의 소형불이나 각부의 양식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구려 금동불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높직한 육계, 두툼한 눈두덩, 갸름하면서 네모에 가까운 상호, 단조로운 의문, 원추를 거꾸로 놓은 듯한 대좌 등이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법의의 좌우 의단(衣端)이 펼쳐지지 않은 점이 다른 고구려 불상들과 다르나 말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이 지역이 고구려 혹은 발해의 불교문화권에 속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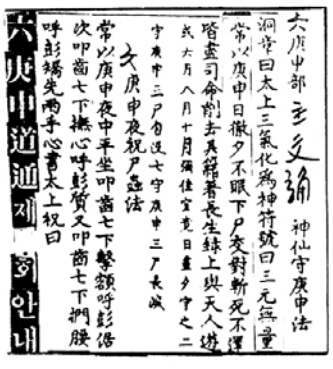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 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아산·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卍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卍

대도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여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장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장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 眞人出 六神道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道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송하는 도장경중의 육경신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옴마니반메훔·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六庚中部 主文論 神仙守庚申法
洞賓曰太上三氣化爲神符號曰三元無量
常以庚申日徹夕不眠下尸交對斬死不得
昏盡司命削去其罪著長生錄上與天人遊
氏六月八月十月猶住宮竟日盡夕守之二
守庚申三尸自退七守庚申三尸長滅
又庚申夜祝尸蟲法
常以庚申夜中平坐叩齒七下擊額呼彭倨
次叩齒七下攝心呼彭質又叩齒七下捫腋
呼彭矯先兩手心書太上祝曰
六庚申道通제 회안내

「경신일에는 정오시에 천가지목과 밤자시에 천운이 열리어 대도인의 진인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수미산 제석천궁의 신선들과 제석천왕이 옹호하며 팔만사천 신중과 팔만사천 제대성중과 팔만사천 산신들과 천지이치 음양신들이 이 주문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을 수 있고 득도할 수 있는 비전의 주문입니다.

입제일 : 98년 1월 12일 음 (11.14)
해제일 : 98년 1월 13일 음 (11.15)
회 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모자원고개 하차)
전 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추 천 도 서

어린이불교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 정 스님 감수

• 어린이 법회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양장 · 369쪽 · 값 : 9,000원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법보시는 법련사(02 · 733 · 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출판 달이숲
Tel 267 · 8101 Fax 263 · 3002

佛紀 2542年 謹賀新年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구하
의장 정희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1
☎ (032)422-2066~7 / FAX (032)422-0413

■ 서울 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101호
☎ (02)730-0798~9 / FAX (02)722-3205

출판량 절대감소 '불황 불보듯'

IMF한파속에서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 불교출판계다. 가뜩이나 열악하고 시장도 빈약한 불교출판계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책값을 올릴 수 없어 속수무책을 호소하고 있다.

출판량을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줄이는 등 불황속에서도 힘겹게 불교출판의 꽃을 피우려는 각 출판사들의 올해 계획을 들어본다.

98 불교출판계 전망

제작비 상승 '속수무책'
원가절감 등 자구책 골몰
양서 위주 발간 '돌파구'

민족사(사장 윤창화)는 올해 출판량을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였다. 그러나 제반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가벼워진 주머니사정을 감안해 책값은 현재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말 출간될 〈설법, 그 이론과 실제〉(정순일)를 필두로 〈불보살명호이야기〉(이윤수), 〈고려시원의 구조와 기능〉(한기문),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김광식)등과 작은책시리즈 〈선학7 행〉(정병조), 〈불교사〉(이봉춘), 〈촉도장정〉(조흥윤)등 20여권을 출간하게 된다.

대원정사(사장 장상건)는 앞으로의 경제사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최대 50%이상 출판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고은씨의 소설 〈수미산〉이 초파일 경에, 원묵스님의 〈포교당일기〉가 올해 말경 선보인다. 그밖에 〈교양불교〉(가제) 2권과 〈백문백답시리즈〉 〈종교대화시리즈〉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대원정사는 또한 불교교육연합속회와 함께 펴낸 중학교 검인정 종교교과서를 1월말 경에 새 모습으로 출판한다. 이 검인정 종교교과서는 새학기부터 정식교과서로 채택된다.

불광출판사(사장 광덕)는 평균 한달반에 1권 정도의 불서를 출판하게 된다. 〈불설관무량수경〉(공파)이 1월말에 출간되고, 〈유마경강설〉(김귀추)이 3월중 〈하동산스님 문집〉, 〈신도포교지침서〉(성일), 〈이남덕 칼럼집(가제)〉 〈정법안장〉(보광) 〈벽암록〉(통광) 등이 올해 선보일 책들이다. 또한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한 무비스님의 〈금강경오가해〉 등의 홍보와 판매에도 역점을 둔다.

우리출판사(사장 무구)는 〈약사경〉(법정), 〈신역금강경〉(정용수), 〈원혜스님 수상집〉(가제) 〈TV동의보감〉 등 수상집, 경전, 건강서 출판에 주력할 계획이다. 출판량은 지난해 보다 20% 정도 줄일 예정이지만 책값은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제반비용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효림(사장 김현준)은 불교신행연구원의 월간지 〈법공양〉의 연재내용을 모아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고, 시공사(사장 전재국)는 경전시리즈 〈마하박가〉(율장대품, 전3권), 〈정선아함경〉(전3권)을 올 상반기중 펴낸다.

여시아문(사장 김광삼)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초켈), 〈붓다차리타〉(정태혁), 〈보르헤스불교강의〉(김홍근)등을 출간한다.

운주사(사장 임희근)와 불교시대사(사장 김병무)는 경제사정여하에 따라 출판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불교출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꼭 필요한 책 아니면 내지말고, 상품성과 질적 성장을 적절히 배치시킨 좋은 불서를 펴내는 길만이 살길!"이라면서 불황타개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생활속의 불교 — 전재성 편저

빠알리어 대장경서 간추린 생활수행



〈생활속의 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불교권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불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형 그대로 담겨있는 〈빠알리어 대장경〉에서 생활인을 위한 가르침을 가려내 간결하게 해설한 것이다.

남방불교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불문과 삼귀의 오계의 참뜻, 그리고 생활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과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를 비롯해 불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인도철학과 범어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빠알리불교성전협회 회장이기도 한 전재성씨가 펴낸 이 책은 유익한 생활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바지 3천5백원〉

화제의 책

한국종교연구사 — 한국종교학회 지음

해방후 전통종교 현황과 발달사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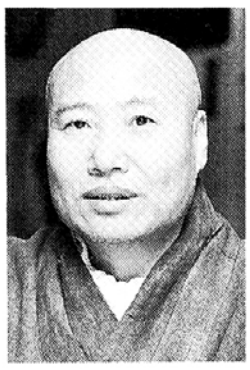
광복후 한국종교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해방후 50년 한국종교 연구사〉는 이러한 물음에 충실한 답변을 해준다.

이책은 한국종교학회에서 2년간 기획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학회발표와 수정을 통해 모아진 글들을 정리한 것이다.

불교·도교·천주교·개신교·유교·신종교·무교·고대종교·인도종교 등 전통종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종교사회·종교철학·비교종교 등 종교이론의 발달사까지를 조명했다.

이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종교관 형성에 게별종교 전통이 미친 영향까지도 살피고 있다.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국종교연구의 변천을 짚어낸 이 책은 한국종교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 1만5천원〉

인터뷰



'이천불교문화' 펴낸 혜봉스님

"지역 불교역사·유적 정리 포교이자 문화재 사랑"

임혜봉스님(이천불교사암연합회 총무)이 경기도 이천지역 관내 모든 사찰과 불교역사, 절터, 불상, 탑, 범종, 불교전설, 불교단체 등을 총망라한 〈이천불교문화〉를 펴냈다.

"그동안 전통사찰 중심의 불교문화재, 유적 등을 담은 책들은 다수 선보였지만 지역의 역사와 유물, 유적을 집대성한 책은 보기가 힘들었지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같은 불교문화유적들을 정리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천지역불교의 모든 것을 책으로 내놓게 됐습니다"고 혜봉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서 부터 각지역의 읍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출간된 〈한국사찰보감〉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문헌연구와 철저한 현장조사까지 실시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진까지 직접 찍었다. 이 책에는 이천지역의 불교현황이 시대별로 정리돼 있으며, 각 사찰의 현황과 신흥사 입상석불 등 새로 발견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담겨 있다.

이천불교사암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활동에 불교계의 대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스님은 "〈이천불교문화〉를 필두로 각 지역의 불교역사와 문화재들이 하루빨리 정리 연구돼, 성보문화재 사랑과 지역포교활동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혜봉스님은 이같은 바람을 기원하며 전국의 사암연합회에 〈이천불교문화〉를 무료로 보낼 계획이다. 〈은〉

구산선사 법어집 '구산선풍' 발간

수기설법 64편 담아…부록 '7바라밀 법문'



송광사에서 출가해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의 초대방장을 지내며 일생동안 청정한 계행과 엄격한 수행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한국불교의 대선지식 구산선사(九山禪師, 1910~1983)의 열반 14주기를 기념하는 법어집 〈구산선풍〉(불일출판사刊)이 발간됐다.

스님의 상당법어집인 〈구산선문〉에 이어 출간된 이 책에는 80년부터 82년까지 미국과 동남아, 유럽 각국을 순방하면서 해외교민과 불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해 설하신 64편의 주옥같은 수기설법이 실려 있다. 철저한 수행인으로 살아가셨던 위대한 사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해 스님은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자기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록으로 스님이 늘 주창했던 '생활불교의 길'인 〈7바라밀 법문〉과 행장을 수록해 스님의 생애와 그 자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다. 또한 송광사 설법전에서 거행된 조계총림의 첫 개원법회 모습, 첫 외국인 제자의 삭발모습, 스님의 임종전 정진하는 모습등을 사진화보로 담았다.

이 책을 펴낸 구산문도회는 구산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위원장 현호스님)를 결성, 스님의 법어 어록 및 자료정리 수집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구산스님의 법어집을 간행할 예정이다.

1월 명저자 특판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은 1월 기획 '명저자특별판매전'을 마련, '광덕·무비스님의 책들'을 전시판매한다.

〈광덕스님의 명상언어〉 〈무비스님의 불교공부〉 〈화엄경강의〉 〈반야심경강의〉 〈보현행원품강의〉 〈빛의 목소리〉 등 두 스님의 법어집과, 불교교리서, 수상록 등 20여종이 선보인다.

한편 여시아문은 1월말까지 〈성철스님 법어집 11권〉을 구입하는 전고객에게 '스님, 성철큰스님' 비디오를 증정한다. (02)737-0695

새로나온 책



▲**높은 산 깊은 물**=소설 〈높은 산 깊은 물〉은 불교문학상 수상작가 강지훈씨가 그동안 발표한 작품가운데 중단편 8편을 골라 펴낸 창작집이다. 암울한 시대의 질은 비극적 삶을 불심으로 치유하려는 강한 작가의식이 표출돼 있다. 봉림사, 추래암, 미타암 등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절이 삶의 터전이 되고, 불경과 불심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다. 〈좋은글 6천5백원〉

▲**세계에 가고 싶다**=깨달음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좇아 호흡수련, 기공수련, 화두참선 등 갖가지 수행과 스승을 찾아 나섰던 방송작가 문화영씨가 자신의 선도수련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초롱 1만원〉

▲**노을이 비친 교실**=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이자 동화작가인 곽종분씨가 35년간의 교직생활에서 느끼고 겪었던 사연들을 묶어 낸 책. '인사성을 길러주기위하여' '꼬마들의 보람과 더불어' '한의사가 된 제자' 등 우리사회의 새싹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활하며 보람을 느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현대사원경영정보편람**=나날이 발전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사원경영정보를 체집해 사원경영자는 물론 불교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각종 교계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각 종단과 교육기관, 복지단체, 불교서점 등을 비롯 주요사원과 단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지역별로 수록했다. 〈정우서적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원하는대로 이루는 기도의 법칙	박 혜 원	정신세계사
5	마음알기 나누기 다루기	용 타	대원정사
6	불교를 알면 광생이 즐겁다	윤 청 광	지식산업사
7	금강경대강좌	이 제 열	여시아문
8	부소유	법 정	범 우 사
9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10	선시 감상사전	지 현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 김병관 칼럼中 ·

어둠을 거치서 오는 새벽 - 대통령의 새로운 철학 -

고2년생인 작은 아들놈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실직을 하고 엄마와 함께 어쨌든 사는 길을 찾아야 할 터인데 그나마 일할 자리마저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

'밤새 안녕하시오'하던 우리식 인사말을 요즘은 주저없이 꺼낼 수가 없다. 하룻밤 사이의 안부를 걱정하게 만드는 하루살이식 정책들이 수천만 동포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하루는 커녕 거의 매 순간마다 마치 미치광이 널뛰듯 하는 환율 등락과 충격적인 현안들이 우리를 망연자실케 해온 연말이었다.

대통령당선자는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고집하던 근로자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궁극엔 손바닥을 뒤집듯 방향선회를 하고 말았다. 물론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실로 공약(公約)을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었다면 심히 괴롭고 무참한 심경이었을 게다.

하필이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약속어음이 공수표가 되어 버렸으니 정작 얼마나 황당했을 것인지도 짐작된다. 이제는 인기를 먹고 사는 야당투사가 아니라 5천만 동포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국가 경영자로서 변신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승자측에 보내어야 할 갈채 대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유례없는 현상의 민심이고 불행한 일치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같은 괴이쩍은 이상기류를 당선자측이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지가 문제다. 상처뿐인 영광이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상초유의 정권교체를 한 것도 그렇고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앞이 안보이는 혼란에 맞닥뜨린 것도 자업자득(自業自得)인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이에 수 많은 처방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특효약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답답한 나머지 다소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펴자는 해 보았다. 여야가 따로없는 거국일치체제를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리드쉽을 가진 독재자가 아쉬운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인기나 여론 따위에 끌려다니지 않는 무쇠같은 의지력과 확고한 철학이 있는 이를테면 검은 것을 희다고 우겨도 그것이 우국지심(憂國之心)에서 비롯한 억지라면 그 억지 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상형의 독재를 꿈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해 오랫동안 답습해온 주의 주장과 정책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해묵은 상투성을 뛰어넘는 혁신적 발상이 과연 모순이기만 한 것일까. 그리하여 빈곤한 철학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소수의 권익보다는 말없는 다수의 편에 서서 국가의 위상을 반석위에 세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순의 역행이겠는가.

로마사를 재조명한 '시오노 나나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BC 429년)을 놓고 "민주정치를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민주주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서술했다. 물론 성공한 독재에 부치는 직언일 것이다.

어설픈 지도자가 이끄는 어설픈 민주주의는 배를 산으로 오르게 해 놓았을 뿐이다. 나라를 이지경에 이르게 한데 일조한 근로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하나를 겨우 경작해 놓고 둘 혹은 셋씩을 갖고자 한 오류였다. 소경 제닭 잡아 먹듯이 이득인줄 알고 덮어놓고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 결국 자기가 서 있는 뿌리까지 해치고 만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자연의 이법을 깨우쳐 위난을 극복할 도리밖에 없을 것 같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노력한 결과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부증불감(不增不減)의 진리이고 질량불변의 과학이다.

이같이 무섭고 두려운 세상인줄 모르다보니 잠시 일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한탕주의 범죄에 빠져들기도 한다. 실로 가치관의 부재시대에서 오는 불행이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우주와 우리 모두는 아무 이유없이 함부로 생성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어떤 미물일지라도 단순히 일회성이거나 거품같은 우연의 존재라면 아마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버려진 공간일 뿐이다.

생명체 모두가 이 무한한 시공을 좇아 인과 공덕을 나누면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우리가 몸소 부딪쳐온 업의 높낮이에 따라 지금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생명의 주인공인 정신이 공허해지면 거품같은 물질은 돌아온 곳으로 회귀되는 것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지금 더이상 경제 파탄의 시나리오만 되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업보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동안 분에 넘치게 받은 요행은 고통스럽더라도 돌려 주어야 한다.

사실 경제적인 부(富)는 참된 길을 가기 위한 낙타의 예비물주머니에 불과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정신문화가 빈약한 경제 동물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경제침략은 물론 군사화침략 마저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강국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다. 한민족은 지난 5천년 역사속에서 무려 6백차례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를 보존해 온 것은 우리의 드높은 기상과 문화의 독창성으로 가능했다.

지난 88올림픽 폐회식에 선보인 강강술래는 세계인을 전율케 했다. 화합의 상징인 원을 추구하고 고통을 선하는 한민족의 정신이 이 우주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척자로 대응비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가슴뛰는 또 다른 대망의 출발 선상에 서 있다. 새로운 가치가 지배하는 21세기로 새대통령과 함께 당당히 나아가자.

•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 생활체육 배드민턴 서울시연합회장

김병관

TEL : 02)3427-3333~4 FAX : 3426-3469

김병관 칼럼 "대통령의 눈물"을 읽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김병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풋나기 혁명가, 수도승, 성공한 기업인, 언론인과 문학가로 변신해 오면서 겪어야 했던 산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살찌우고 나라를 구할 희망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코자 합니다.

본 광고를 보다 넓게 지속할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 민 은 행 085-21-0476-931 김병관
농협협동조합 803140-56-001816 김병관

김병관의 우주와 인생이야기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

도서출판 혜진서관

TEL:332-0672/FAX:335-0698

"사이버 공간엔 청장년 초발심 왕성"

'천불동' 박수호시샵 회원현황 분석

재가자 운영-스님은 지원 '역할 분담'
불자 고령화·여성중심 기복 '이젠 옛말'

"불교계가 전자정보공간을 적극 활용해 불교신자의 고령화, 여성신자의 과잉분포, 기복신앙 등을 극복하자. 불교계 현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신속히 유도해 지역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신앙·포교의 장으로 만들자"

천리안 불교동호회(이하 천불동) 시샵 박수호씨(고려대 사회학과)가 석사논문 '전자공간에서의 종교활동-천리안불동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4월부터 천불동에 가입한 회원 1천1백46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직업 ▲가입동기 ▲메뉴 이용 횟수 ▲활동 등을 조사-분석한 이 논문은 지금껏 피상적으로만 논의돼 온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신앙·포교 활동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써 제시하고 있고 도래하고 있는 첨단 정보사회에서의 가상공간을 이용한 불교계의 포교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씨는 "조사 대상자중 2·30대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71.8% 28.2%로 나타났다"며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장년 남성들의 발심(發心)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여 교계의 중추인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업별 분포는 대학(원)생이 32.1%로 가장 높고 회사원(23.2%) 전문직(8.7%) 중·고생(7.7%) 교육공무원(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분포 역시 20대가 56.7%, 30대가 26.7%로 드러나고 있어 저녁시간이 비교적 여유있는 사람들이 다수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과 교사의 참여도가 높은 것에 주목한 박씨는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신앙생활의 성격이 기복적 욕구 보다는 불교사상을 공부하고 교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이 50.3%로 가장 높고 경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천불동 메뉴인 '여시아문'에 게재된 정보들이 평균 2백회 이상 읽혀지고 있는 것도 교리 이해가 우선하는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표 참조〉

박씨는 "천불동의 여론형성은 쟁점화에서 서명운동으로 발전하고



유관기관에 전달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전자정보공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여론을 형성해 쟁점에 대한 현실적 대처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교계가 인각사 수몰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여론을 모으고 적극 대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천불동 회원중에는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 전자정보공간에서의 신앙생활이 시·공간적 한계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사찰과 달리 재가불자들이 천불동 운영을 맡고 스님들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균형잡힌 역할 분담도 전자정보공간 신앙생활의 특징"이며 "온라인 상에서 신앙생활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불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동호회에 접속함으로써 경전공부·수행법 등을 습득해 신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에 공지된 전국모임 등에 자신의 일정에 맞춰 사찰을 참배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등 전자공간이 새로운 신앙의 터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박수호씨는 "불교계의 위상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요소중에서 전자정보공간의 활용은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천리안 불교동호회 '여시아문' 메뉴

번호	등록자	줄수	조회	제목
383	BAE0013	68	59	백유경 7, 도정의 옷
381	BOLISIM	46	69	(대행스님) 예화편21: 시어머니 부처-1
378	THIM0313	117	39	(불광법회/광덕큰스님 법문)…32
375	POGYO	2284	109	해심밀경
373	TAEGALI	30	70	아함경…은적회보에서 옮긴 글…1
253	NANGURM	26	399	(번역)(치문경훈) 01
220	PSIKI	36	235	(의상, 화엄승일법계도) 게송의 해석(1)
178	CYBER108	71	272	다시보는 반야심경 6. (오온)
148	ZSBUD1	145	166	(SOWOO: 청화스님) Ⅰ. 나무아미타불(1)
102	ZSBUD1	78	50	(CHYOO: 한탑스님) 4. 우리는 불자(佛子)다!
21	ZSBUD	85	300	(NISW: 지광스님) 천수경 강의 1
9	DALMA25	72	421	(법구경1)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3	SOLME58	69	304	선생경 1…이 경을 설하는 인연

불 교-스스로 찾는 길
가톨릭-절대자의 선물

종교별 구원관의 차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生老病死). 각 종교는 '구원'을 통해 이 같은 멍에를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신학과 사상〉(가톨릭대 刊)지가 겨울호에서 불교·가톨릭·원불교 등의 구원관을 특집으로 게재해 눈길을 끌고있다.

정각스님(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은 '불교적 구원관'에서 "죽음과 태어남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 업으로 휩쓸림(輪廻)이 곧 고통"이라며 "불교적 구원이란 업을 정화하고 윤회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밝혔다. 또 "길 잃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구원의 실천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구원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원인에 의해 살아간다는 연기관으로 팔정도의 원리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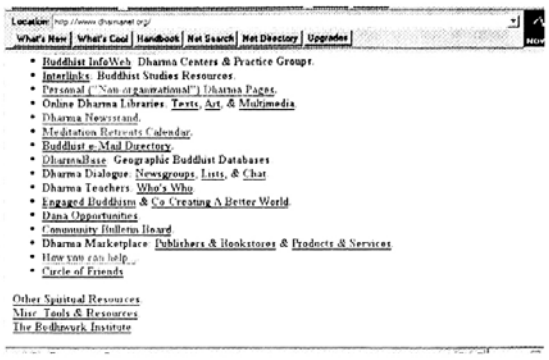
임병헌교수(가톨릭대 신학)는 '그리스도교 구원관'에서 "구원이란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에 선사하는 비(非)구원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죄의 용서"라며 "구원이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이며 피안의 희망인 동시에 차안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수교수(원광대 원불교학)는 '개벽시대와 낙원세계'에서 "구원의 주체는 불성을 가진 자아로서 모든 존재의 자체 노력에 의해 구원에 이른다"며 "자아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속에 신앙과 수행, 정신개벽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불교정보 「창구」… 하루 5백여명 이용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국제 달마넷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국제 달마넷은 다양한 불교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불자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

웹 오퍼레이터(운영자) 베리 케프씨는 "달마넷은 가상공간에서 불자들의 교리연구와 수행을 위해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설된 불교 사이트"라며 "일일 평균 5백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백여통의 전자우편을 받고 있는 최대 불교 네트워크"라고 소개한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불학 자료 ▲불교도서관 ▲뉴스그룹 ▲대화방 ▲참여연대 ▲게시판 ▲불교용품 소굉몰 등.

불교학술 관련 정보에는 원시경전의 전산본과 CD 타이틀 〈방산석경비각집성〉(中國房山石經碑刻集成)에 관한 정보를 각각 알려주고 있다. 버클리대에서 출간한 불교서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산본도 있다. 또 미국종교학회 등 6개 종교학 사이트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영문-전산본 〈해심밀경〉〈법화경〉〈불과 물〉〈꿈에서 깨어나라〉 등의 불교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잡지 〈가소·Gassho〉를 발간하고 불교예술품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불교정보를 분류 포인터 파일도 제공해 준다. 포인터 파일이란 정보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이트를 분류해 놓고, 이용자가 자신이 가야할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는 관련 홈페이지(60개) 고퍼(2개) 뉴스그룹(7개) 등을 분류해 놓고 있다.

고승이 드문 미국불교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승·어록, 미국의 대표적인 도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찰·사원 소개, 세계 유명불자들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을 알려주는 ▲불자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www.dharmanet.org/

"한국 채색화 불화의 說彩 수용"

윤정숙씨 '한국 채색화 연구' 발표

한국의 채색화에 사용된 색채의 상징적 의미는 고려·조선시대의 불화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숙씨(전북대 교육학)는 석사논문 '한국 채색화에 관한 연구-한국불화를 중심으로'에서 "채도와 순도가 아주 높은 한국 채색화는 고려·조선시대의 불화(佛畵)에 설채(說彩)된 채색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시작해 고려불화에서 전성기를 이루고 조선조 민화로 이어진 전통회화양식인 채색화. 따라서 우리 문화와 밀착해 있던 불교미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윤씨는 "고려불화에서 부처님을 표현하는데 쓰여진 금색의 설채와 불보살의 적색 가사는 귀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존비표현이며 음양설에서의 양(陽)의 개념으로 길(吉)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불화에 주로 사용된 녹색·청색 등의 원색들은 고려불화와 비교해 격이 다소 떨어지지만 귀족적 품위를 떨쳐버린 일반 대중을 상징하는 색채"라고 설명했다.

윤씨에 따르면 불화의 채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상징적 미의식의 투영일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적 색채관의 오색(황·적·청·흑·백)과 우리민족 생활에 깃들어진 존비표현 의식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우리 민족의 특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정숙씨는 "불화의 채색에서 한국적 색채와 상징성을 재발견할 때 채색회화의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한중일 학술회의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도원스님)은 20일 타워호텔에서 '현대사회와 천태사상'을 주제로 제1회 한중일 삼국 천태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문화체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오립민박사(중국·불교문화연구소 소장)가 '천태법화 삼매의 삼삼삼(三三三)' 무라나까 유쇼박사(일본·대정대학장)가 '참회·그 마음의 치유를 위하여' 이영자교수(동국대 불교학)가 '천태불교의 실천적 다양성과 회통성' 김상현교수(동국대 역사학)가 '천태종에 나타난 역사의식' 등을 발표한다. (02)465-4515

'한국학 중앙연구원'으로
정문연 명칭 바꾸기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이 개원 20년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구랍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정문연은 올 상반기중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

지난 78년 설립된 정문연은 그동안 정권의 이데올로기 생산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름도 학술기관 보다는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풍긴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었다.

'불교학보' 34집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불교학보〉 제34집을 발간한다.

이번 호에는 '선종전등설의 설립과 발전'(성본스님) '고구려 인현의불상의 조성 시기'(김영태)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홍윤식) '대승사상에 대한 부파의 배전(排戰)과 그 비판'(권기종) '초기불교교단과 국가간의 관계'(신성현) '원사상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경준) 등 논문 18편이 수록됐다. (02)260-3500

학술단신

미얀마, 학생운동 탄압위해
단기출가 허가제 실시 '빈축'

미얀마 군사정부가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들을 억압하기 위해 자유롭게 단기(短期) 출가할 수 있는 청소년 고유 권한을 허가제로 바꾸었다.

미얀마 정부는 "단기출가 기간이 망명 조직결성 등 반정부 활동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국제인권위원회는 "미얀마 야당 의원에 대한 인권 탄압이 학생·스님에게까지 공식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시아 불교국가들은 청소년들이 최소 7일동안 출가를 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

日경제인 이나모리회장 '환속'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위해

돈과 명예를 버리고 지난해 출가해 화제를 불러모았던 교세화사(社) 명예회장 이나모리 가즈오씨가 세속으로 돌아왔다.

일본 경제의 위기 극복에 대한 소명감이 환속의 이유.

5일 교토지역 경제 단체 신년하례회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개인적 철학 추구를 보류하고 지역 경제를 바로 잡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삭발, 승려가 된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지금껏 고토의 얼굴로 추앙받고 있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재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죽음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비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6

육조의 의발 ⑤

"어디에 먼지가 앉을 것인가"

혜능, 가사 · 바릿때 전수 법의 등불이어

새벽에 일어난 5조는 벽화가 그려질 자리에 붙은 시 한수를 보았다. 그는 단박에 신수의 작품임을 알아 보았다. 5조의 실망은 컸다. 그 시는 아직 선의 근본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신수의 체면을 생각하여 내색은 하지 않았다. "〈금강경〉은 무릇 모든 존재하는 것은 허망하다고 했다. 이 게송을 지침으로 수행하면 3악도(惡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 게송을 외고 향을 피우라고 일렀다.

5조는 깊은 밤중에 신수를 처소로 불렀다. "이 시는 네가 지었겠다?" 신수는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조사 자리를 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승께서 낸 문제를 고민하다 어줍잖게 낸 답안지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아직 너의 본성에 이르지 못했다. 불법(佛法)의 문 앞에서 서성거릴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일반인들이 이 게송에 따라 수행한다면 타락은 않겠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을 기약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렀다. "물러가거라. 가서 하루 이틀 더 고민해보고 다시 게송을 지어라. 본성의 실제와 불법의 진리를 꿰뚫었다고 여겨지면 네게 대대로 전해오는 가사를 물려주겠다."



그림 · 이준석

신수는 무겁게 절하고 물러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으나 더 이상 게송을 지을 수 없었다. 마음은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하여 흡사 꿈 속을 더듬는 듯한 시간이 흘러갔다.

한편, 혜능은 여전히 방앗간에서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날 수행자 하나가 신수의 게송을 나직히 읊조리며 지나갔다. 혜능은 그 시가 아직 설익은 것임을 알고, 수행자에게 누가 지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절간 돌아가는 사정에 무지한 오랑캐를 한심해 하면서도 자초지종을 들려 주었다. 혜능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부탁했다. "선배님, 저는 여기서 8개월동안 방아를 찧고 있는데 한번도 노스님 계신 곳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게송에 합장하고 참예할 수 있도록 데려가 주십시오." 혜능은 신수의 게송 앞에 이르렀지만 글자를 읽지 못했다. 마침 그곳에 있던 장모(張某)라는 지방관리가 혜능을 위해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전체의 뜻을 파악한 혜능은 "저도 한번 게송을 지을테니 그 옆에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지방관리는 이 제안에, 무식한 오랑캐가 웬 가당찮은 짓이냐면서 콧웃음을 쳤다. 혜능은 이렇게 대꾸했다.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초보자라 해서 업수이 여겨서는 안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가장 낮은 사람도 최상의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도 지혜를 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머쓱해진 관리는 어쨌거나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했고, 혜능은 단숨에 시를 읊어 내렸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菩提本無樹)
밝은 거울 역시 받침이 없다. (明鏡亦非臺)
본래 아무것도 없거니 (本來無一物)
어디에 먼지가 앉을 것이랴 (何處惹塵埃)

이 시를 보고 대중이 모두 놀랐다. 그들은 탄성을 연발하며 웅성거렸다. "사람은 생긴거나 행색 갖고는 모를 일일세. 우리가 그동안 살아있는 보살을 부려먹어 왔던거 아니야?" 제자들의 동요에 오히려 5조가 당황했다. 혜능의 신변을 우려하여 그는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이 게송 또한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지팡이로 땅바닥을 세번 쿵쿵 쳤다. 모두들 움찔하며 돌아갔지만, 혜능은 그것이 야반에 자신을 찾아오라는 신호임을 알아챘다.

밤의 정적 속에 혜능은 5조의 처소를 찾아갔다. 5조는 불빛이 새 나가지 않게 창문을 가사로 덮어 놓고 〈금강경〉을 설하기 시작했다. "어디에고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야한다(應無所住而生其心)"는 대목에 이르러 혜능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갖고 있고 그것은 염정(染淨)도 생사(生死)도 없는 영원의 것임을 투철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5조는 이에 대해 "본심을 터득하지 못하면 배움은 아무 쓸모가 없다. 본성과 만날 때 너는 곧 대장부요, 천상천하의 스승이요, 바로 부처이다"라고 확언해 주었다.

5조는 서랍에 고이 모신 가사와 바릿때를 건네 주었다. "너를 6대의 조사로 삼는다. 스스로를 지키고 널리 중생을 건져 법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5조는 사람 사이의 일을 우려했다. 법을 위해 모인 집단이지만 세속의 욕망과 다툼이 없을 수 없는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고 있었다. 5백이 넘는 대중들은 모두 고참이며 나이도 많은 신수를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스물이 넘은 애송이에게, 그것도 입문한지 아직 채 1년도 안된 신참에게, 그것도 불경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남방의 야만인에게 후계를 넘겨준다는 것이 몰고올 파장은 심히 두려운 것이었다. 5조는 혜능을 고향으로 내려보내 당분간 은둔시킬 생각을 굳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6〉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인물 부처세계 들어가는 구도과정 설법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을 치라면 〈화엄경〉을 든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21일간에 걸쳐 해인삼매 속에서 설하셨다는 이 경은 우주세계 그대로가 부처며 깨달음임을 나타내고 있다. 〈화엄경〉의 한역본에는 사십권본 육십권본 팔십권본의 세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중 사십권본은 육십권이나 팔십권본 중의 한 품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번역된 육십 〈화엄경〉은 삼만팔천의 게송, 삼십사품으로 짜여져 있고 설법한 장소는 일곱군데이며 여덟번에 걸쳐 설한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의 팔십권본은 사만오천의 게송, 삼십구품으로 짜여져 있고 설법한 장소는 일곱곳이며 아홉번에 걸쳐 설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화엄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이 두품은 〈십지경(十地經)〉이라고 하는 독립된 경으로 전해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십지품은 보살이 수행하는 열가지 계위, 즉 중생이 부처가 되는 열가지 차례와 경지를 설하고 있으며 입법계품은 선재라는 수행자가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닦는 구도 과정에 대해 설하고 있다. 그 중 입법계품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보현보살 등 오백보살, 오백성문과 함께 계실 때에 '사자가 기운을 뻗는 것과 같은 삼매(獅子奮迅三昧)'에 드시게 되었다. 그때 사방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와 부처님을 찬탄하자 보현보살은 열가지 법으로 부처님의 사자빈신삼매의 뜻을 말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을 이 삼매에 함께 들게하기 위해서 미간의 흰털로 큰 광명을 발하니 온갖세계가 빛으로 장엄되고 이 광경을 본 보살들은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 법회라 한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사리불과 목건련등 여러사람을 데리고 남쪽으로 떠난다. 문수보살 일행이 복성이라는 지역의 동쪽 사라숲에 있는 큰 탑에 머물게 되었을 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수보살 앞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그 중에서 부처의 법을 받을 만한 선재라는 동자를 발견하고 "그대는 이미 법을 깨닫고자 마음을 일으켰으니 남쪽으로 떠나 여러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닦으라"고 말했다.

이에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남쪽으로 110개의 성을 여행하면서 53명의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묘한 법문을 깨치게 되니 이것을 가지 법회라 한다.

선재동자가 만난 인물과 배운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심후하다. 선재동자의 구도 행각을 보면 맨처음 문수보살을 만나서는 열가지 믿음(十信)을 얻게 되었고,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마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휴사거사 비목선인 승열바라문 자행동녀에게서는 열가지 마음머무는 법(十住)을 얻게 되었다. 또 남으로 가면서 만난 자재주동자 구족신여인 명지거사 법보계 장자 보안장자 무염족왕 부동신여인에게서는 열가지 행해야될 법(十行)을, 또 육향장자 바시라선사 무상승장자 사자빈신비구니 바수밀다여인 바시디라빗사공 관자재보살 정취보살 대천신 안주지신에게서는 열가지로 모든 공덕을 되돌려주는 법(十廻向)을 얻었다. 그뿐 아니라 바산타바야티 보덕정광야신 희목관찰 중생야신 묘구묘덕야신 적정음해야신 수호일체중생야신 개부수화야신 대원정진야신 묘덕원만야신 구바석종녀에게서는 수행에 따라 열리는 열단계 지위(十地)를, 마야부인 천주광천녀 변우동자사 중예동자 현승여인 견고해탈장자 묘월장자 무승군장자 적정바라문 덕생동자 미륵보살 그리고 다시 찾은 문수보살에게서는 부처직전의 경지인 등각(等覺)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열가지 깨뜨릴수 없는 최상의 지혜법문을 듣고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하게 되는 묘각(妙覺)의 법을 얻는 것으로 선재가 부처님 법계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끝으로 〈화엄경〉 법회가 마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다. 선재동자를 비롯한 문수보살등의 53선지식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분들은 역사상 실재인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재동자가 겪은 수많은 사건역시 겉으로 드러난 실재가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한량 없는 깨달음속에서 방편으로 일으킨 인물이며 사건이다. 부처님과 선재와 문수 보현 그리고 53선지식은 본래 하나인 셈이다. 〈화엄경〉에서는 부처의 마음과 중생은 차별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위시한 선재동자와 53선지식 그리고 갖가지 수행과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제 열 〈유마선원장〉

53선지식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4

불교와 수학

39

분별과 禪

김 용 운

해석기하학 '분별' 통해 문제 해결

禪 세계 무한대·무한소 구별 무의미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명구로 유명하다. 이 달귀는 〈방법서설〉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래의 책 이름은 〈이성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얻기 위한 방법의 서설〉이다.

그의 방법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1. 내가 분명하게 진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진실로 인정하지 않는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완벽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잡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판단 자료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2. 검토할 대상은 가능한 단순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3. 단순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복잡한 것으로 인식해 간다. 질서를 정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질서 있게 유도해 간다.

4. 이와 같은 분석과 종합의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점검한다.

수학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데카르트 자신은 이 생각을 기초로 삼아 좌표를 발명하여 해석기하학을 수립했다. 이것이 곧 '분별'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한편 선(禪)은 분별의 긴 뿌리를 파헤치며 지(知)와 나(我)를 포섭시킨다. 현상은 항시 인간의 분별심을 자아내는 가치와 한정을 초월하면서 유유히 전개해 간다.

〈임제록〉에는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와 부대사(傅大士)를 등장시킨다. 유마거사는 석가모니께서 살아 계실 무렵 왕사성(王舍城) 가까운 곳에서 상업에 종사했다. 대부호로 알려진 실존한 인물이다. 부대사는 양나라 때 실존한 인물이며 법회를 하기 위해 아내를 팔기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한 것이다. 유마거사는 절대 세계를 좁은 방에 응축하고 모든 것을 포섭했다. 한편 부대사는 현실 생활 속에 중생과 함께 고뇌하며 보살행을 한 인물이다. 이들은 대조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불교 정신의 양극단을 몸소 나타내고 있다. 대조적이면서도 하나의 세계이다.



그림 · 최주현

임제화상은 "한 사람(유마거사)은 우뚝 선 높은 산봉우리(孤峰頂上)에 있으며 일상생활을 초월하여 스스로 대오의 자리를 확립하고 있다. 수행의 극한을 다해서 수행하는 일조차도 의식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 사람(부대사)은 십자로 한 가운데(十字街頭)에서 앞 뒤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유로이 동서남북, 어디로나 갈 수 있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절대 자유의 입장을 즐기고, 그의 자유 정신은 현실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자 이들 사이에 어느쪽이 앞서 있고 어느 쪽이 뒤에 있는가?"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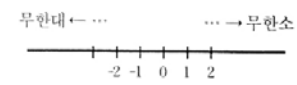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물은 뒤 임제는 스스로 "유마거사도 아니며 부대사도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들 세계는 절대 경지로서 구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 수학은 늘 대상을 구별해 왔다. 이 분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이므로 임제의 말은 모순되는 것이다.

임제는 모처럼 대오의 경지를 얻은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들 사이를 구별하는 일이 무의미함을 말한다.

고봉정상(孤峰頂上)은 진리의 한가운데 최고의 진리와 하나가 된 모습이며 십자가두(十字街頭)는 일생생활에 쫓기며 사는 모습이다. 이들 사이는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처럼 보인다. 이들 사이에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

무한대와 무한소는 마치 원환의 양끝이다. 데카르트에서는 무한소에서 무한대를 일직선상에 놓고 그들 사이에 앞뒤의 관계를 구별한다.



선의 극치에서는 무한대와 무한소가 겹쳐져 있다. 여기서 전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敎傳統儀式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 입니다"

시연(侍輦)은 각종 재(齋)를 베풀고 불교전통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구로써 의례의식공간을 보다 장엄하게 장식할수 있도록
전통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장식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3단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동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暻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堂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
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
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02)651-3880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커다란 철제난로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속의 피로를 씻어버리면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겨울 지리산의 혹한도 차 한잔이 있어 반갑다. 쌍계사 쌍계다원은 '속진을 씻고 그윽한 향기를 마음에 담고 가라'며 등산객의 마음을 끌고 있다.

산사의 찻집

"한잔 차로 IMF 시름 놓아요"

IMF시대 산오른 茶客들 샘물로 끓인 녹차 마시며 서가에 꽂힌 불서 읽고 산사풍경 감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색

한 겨울 눈속에 묻혀 버린 고적한 산사.

산사의 설경을 벗삼아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는 IMF 한파는 물론 세속의 온갖 번뇌를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산사의 맑은 샘물로 끓인 차 한 잔의 여유야말로 "차나 한잔 들게나"라던 조주스님의 은근한 화두까지 풀어내는 귀한 시간 일 것이다.

겨울 산사의 찻집을 찾는 다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 등산길에 만난 산사의 찻집이 인생을 반추하고 자신을 돌아 보는 사색의 공간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침이 없는 경제난국의 현실에서 삶의 피로를 한몸에 안은 사람들. 이른바 명예퇴직자, 감원대상으로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도 산사의 찻집은 따뜻한 위안의 자리가 되고 있다. 차 한잔은 단지 한잔의 차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풀고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신무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부인과 함께 지리산을 찾은 김성진씨(42·광주시 화정동)는 쌍계사 일주문 안의 찻집에 들렀다. 그는 한달전에 명예퇴직을 했다. 누구보다 추운 겨울일 수 밖에 없는 그에게 부인이 산에나 다녀 오자고 해 나선 길이었다.

"솔바람 향기로운 산사에 오셨으면 포근한 이 다원에 청량한 한 잔의 차로 피로한 속진을 씻어 버리고 그윽한 향기를 마음에 담고 가이소 예."

찻집 앞에 통나무를 다듬어 세운 안내판에 새겨진 글귀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찻집에서 부인이 다려주는 세작을 마시며 그간 시려웠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맑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차에 관심이 없었던터라 별 감흥없이 추위나 녹일 생각으로 들어 온 찻집이었는데 그윽한 실내 분위기와 마음을 휘감는 차맛 그리고 조용히 차를 건네는 부인의 다정한 모습에서 그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했다.

"차 맛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레 묻는 기자에게 그는 누구냐는 반문도 없이 가슴에 담은 말을 털어 놓았다.

"참 답답한 겨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란 현실이 나를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새해를 맞는 기분이 비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겨울산을 오르며 새로운 다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와서 차를 마시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군요. 이제껏 열심히 살아 왔던 것처럼 나 스스로 새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찻집의 그윽한 향기를 마음 가득 담아가야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들어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속진의 피로가 다 씻어진 때문일 것이다.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체취가 어린 해남 대둔사에는 동다실이 있다. 등산로 곁에 위치한 동다실에는 휴일이면 의자가 모자랄 만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다실을 관리하는 월우스님(대둔사 재무)은 "피로에 지친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차를 마시며 대둔산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 버리게 된다"며 겨울 산사의 찻집은 말이 필요없는 포교당임을 강조했다.

산사의 찻집에서는 대부분 심산유곡에서 채취한 차잎을 맑은 물로 끓여낸 녹차를 비롯 약초차, 오미자차, 솔잎차, 대추차, 매실차, 쌍화차 등 각종 전통차를 맛볼 수 있다. 찻집에 따라 한과나 죽을 준비한 곳도 있다. 찻집이라고 해서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을 마련해 독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겨울 산사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은 사색의 즐거움을 줄 것이고 다정한 벗과 더불어 차향과 맛과 빛깔을 나누는 것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다지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될 것이다.

유난히 추운 이 겨울.
산사를 찾아 차 한 잔을 마셔 보라.
꽃피고 새우는 봄소식이 들려 올 것이다.

글=김중근 사진=고영배 기자



◇사능송회 장소로도 활용되는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강진 백련사 선다원의 내부 전경.

취재수첩

쌍계다원·동다실등 사찰운영 찻집 10여곳

하동 쌍계사 쌍계다원, 해남 대둔사 동다실, 강진 백련사 선다원, 장성 백양사 다연원, 승주 선암사 선각당, 김천 직지사 산중다원, 양산 통도사 선다원,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등 10여곳이 산사가 운영하는 찻집이다.

차의 시배지로 널리 알려진 하동 쌍계사는 스님들이 손수 만든 야생녹차로 유명하다. 이른봄에 야생차목에서 잎을 채취해 사찰 특유의 전통방제에 따라 뜨겁게 달군 무쇠솥에서 아홉번 덖고 돗자리에 아홉번 부비어 제조한다. 때문에 쌍계다원에서 내어 주는 녹차는 유난히 향기롭고 맛이 뛰어나다.

대둔사는 차성(茶聖)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인지 대둔사 동다실은 유난히 많은 다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다실에서 먼저 따뜻한 반야차로 몸을 식히고 심신의 정화를 위해 산길을 거닐어 보는 것도 겨울산사의 정취를 만끽하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일몰시간에 맞춰 산행을 시도한다면 구곡구교(九曲九橋)를 향해 암갯 쏟아지는 붉은 햇살은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20여분 오른 길에 만나는 일지암에서는 다선일미(茶禪一味)의 고매한 수행자였던 초의선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백양사 다연원은 인근 대나무밭 야생목차에서 아침이슬이 채 마르기 전에 채취한 차잎으로 만들어진 죽로차가 일품이다. 다연원에 앉아 솔바람, 댓바람소리에 따라 울려퍼지는 풍경소리에 귀 기울이면 속세의 번뇌를 잊게 해준다. 특히 백양사 솔잎차로 유명하다. 약효뿐만 아니라 향이 남달리 탁월하기 때문이다.

전남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에는 선다원이 있다. 멀리 남해의 물빛이 아스라히 안개처럼 보이고 동백나무 숲이 급어 보이는 선다원의 풍경은 그윽한 다향이 있어 비로소 선경(仙境)이 된다. 말끔한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고목나무는 겨울을 이기는 굿굿한 기상을 가르쳐 주고 은은히 들리는 전통음악의 선율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준다.

직지사 산중다원은 황악산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개울물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오고 창밖으로는 앞산의 나목들이 그림처럼 보인다.

◇사찰이 운영하는 찻집

사찰	찻집	전화
직지사	산중다원	(0547)436-3087
쌍계사	쌍계다원	(0595)84-1373
선암사	선각당	(0661)54-6323
대둔사	동다실	(0634)33-6890
백양사	다연원	(0685)92-5741
통도사	선다원	(0523)84-0207
백련사	선다원	(0638)32-0837
봉영사	불연다원	(0346)572-0330
조계사	산중다원	(02)736-1678
법련사	연다원	(02)733-5500
봉은사	봉은찻집	(02)3445-4573
불광사	다경실	(02)416-6156



인터뷰 봉영사 불연다원 이보덕화 원장

"마음공부 장소되도록 노력"

사찰예절·교리상담도 정성껏

"한 잔의 차는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비탄에 빠진 슬픔도 위로해 주는 약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봉영사 불연다원 원장 이보덕화보살이 말하는 차 예찬이다. 이원장은 요즘들어 차 한잔이 간절한 때라며 안타까워했다.

"다원을 찾는 사람 가운데 직장을 잃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는 분들이 많아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 차를 낼 때는 남다른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봉영사 불연다원은 차의 맛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주지 월안스님이 직접 제작한 큼직한 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가에 앉아 이원장이 다려내는 차를 마시며 잠시나마 세상살이 걱정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장은 봉영사 불연다원을 찾는 다객들에게 찻집포교사로 통한다. '사찰의 찻집은 영리를 추구하기에 앞서 포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론 때문.

"사찰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불교적 교리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사찰을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불연다원 소임을 맡으면서 터득한 포교방법이다.

불연다원은 차만 마시는 공간에서 멈추지 않는다. 법사가 상주 상담도 해주고 사찰 및 일반 예절, 환경관련 비디오상영, 시낭송회, 건강강좌 등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또 다객들에게 독서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2천여권의 서적들을 비치해 놓고 있다.

이보덕화보살은 "경제대란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담은 액자를 몇점 더 걸 계획"이라며 넉넉한 웃음을 보였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분노품(忿怒品) ③

捨恚離慢 사에이만
避諸愛會 피제애회
不著名色 불착명색
無爲滅苦 무위멸고

성냄 버리고 만심 여의라
애욕의 뭇 모임에 발길 돌리고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말라
함이 없어야 괴로움 면한다

起而解怒 기이해노
制生自禁 음생자금
捨不明健 사불명건
斯皆得安 사개득안

분노가 일거든 풀어 헤치고
음욕이 생기거든 잡아가둬서
무명의 억센 힘 끊어버리면
그것이 언제나 안락 얻는 길

瞋癡attach 진단와안
恚滅婬憂 에멸음우
怒爲毒本 노위독본
恣意梵志 뉵의범지
言善得譽 언선득예
斷爲無患 단위무환

夫忍爲上 부인위상
宜常忍羸 의상인리

힘이 있으면 거칠기가 쉽고
힘이 없으면 부드럽게 된다
무릇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
언제나 괴로움을 잘 참아야 한다

擧衆輕之 거중경지
有力者忍 유력자인
夫忍爲上 부인위상
宜常忍羸 의상인리

온 무리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자는 참는다
무릇 인욕이 가장 으뜸이니
언제나 괴로움을 잘 참아야한다

自我興彼 자아여피
大畏有三 대외유삼
如斯彼作 여지피작
宜滅己中 의멸기중

내가 남과 더불어 지낼때
크게 두려워 할게 세가지 있다
만일 그가 짓는 바를 알거든
마땅히 내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을 없애라

"분노 풀어 헤치고 음욕 잡아가둬 무명의 억센힘 끊으면 항상 안락"

성냄을 자르면 편안하다
분연히 음욕의 근심을 물리쳐라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 된다
부드러운 뜻은 깨끗한 마음이다
말이 바르면 기림을 받고
함이 없는 행이면 근심이 없다

俱兩行義 구양행의
我爲彼敎 아위피교
如知彼作 여지피작
宜滅己中 의멸기중

서로가 행하는 뜻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가르치려 할때에는
만일 그가 짓는 바를 알거든
마땅히 내 생각부터 없애라

同志相近 동지상근
詐爲作惡 사위작악
後別餘恚 후별여에
火自燒惱 화자소뇌

뜻이 같아서 서로 가까이 하여
속임수로 악을 지으면
갈라 선뒤 원한이 남아
그 불로 스스로를 불사른다

善智勝愚 선지승우
麤言惡說 추언악설
欲常勝者 욕상승자
於言宜嘿 어언의묵

바른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기나
상대가 거친 말 악다구니로써
늘 이기려고만 하거든
그런 말에는 마땅히 침묵해야 한다

不知慙愧 부지참괴
無戒有怒 무계유노
爲怒所牽 위노소견
不厭有務 부염유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지못하고
계행은 없고 노여움 있으면
그 노여움에 끌려 다니면서도
그 일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

夫爲惡者 부위악자
怒有怒報 노유노보
怒不報怒 노불보노
勝彼鬪負 승피투부

무릇 나쁜 사람은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으려한다
노여움을 노여움으로 갚지 않으면
그와 다투어 지는 것보다 낫다 龍眼

有力近兵 유력근병
無力近恧 무력근뉵

큰스님 수행한담

"맡은 일 열중하다보면

관응스님 〈직지사 조실〉



약력
- 1910년 경북 상주 生
- 1929년 광주 남장사서 혜봉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36년 선학원 일붕스님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38년 동국대 졸업
- 1940년 일본 용곡대 졸업
- 1959년 조계사 주지
- 1961년 동국학원 이사
- 1972년 안양교원 이사장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법이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상상밖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느 전생에서인가 부처님은 보통사람으로서 설산공부를 하셨습니다. 설산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에베레스트봉이 있는 히말라야를 말합니다. '히말'이란 뜻은 눈을 의미하고 '라야'는 감추다라는 뜻으로 '눈에 파묻힌 산'이라 합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지만 산이 높아 만년설에 뒤덮여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전생에 한 귀절의 말씀을 위해 나찰에게 목숨을 바쳤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까.

중국의 혜가대사는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가르쳐 받으려 했으나 안가르쳐 주니 팔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열로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선재동자도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1백20생이나 걸렸습니다. 그 거리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구도정신을 새롭게 받아지녀야 합니다.

30여년전에 조계사 주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맡은게 그럭저럭 10여년간이나 하게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비구 대처 분규로 분란이 끊이지 않던 때라 염증을 느껴 조용히 머물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무문관에서 환갑을 맞이했으니 늦은 나이에 인연이 닿은셈이지요.

무문관은 음식물을 넣어 주는 구멍만 남겨 놓은채 사방을 다 막아놓아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렇게 폐관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요. 부처님의 6년간 설산고행을 본받아 한번 들어가면 4~6년간 일체 문밖에 나올 수 없고 면벽참선만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곽차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철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문관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챙기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정삼매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함에 있어 반드시 스님만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한치라도 나은 사람들에게는 빠짐없이 배워야 합니다.

과거 정화 이전에는 대처승과 비구의 구분없이 훌륭한 스님들은 모두 모시고 법문을 듣곤 했는데, 이제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법을 배우려는 정신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교육제도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당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신도들은 삼배 올리기에 앞서 초를 켜고 향을 피우느라 저마다 법석입니다. 그러나 본래 향과 초는 스님이 피우는 것으로 신도들은 정성껏 준비해 불전에 놓아두면 큰 공양의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와 기도올리는 신도가 켜 놓은 촛불을 끄집어 내리고 본인이 손수 새 양초를 꺼내어 불을 밝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입니다.

부처님 좌우로 각각 하나씩의 촛불이면 족합니다. 지극한 정성, 부처님 앞에는 오직 이것만이 최고인 까닭입니다.

이처럼 스님네의 일과 신도들의 일에 구분이 있듯이 어른과 어린이는 각기 자신의 위치가 있어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아야 질서가 이루어 집니다.

종교 잘못알고 믿으면 불행 인생의 근본 알고 사는일 소중 생사여일 활로 개척 해야 행복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되게 알게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은 종교마저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잘못알고 믿는 것은 불행일 뿐입니다. 일평생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또 일상의 생활자체가 곧 참선이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생사여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모습이 닮는다고 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익힘으로써 한가지만을 생각하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글 쓰고 조각하는 이들이 그 일에 열중하다가 보면 묘력이 나옵니다. 묘력이 나면 그 지혜가 둥글어집니다. 이와 함께 삶이 동화됩니다.

목욕탕의 물이 뜨거운데 찬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새로이 들어온 찬물은 뜨거운 물속에 동화되어 뜨겁게 변화합니다. 우리들이 밥과 국과 반찬이 위에서 동화됨으로써 소화가 되는 것과 한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모두가 자기에게로 와서 동화되어야만 합니다.

한가지 일에 스스로가 몰두하다가 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체화됩니다. 무심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그라져 우주법칙이 스며들어 자유자재를 이룰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이들은 토끼 한마리를 그려도 익숙해진 손놀림을 통해 저절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단 한번의 시도로써 안 되는 일로 판단함으로써 무명에 휘감기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약 1년반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점이 많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잘 때도 개를 데리고 자고, 고기를 먹이는 등 정성이 지극한데 반해 자기 부모는 양로원에 혹은 따로 살면서 1년에 한번 가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죽어갈 때 병원에서 자식에게 연락을 했더니 사무가 바빠서 못가겠으니 장례를 치르고 난 비용청구서나 보내달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나라라는 곳의 이야기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책방 여시아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선물을 대신 보내 드립니다.
(97. 12. 1~98. 1. 31)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싶은 불서와 보내 드리고 싶은 분의 주소를 일러 주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직접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02)737-0695

등기 우편료(평균 3,000원) 중 절반은 여시아문에서 부담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1,500원의 우편료만 더 내시면 됩니다.

찾아오시는 길


사은 판매 도서
한산시 김달진 역주 / 세계사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룡 / 세계사 / 12,000 → 6,000원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 까치 / 15,000 → 8,0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불교시대사 / 4,500 → 2,7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불교시대사 / 2,500 → 1,5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 김영사 / 5,900 → 4,000원
배꼽 밑의 주인공을 찾아라 박희선 / 심령과학출판사 / 7,000 → 4,0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장승 / 5,000 → 3,000원
초서자전 권집부 / 까치 / 30,000 → 15,000원

선물용 도서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 우리출판사 / 12,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 · 하 일지 / 대원정사 / 각 8,000원
기도 일타 / 효림 /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 / 효림 / 3,5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 / 여시아문 / 7,000원
금강경 대강좌 이체열 / 여시아문 / 8,0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혜원 / 여시아문 / 7,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 효림 / 7,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 대원정사 / 8,5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 솔 / 각 8,500원
법구경 김달진 / 현암사 / 8,000원
드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 세계사 / 6,0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 담마간다 / 6,000원
석가와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연구소 / 산하 / 5,000원
붓다 - 꺼지지 않는 등불 장부아슬리예 / 시공사 / 6,000원
돼지 저금통 속의 부처님 권대웅/ 국민서관/ 5,000원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녹색평론사/ 5,000원
내 아들 딸들아 세상은 너의 것이다 율곡 이이 편, 안장환 엮음 / 큰산 / 5,5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6,500원
돌부처 이근후 / 여시아문 / 6,500원
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슈마허 지음, 김진욱 옮김 / 범우사 / 6,000원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울리버 포피노 · 크리스 포피노 지음 / 정신세계사 / 6,000원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지음, 이종인 옮김 / 시공사 / 7,000원
진흙 속에 피는 연꽃 이슬기 지음 / 불광 / 3,500원
※달력: 산악 8,000원 / 한국의 사계 7,000원
※명상 노트:
와불 일어나시다 5,000원
날마다 크는 그리움 5,000원

성철 스님 법어집
백일 법문 상 · 하 상 6,500원 하 5,500원
선문정로 평석 6,000원
돈오입도 요문론 강설 5,000원
신심명 증도가 강설 6,000원
영원한 자유 6,0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6,000원
돈황본 육조단경 6,000원
선문정로 4,000원
본지풍광 7,000원
한국불교의 법맥 5,500원

• 성철 스님 법어집 1질(11권 ₩63,500)을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비디오(「스님, 성철 큰스님」₩100,000)를 선물로 드립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묘력 나오고 지혜 생겨요”

“내가 따로 존재한다” 아집에서 만사병폐가 생겨납니다 중생의 일 자기일로 삼는 이념 정치원리 활용하면 만백성 편안



◇70년대 말 당시 큰스님들이 칠보사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앞에서 셋째줄 왼쪽부터 故서운스님 관응스님과 한분건너 석주스님 故구산스님.

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풍속이야 이웃이 상을 당하면 조문을 가곤하는데 사람이 도리가 아니다싶을 정도의 일들이 그곳에서는 당연시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부터 배울 도(道)라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국방력이나 돈으로는 부자일런지 모를 일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걸로 보아서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의 법칙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면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행에서 망기(忘己)라 하여 자기를 잊으라 강조하며 성인은 자기 아닌 바가 없다하여 무소불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방세계 거대한 무문관…생활이 참선

“아상버리면 우주기운 체화 모든일 성취”

아상에서 벗어나면 태평양에 물 한방울 떨어져 태평양전체와 한덩이되듯 우주 전체와 한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상에서 벗어나고 집착과 결별하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목숨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건에 한도 끝도 없이 부딪쳐 다치곤 합니다. 욕심을 내어 부딪치므로써 쉽게 몸이 아프고 늙고 맙니다. 욕심을 내지않고 물건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리 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체의 생멸과 하나될 때에는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어 수명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혜지는 내용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 전체의 기운과 하나되면 우주의 기운이 자기에게 들어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편할수록 얼굴에 덕이 있어지나 마음을 삐뚤게 지닐수록 마음에 낀 그림자가 반영되어 어두운 모습이 됩니다.

‘얼이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얼굴의 모습도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자꾸만 변화해 갑니다. 정신이 맑으면 표정이 맑아지며, 짜증스러워지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평생 좋은 일을 하면 몸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노래를 불러도 온통 무심이되어 우주법칙 그대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중국 중생사의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축소판 그대로가 담겨있어 알지 못한 이들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됩니다.

한사람이 노력한 정기가 하나의 작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를 다라니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추사 김정희선생이 몇십년 글을 쓰면서 후일 점 하나 획 하나 그음에 있어서도 일평생의 공부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 이를 다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부처님의 깨달은 기운이 그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일컬어 다라니라고 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여서 깨달은 것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집착과 망상이 모두 사라지고 우주의 기운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깬 기운이 화두에 있으므로 나쁜 기운이 모두 소독되어 녹아지는 것입니다.

진언의 경우도 깨달음의 기운이 이름에도 스며있어 관세음보살만을 염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가운데 깨달음은 만나집니다.

일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 폭발되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러나 화두만이 견성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느 집이든지 문이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쪽 문만 사용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닌것처럼, 팔만사천의 법문 그어느 문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여도 되며, 자기 근기에 적합한 것 하나로 몰입해 보시기바랍니다. 불교의 공부나 도리는 전부 이러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거든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네 마음자리에도 체 상 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야로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지위가 높은 이거나 낮은 이거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평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평등한 이 마음을 평등하게 쓰는 이가 의무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의지해 살아갈 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계급에 따라 차이가 지는 것은 나(我)라는 강한 고집 때문입니다. 법계는 분명 하나인데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아집에 의해 만사 병폐가 생겨납니다. 저마다의 책임과 사명을 느껴 일체 중생의 일을 자신의 일로 능히 감내할 자신이 있을때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법입니다. 이런 이념을 정치원리로 활용하면 만백성이 편안히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업(業)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공기는 눈에 보이진 않으나 공기 속에서는 자재함을 얻고,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나 물속에서 자재합니다. 오온(五蘊)이 모두 공해야 자재한데, 만약 공기가 눈에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부딪칠까봐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착을 하면 오온이 모두 공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밝은 기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반면 을빼미는 어두운 곳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는 태산이 앞에 있어도 낮에는 볼수가 없는데 이는 업이 다르기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는 우주의 법칙과 한덩이가 되어 자타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남을 좋아해도 편애를 합니다. 치우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로써 마음을 맑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욕심을 버리면 복을 얻습니다. 욕심 집착을 버리면 우주 전체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주가 자기의 것이 될때를 지혜, 보리라고 합니다.

흐르는 우리의 관념을 어떻게 없앨 것입니까. 깨치지못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입니까.

이는 흐르는 해악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흐르는 생각은 모르는 물건 앞에서 중단됩니다. 아는 경계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못함으로 인해 흐르지 못하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확트입니다.

정리=김중근 · 이윤호 기자

나와 경전 37

우다나



지 운
송광사 강원 강주

91년 가을 실상사 선우도량에서 ‘깨달음의 교리적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다. 평소 깨달음에 대해 정리해 보고싶던 차였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 준비에 들어갔고, 경전과 논서, 어록을 열람하는 가운데 만난 것이 〈우다나(Udana)〉였다. 낯선 경전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겐 깨달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우다나〉란 깨달음의 순간을 노래한 것으로 말하자면 법열(法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는 자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한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자설경 · 自說經〉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우다나〉는 8품 80개의 경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품 보리품(菩提品)에서 깨달음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우루벨라의 네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결가부좌하신 채 7일간 해탈의 황홀감을 즐기신 후 선정에서 일어나 초저녁, 자정, 새벽녘에 각기 십이연기법을 순관(順觀)과 역관(逆觀)을 통해 보시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없어짐의 이치를 노래하신다. 둘째, 〈우다나〉의 게송은 깨달음의 근원적 체험의 기본구조를 보여준다. “실로 열심히 선정에 들어 있는 바라문에게 진리가 현현하게 될 때, 그 때 그의 모든 의심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연기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경구를 살펴보면 존재가 법으로써 나타날 때 동시에 ‘깨달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선정에서 깨달음이 일어남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정에 의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정은 깨달음의 마당이 된다. 또 이 〈우다나〉는 십이연기를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읊으신 것이므로 선정의 장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연기임이 관조(觀照)되어진 것임을 말한다. 말하자면 관조와 진리가 상응함에는 선정이 장이 되고, 이 선정의 장을 통한 관조는 제법이 연기함을 깨달은 것이 되므로 이 경전에서의 깨달음은 관조 즉 반야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 경전을 통해 본다면 진리란 땅이나 하늘, 산, 바다, 나무 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만 나타나며 갖가지 마음의 작용중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이라는 장을 통해서 연기라는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마음의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깨달음과 모든 존재의 실상인 연기법이 불이(不二)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 한 것은 모든 불교 즉 초기불교에서부터 선종(禪宗)에 이르기까지 모든 깨달음에 대한 기술은 바로 이 깨달음의 근원적 체험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경전에서의 귀중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파자나티(pajanati: 그는 깨닫다)

깨달음의 순간 설한 법열의 노래

“마음 밖에 법없고 법 밖에 마음없다”

가 반야(般若)의 동사형, 현재삼인칭 단수로써 반야라는 점에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반야는 실천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깨달음의 가르침을 실천을 통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사상이나 철학일 뿐이다. 경전이나 논서나 어록의 문자만을 통해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실천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수행은 바라밀이며, 이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와 단절에서 회복시키고 이어주는 것으로서 상호의존적인 연기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깨달음이자 동시에 중생구제이다. 따라서 깨달음이란 학습을 통해 사상이나 철학으로 전락시켜 지식화하는 교육으로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깨달음이 단순히 교육차원에서만 머문다면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불법(佛法)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기위한 승가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는 것을 이 경전은 잘 말해주고 있다.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꼬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대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8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버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권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권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외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권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 MAZU 조
조 JOSHU 주
임 RINZAI 제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 자리'엔 미혹도 깨달음도 없다

좌선의 실천을 중심으로 확립된 선불교는 광대한 깨달음을 체득케 하는 불도의 근본이다. 따라서 선불교를 자각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설한 팔만사천법문도 모두 이 깨달음의 문에서 나온 것이며 육바라밀의 보살만행도 모두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 부처님의 네가지 지혜(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여섯가지 신통으로 표현되는 묘용도 깨달음의 문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인천(人天)에 뛰어난 영성적 생명도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체 제불은 이미 이 종문(宗門)에 안주하고 계시다 하며 보살들은 수행을 통해 이 깨달음의 도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소승의 수행자도, 다른 종교의 수행자도 한결같이 이 깨달음의 도를 수행하고 있음인데 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아직 정도(正道)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여러 종파나 교설 중에서도 법상, 화엄, 천태와 같은 현교(顯敎), 진언종과 같은 밀교(密敎), 혹은 타력을 주장하는 정토문(淨土門)까지도 사실은 모두 '깨달음을 구하는 도'에서 각기 자기 종지(宗旨)와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 조사께서는 '대개 이 시방세계에 지혜를 갖춘 현인이라고 할만한 이라면 틀림없이 모두 이 좌선의 종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문답으로 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문답으로 풀어본 禪 (上)

문 선종을 가리켜 불법의 총화(總和)라 하기도 하고, 모든 종파 종지의 근본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까닭으로 그러한가.

답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마음-자성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말한다. 율(律)은 부처의 행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염불은 부처의 불원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기 위한 이름(명호)이다. 부처의 행이나 말씀이나 이름도 궁극적으로 다시 잘 생각해 따지고 보면 모두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을 직접 깨닫게 하는 선문을 여러 종파의 근본이며 불법의 총화라고 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걷거나 분별 망상 없는 無心 되어야

문 선종에서는 무념을 근본종지로 하고 무종(無宗)을 본체로 한다고 알고 있다. 만약 무상(無相)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라면 부처의 영덕(靈德)도 나타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또 견성했다고 말해도 본래 상(相)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들 수가 있는가.

답 형체도 모양도 없는 청정 무구한 마음, 그것이 다름 아닌 부처이다. 그것이 영덕(靈德)이다. 그 영묘한 자기를 자각하는 일 이외에 그 어떤 영덕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기의 마음은 형체도 모양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한 증거이다. 그밖에 어떤 증거를 찾아 구할 필요가 있는가?

문 선은 한마음(一心)을 분명히 하는 도라고 들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공덕은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만선만행(萬善萬行)을 수행한다면 그 쪽이 훨씬 더 훌륭하고 수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답 〈증도가(證道歌)〉에도 이미 "단번(頓)에 여래선(如來禪)을 깨달으면 육도 만행 체중에 원만(구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의 일심(一心)이 부처임을 깨달아 알기만하면 수행하지 않아도 육도 만행은 이미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의 일법(一法)은 만선 만행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의 속담에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백(百)의 기용(機用)도 일심(一心)에는 이길수 없다'고. 또 만약에 만선만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근본의 일심이 미혹하면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부처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문 선종에서 말하는 선의 종지는 너무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처럼 재가에 있는 세속인은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가. 또한 수행한다고 반드시 깨닫게 되리란 것도 보장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모처럼 신심내어 애써 수행하여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처럼 헛되고 무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답 좌선(坐禪)의 법문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도(道)이다. 난행 고행을 하지 않아도 범부가 범부 그대로 단번에 깨달아 부처가 되는 도이다. 만선만행을 수행하지 않아도 본래 이미 부처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좌선의 도이다.

만약에 한번이라도 이러한 좌선의 도(법문)에 들게 되어 그것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곳에서 깨달음에의 훌륭한 인연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좌선의 도를 수행한다면 좌선하고 있는 그대로가 불심의 나타남인 것이다. 불심에는 본래 미혹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미혹도 깨달음도 없는 곳에 안좌하는 것이 좌선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6년간 설산의 산중에서 앉아 좌선했던 그 수행이 그대로 여래의 묘행인 것이다. 달마대사가 숭산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하신 좌선이 그대로 깨달음의 표방인 것이라고 종문에서는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좌선의 수행을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한 시간 좌선하면 한 시간의 부처인 것이다. 1일 좌선한다면 1일의 부처인 것이다. 일생 좌선한다면 결국 일생동안 부처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고 오로지 수행하는 사람을 대근기(大根機), 혹은 대법기(大法器)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문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좌선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답 불심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어떤 사물이나 물질에도 걸림이 없다. 마치 물과 같이 거침없이 흐르는 것이 마음이다. 〈금강경〉에도 "일체(一切)의 모양(相)을 여읜 것을 제불(諸佛)이라고 한다"라고 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앉거나 서거나 걸어 다니거나 누워 있을 때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심으로 흘러 없는 망심(번뇌, 분별심, 차별심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좌선의 마음가짐이며 선문 수행의 공부이다.

문 무심무념이 되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심이다 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같은 범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그것보다는 경전을 읽는다거나(간경), 다라니(주문)를 외운다거나,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을 하든가, 혹은 염불이라도 해서 그 공덕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게 하는 쪽이 확실하고도 틀림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답 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예를 들고, 방편을 설치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본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미혹한 세계로부터 구제해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말씀을 경(經)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깨닫고 자성의 근원에 되돌아간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경을 독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부라도 수행해 자기의 일심이 부처임을 깨달아 아는 바로 그것이 좌선의 도이다.

> "1일 좌선 1일 부처 좌선수행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된다"

종이에 쓰여진 문자나 입으로 외우는 말을 진실로 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문자(文字)를 입으로만 외우고, 입으로 외우는 그곳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추운 겨울 날에 '불(火)! 불(火)!'이라고 외우고 외친다면 저절로 따뜻하게 될 수 있을까? 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바람(風)!, 시원한 바람(風)!'이라고 외우고 외치기만 하면 그대로 시원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배가 몹시 고플 때에 '밥(飯)! 밥(飯)!'이라고 외우고 외치며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열거해 말한다면 그것으로 배가 부르게 될 수 있을까?

언어 문자는 결국 그림속에 그려진 맛있게 보이는 떡과 같은 것이다. 한 생애동안 입으로 외운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에는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계법을 잘 지킨다거나 염불을 열심히 하여 그 공덕을 의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덕에 맞추어서 염불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것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범부의 미혹이며 집착인 것이다.

선근공덕을 쌓는 일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선근공덕을 쌓는 일에 소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어리석은 일이다.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육도(육바라밀)의 만행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소득이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즉 무심으로 수행 한다고 하면 이를 반야의 지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이것이 제불의 무상 청정의 지혜인 것이다. 이 지혜야말로 일체의 미혹한 어리석음의 근원을 절단하는 힘인 것이다. 그래서 반야의 날카로운 칼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도움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좌선 통해 재가자도 깨달을 수 있어"
"언어 문자는 그림속의 떡과 같은 것"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시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미래의 자화상 그리게 합시다"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3〉

학습동기 유발과 법화경의 비유

흔히 "말을 개울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학습동기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말이다.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아무리 좋게 마련하여 주어도 본인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여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학습성과를 올리려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동기를 유발하여야 한다.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에는 내적인 방법과 외적인 방법이 있다.

내적인 방법으로는 목표의 확인, 학습흥미의 환기, 학습결과의 확인, 점진적 접근에 의한 성공적 경험 등이 있다. 외적인 방법으로는 상과 벌, 사회적 압력, 경쟁 등이 있다. 이러한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 중 많이 쓰는 방법이 목표의 확인, 성공의 경험, 상과 벌, 경쟁이다.

우선 목표의 확인부터 살펴보자. 목표에는 궁극적 목표와 중간 목표가 있다. 궁극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의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가 필요하다.

최근에 농촌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학교의 교육의 모습에 감탄하였다. 나의 주목을 끈 것은 아동 개개인이 성인이 된 후의 자화상을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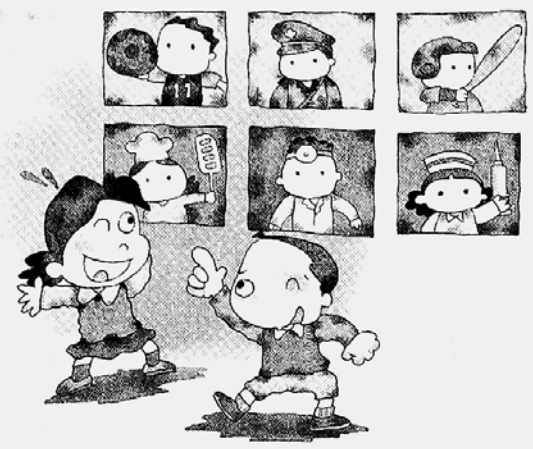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목표의식 없는 청소년 자아정체성 상실하기 쉽다

것인지에 대한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이었다.

어린이들의 책상은 모두 벽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벽면에 자화상을 그린 글과 중간 목표의 글이 있었다. 어떤 어린이는 '의사'로서의 자화상을, 어떤 어린이는 '군인'으로서의 자화상, 어떤 어린이는 '축구 선수'로서의 자화상을 글로 표시하고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은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책상 앞 벽에 붙여 놓았다.

대단히 흥미 있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요새 청소년은 목표의식이 없거나 희박하며 따라서 무능감에 사로잡히는 등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청소년들에게 목표의식을 명백히 하고 이를 확인시키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식, 중간목표의 설정, 지도자의 자질 등에 대하여 〈법화경〉에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다. 이 비유를 화성보처(化城補處)의 비유라고 한다.

머나먼 험난한 길을 통과하면 진기한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을 잘 아는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목표지를 향하여 가는데, 사람들이 이 험한 장소를 통과하려는 무렵 게으름을 피우며 "우리는 피로하고 무서워서 더 갈 수 없고 앞길은 아직 머니 되돌아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때 인솔자는 신통력으로 성을 만들고(化城) 여기서 마음껏 쉬게 한 다음 "그 화성을 소멸시키면서 보물 있는 곳은 가까우니 전진합시다"라고 하였다.

이 때 화성은 중간목표이고 보물 있는 곳은 최종목표이다.

이 비유는 학습동기 유발의 근간을 이룬다. 청소년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거나 세웠다 하여도 화성(化城)의 휴식에서 더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나 학부모나 교사는 항시 장기적 목표를 확인하면서 줄기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상과 벌에 의한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상과 벌 중 상이 벌보다는 학습동기를 훨씬 강화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큰 상이라도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에 맞지 않으면 어린이는 상으로 받아 드리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원리를 삼거화택(三車火宅)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으며 저택은 광대하여 그 안에 수백명이 살고 있었으나 건물이 낡고 썩어 있었다. 이때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었던 자녀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때 장자(長者)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여도 놀이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편을 썼다. 밖으로 나오는 문은 하나 뿐이었다.

장자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문 밖에 있는데 빨리 나와서 이 수레를 가지고 놀아라. 빨리 나오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소리쳤으며 자녀들은 앞을 다투어 뛰어 나왔다.

이 얼마나 명쾌한 동기유발의 방법인가. 이미 말 한 바와 같이 상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이때의 상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일치하여야 한다.

끝으로 점진적 접근에 의한 성공적 경험의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동기유발의 방법은 최근 행동심리학파에 의하여 주장 된 바 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도달을 위하여서는 학습의 비약이나 학습곤란의 장애극복 같은 방법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 차근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학습원리이다. 교육목표를 향한 점진적 접근에 의한 성공경험은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며 이 자신감은 다음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알맞은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계단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지루함을 느낄 뿐 아니라 두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가려는 충동을 느끼며, 너무 높으면 올라가는데 지쳐 버린다.

이와 같은 '점진적 접근에 의한 성공적 경험의 동기유발'에 대하여 〈법화경〉에서는 장자궁자(長者窮子)의 비유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가출하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수십년간 의식을 구하는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있는 본국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큰 재력가이며 그 위세가 당당하였다. 아버지는 늘 어릴 때 집을 나간 자식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식을 찾으면 재물을 물려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자식이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여 멀리서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주인을 본 즉 그 위세가 너무도 당당하여 "여기에 있다가는 강제노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질려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아버지는 한눈에 자기 자식임을 알고 자식임을 숨긴 채 하인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궁자(窮子)는 무섭고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는 궁자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홍미 갖고 목표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중간중간 성공 경험하면 자신감 생긴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하인을 보내 궁자에게 "일할 곳이 있는데 하는 일은 분변(糞便)을 치우는 일이고 임금은 2배로 줄 것이며 우리도 너와 함께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궁자(窮子)는 이에 기꺼이 응하여 그 집에서 열심히 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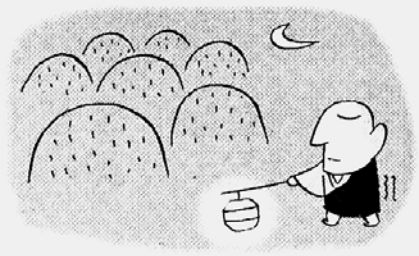
자식의 일하는 광경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남루한 옷으로 갈아 입고 오른손에는 분변(糞便)을 치우는 그릇을 들고 자식에게 다가 갔다. 그리고 자식과 대화를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궁자는 금은 보화가 많은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와 아들인 궁자(窮子)는 서로 믿는 사이가 되었고 궁자의 마음도 너그럽고 커졌다. 아버지가 임종에 즈음하여 궁자가 자식임을 많은 사람에게 밝히고 재산을 상속시켰다.

위의 예화에서 장자가 처음에 하인을 시켜 궁자(窮子)를 데려오도록 한 것은 궁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 후 장자는 궁자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씩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시주·보시

재물·불법 이웃과 함께 나눔 온화한 행동·환한 얼굴도 보시

시주(施主)란 본래 보시(布施)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근래에 와전되면서 '시주' 자체로서 '보시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주는 보시로 보아도 될 듯하다.

보시는 '준다' '베푼다'는 뜻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첫 번째다. 보시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보시가 재물보시(財布施)·무외보시(無畏布施)·법보시(法布施)의 삼보시다.

재보시란 말그대로 재물을 주는 보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입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불우이웃돕기가 많아서 재보시는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보시를 할 경우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시이야 제 뜻을 살리는 보시가 된다. 물건을 주고 반대로 돌아올 것을 꾀할 경우 그것은 거래이므로 보시가 되지 않는다.

무외보시는 두가지 뜻이 있다. 남의 두려움을 불법에 의해 제거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나의 수행이 올바름으로 인해서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다. 무외보시는 흔히 무재보시(無財布施)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 재물없이 보시한다는 뜻인데 남과 만나서 행하는 유순한 인사와 온화한 행동, 환한 얼굴, 편안한 웃음 등이 무재보시에 속한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어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힘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생의 의욕을 상실했거나, 생을 염세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줌으로써 새롭게 탄생시키는 보시는 생명을 구제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98년 새해는 법보시나 무재보시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경제불황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사람들의 의욕을 빼앗고,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보시의 정신을 실천해 흉흉한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키도록 하자.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단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새해 인사올립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땀과 희망으로 엮어
1998년을 찬란한 여명으로 피어내길
모든 불자님과 함께 발원합니다.

사업은 번창하시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웃음으로
온 세상이 부처님 향기와
자비로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 불·자·정·보 ♠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 한 방 암 정 보 ◆
02)700-6366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컨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득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사름사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답사
FAX로 집구조, 방향, 주소를 적어 보내시면 수맥 감정해 드립니다 (이용료 ₩20,000)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국민은행 011-21-0595-462 (이 준 수)
농 협 059-01-247105 (이 준 수)
※ 수맥연구원 약간명 ※ 십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맞문이 트입니다.

삼 재
◑ 들어오는 삼재, 누울삼재, 날삼재, 흔히 말하는 삼재, 삼재, 삼재…
◑ 삼재의 원리와 화(흉)삼재, 복(길)삼재 - 60분짜리 3개
◑ 戊寅년 운세 - 60분짜리 3개
▶ 문의 : 철학의 길잡이 참조

명상 개인지도
실적인 아름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禪)으로 풀어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지적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청작놀이사, 불음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4. 수업기간 2년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명상개인지도
관다라니 · 소주천각성
근육이완, 호흡조절, 체온조절
단전호흡, 생각 끊는 방법
02)596-5546 玄星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사주명리학특강
사주, 궁합, 택일 등 기초부터 감명에 이르기까지 책임 지도합니다.
◆ 개강일 : 1월 15일 3개월, 주2회(1회 3시간씩)
◆ 수강료 : 교재대 포함(월 10만원)
◆ 장 소 : 마포구 대흥동 (신석초등학교 앞)
◆ 전 화 : (02)713-4852~3
한국명리연구원

육신통(육경신) 도통강의안내
경신일에는 정오시에 천가지복과 밤자시에 천운이 열리어 대도인의 진인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수미산 제석천궁의 신선들과 제석천왕이 옹호하며 팔만사천 신중과 팔만사천 제대성중과 팔만사천 산신들과 천지이치 음양신들이 이 주문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을 수 있고 득도할 수 있는 비전의 주문입니다.
◆ 입제일 : 98년 1월 12日 음(11.14일)
◆ 해제일 : 98년 1월 13日 음(11.15일)
◆ 회 비 : 1박2일 5만원(침식제공)
직통 02)821-6622 야 02)923-3110
012)1786-3112 017)236-3110
육경신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관 구인 · 구직 관

부전스님구할분
부전스님겸 사찰관리소 일을 맡겨주실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011)764-5046
032)439-3233
송 암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전국가능)
051-361-0253

구 직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성훈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구 직
◇ 올해 만50세(男)
◇ 사찰에서 생활가능
사찰내 모든 일 할 수 있음- 수리기능, 미장기능 有(1종 운전면허 소지)
◇ 급료는 스님께서 알아서 지불해 주세요.
053-423-0540
012-479-5922

사찰음식 · 천통찻집 운영하실분
◆위치 : 인천부평 동아시티 백화점 부근 요지
◆건평 50평, 방 2 포함
◆최고급 민속전통 인테리어 완비
◆사찰건물 1층(즉시 입주 영업가능)
◆신심있는 사람에 한함 (비구니스님 환영)
◆보증금 1,000만원 (연월세 3,000만원) - 권리금 없음.
032)501-5177

구 직
33세(男)
사찰에서 부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02)496-4127

관 불교 미술 관

佛 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경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教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멀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 불교용품 관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관 사 찰 안 내 관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대 지 : 48평
- 임법당 18평, 방 2칸,
- 입실부엌, 목욕탕, 거실
◇ 가 격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2)937-3729
011)302-3729

포교당 안내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 수 : 5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원(월 50만)
02)242-618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경북 경계선, 해인사 길목임(승용차 15분거리)
◇ 평 수 : 대지 약 800평, 전답 1,800평 합 2,800평
◇ 법 당 : 내부 36평(현 천불 점수중)
◇ 요사채 : 방1칸, 8평×4개 - 합 24평 (자연석 돌로 만든 건물)
◇ 양로복지회관 : 건평168평×2층 합 336평(방 30개, 샤워실, 수세식 화장실, 주방, 수위실, 식당)
◇ 건 물 구 조 : 완전 현대식및 엣건물식 태양열기및 기름보일러 설치
◇ 불사예정지 : 남골당 800평
◇ 매 매 가 액 : 13억 5천만원 (일체의 건물은 97년 10월경 준공검사 완료)
◇ 현재 복지회관 입주 모집중
1인당 3천~4천만원 예상(특히 주위의 가야대학 건립 98년 2월부터초기 입학하므로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수용인원 65명까지, 수려한 경관, 포장도로 주차장, 연못도 있음, 복지회관과 대법당 사이에 구름다리 설치)
부산 051)331-3084(주지스님)
본찰 0543)955-1379(총무스님)

사 찰 안 내
◇ 위 치 : 북한산(서울시내)
◇ 임야사용권 3천평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주지실, 요사, 석굴
◇ 계곡과 기암괴석, 고목나무들
◇ 서울시내 조망 가능
◇ 가 격 : 협의
주직 02)512-3092

사찰안내전문
◇ 비밀 절대 보장함.
◇ 신속한 상담전문
◇ 상담자 대기중
◇ 전화상담 환영!
동양투자컨설팅
대표전화 053)755-6498

사찰부지 안내
◇ 사찰부지 : 10,000평
◇ 대웅전 : 33평(완전 목조 7조립)
◇ 요 사 : 40평×방5
◇ 매 가 : 5억
◇ 위 치 : 원주에서 30분거리
(바위가 어우러진 암반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는 진입로를 따라 노송이 우거진 산중턱에 자리잡은 곳으로 기도처 및 복지시설로 최적지)
⊙ 보심시오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부지 500평~수만평까지, 사찰 5천만원~10억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EL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주)천 운 한 상 철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경산시 남천면
◇ 평 수 : 196평(한옥건물)
◇ 가 격 : 6천 5백만원(상담후 절충가능)
◆ 경관좋고 조용한 산사로 암자로도 적합.
053)752-8044
015)746-9922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초역 100미터, 법원 건너편 3층건물 지하 60평
◇ 현재 사찰 3년째 운영중
◇ 대법당(삼존불 및 지장불)
◇ 방3, 거실, 주방 및 식당 완비
◇ 시설 투자비 2,000만원 소요
◇ 건물 임대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120만원)
◇ 뜻있는 분에게 임대 보증금만 받고 무상 양도합니다.
02)583-0014

사찰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2)438-2973
0344)64-4827
017)263-6908

사찰 및 포교원
◇ 건평(총평수)32평
◇ 법 당 : 1칸(최고급자재로 시설완비)
◇ 거실(방) 2칸, 주방(부엌) 1칸
◇ 화장실 및 사원장 1칸
◇ 현재 재적신도 : 약 300가구
◆ 양도금 총액 2,800만원중 건물보증금 1,000만원(월세 55만원 별도)
◆ 시설물인수금 : 1,800만원
서울 마포구 성산2동 200-57호
02)374-5295/011)742-295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 사찰명 : 법 화 사
◇ 평 수 : 30평(포교당용도로 등록완료)
◇ 산중불 모두 모셔 있음
◇ 가 격 : 약 2,500만원(상담후절충가능)
◆ 현재 아파트 5동 들어와 있음.
0346)577-2485
0346)577-9976

절 터 매 매
◇ 평수 : 약 1,100평
◇ 상태 : - 준 농림지역(즉시 건축가능) -전기 · 지하수 6M 도로
◇ 가격 : 약2억(직접전화 문의요주인직)
◇ 주소 :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재리 (양산 신도시터널 개통시 5분거리)
051)504-9944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대구시 대명동 교통중심지
◆부 지 : 170평
◆법 당 : 40평 / 요 사 : 50평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
◆보증금 : 3,000만원/4대명절 보시고 年500만원
◆특 징 : 시내 중심지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하고 이사비용만 받고 임대합니다.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회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12)1648-6334
(24시간 호출可)
전국통용무료전화직통 : 080)512-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찰 및 부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평보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평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옛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 평 수 : 1,200평
- 법당, 요사채
◇ 가 격 : 1억 8천 5백만원
직접 보신후 상담요망!
◆ 나병환자도 낳았다는 유명한 약수물 있음
0597)63-7175
0597)62-202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고양시 토당동 841번지
◇ 평 수 : 실평수 40평
◇ 가 격 : 보증금 3천만, 월세 50만
0344)970-9628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서울시내 6차선도로 인접
◇ 평 수 : 28평(4층건물)
- 법당 1, 방 2, 주방 1, 화장실겸 샤워실 1
◇ 가 격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포교의 원력 있는 분에게 최저가의 조건으로 제공
◆ 입주 즉시 포교활동 가능.
02)867-2803
015)8457-3803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60-23
◇ 가 격 : 1,000만원 (월 35만원)
- 권리금 500만원 별도(절충가능)
◆ 단독주택(방3, 화장실, 부엌)
◇ 평 수 : 25~30평
02)616-126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천호4동 397-3(천호시장 입구)
◇ 평 수 : 70평, 방 3개 (5층건물 엘리베이터 사용)
◇ 가 격 : 9천만원(보증금 4,500만원)
◆ 최신시설로 입주시 즉시 포교활동 가능
02)253-000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 사용평수 : 약 100여평
- 법당 · 용왕전 · 산신각 별도
- 요사채(구옥) 3칸, 기름보일러
◇ 가 격 : 5천만원
0351)63-6735
012)346-2136
011)271-2136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내 전철역부근
◇ 평 수 : 50평(3층건물 3층)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창고
◇ 가 격 : 보증금(시설비포함) 2,500만원 월 50만원
0343)96-6734
011)334-0820

사 찰 안 내
◆ 사정상 급매
◇ 위 치 : 경남 고성군 대가면 금산리
◇ 사찰명 : 용 화 사
◇ 평 수 : 종교용지 410평
◇ 가 격 : 평당 16만원
0556)73-0818
012)1164-3004

사찰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 전 - 112평 · 답 - 700평
◇ 건 물 : · 대웅전 - 10평
· 산신각 - 3평 · 용왕각 - 3평
· 요사채(2동) 40평 · 창고(2동)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혜동불교백화점)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고성 와룡리
◇ 평 수 : 1,767평(대지로 전환가능)
- 법당겸 요사채 30평
- 논과 밭 1,767평
◇ 가 격 : 5천만원
◇ 생활권 : 삼천포 (삼천포에서 5km, 마을에서 1km)
011)535-9165
0525-21-6660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탈종공고 관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동종 귀하
◇위 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사찰명 : 백 화 암
◇창건주 : 신 재 식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0443)22-2082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관 기 타 관

사람을 찾습니다



황보관 (22)
가정불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래 인상착의와 같은 청년을 보시는 스님과 불자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잘 인도해주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태경
■ 인상착의 웃는얼굴, 안색-밝은 편, 대구말씨, 키 172cm
※ 찾아주시는 분 사례합니다.(300만원)
02)3391-5753 · 015-8481-5753

◆ 사 람 찾 음 ◆



◆ 성함 : 이 밀 란(女)
◆ 나이 : 25세(73년생)
◆ 집 : 서울 구로동
1997년 12월 20일. 출가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남기고 집을 나감.
평소 알고 지내던 불교 스님및 친구들이 밀란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굳이 갈길을 막지는 않겠으니 집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모님 잠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있으니 주위분 알고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02)851-2038
032)770-8436
(오빠연락처)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버리면 누구도 성공할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모두 한마음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냅니다"
"지금 내모습 인연 연기현상…팔자 운명 없어"

다시 한자리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한마음이 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떠한 혼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응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 이런 걸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지구를 집 삼아서 살고 있는 전체 생명들입니다. 마음 도리를 공부하다가 진짜로 내가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구나 하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겁이 나지 않거든요. 잘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는 것 못되는 것, 이 길을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야만이 그게 바로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나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팔자 운명에 매여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도 아까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 잘못한 게 지금 내게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침착하게 한 생각 잘하고 말도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은 내가 전에 이 도리를 몰랐을 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자기의 탓이지, 그건 팔자운명이 아닙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들 인생처럼 쉴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팔자니 운명이니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행동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모두 귀가 트였고 발도 움죽거리고 냄새도 잘 맡죠. 다 이렇게 뚫어 놨으니 스쳐가는 대로 앞뒤를 잘 보고 올바로 생각하서 올바로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부처님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거든요.

우리는 살아오던 습이 있어서 그 습을 쉽게 놓질 못해요. 그 습을 떨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예요. 알면서도 습에 의해 함부로 행하고, 한다 못한다, 밉다 곱다 등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옳다고 생각하면 실천을 해보고 자기 체험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행은 하지 않고 분별만 많아요. 사람들이 모두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습에 의해 끄달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 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함으로써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는 극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사람들 심성에 의해서 전부 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린다면 세세생생을 불국토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 진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서 힘이 배출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문제나, 지구문제도 비록 오존층이 터져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건 또 그만큼 대치할 능력이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저 누가 요만큼만 얘기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게 머리속에서 뱅뱅 돌아요.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온통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 마음이 움죽거리는 법은 없어요. 그냥 봐서 체계를 세우고, 그대로 봐서 하지 마음이 움죽거리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주' '삼천' 이렇게 됩니다. '우주' 하는 건 평등공법에 의한 것이고 '삼천' 하는 건 과거·미래·현재를 한데 합친 '천' 이란 말입니다. 한데 합쳐서 '대천'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대천세계….

그 대천세계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근본 그 무전기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반야줄이라고 하지만 무전기 줄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동적으로 정수에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대로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연방 없어지면서 그릇이 비고, 새 입력이 들어갔다가 금방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릇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비어 있으니까 어떤 거라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다 집중해서 거기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죠. 삼천대천세계를 다 내 주인공 안에 넣어도 그릇이 작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릇이 맞고 크면 큰 대로 맞고, 그래서 꺼내 쓸 때에도 아무리 꺼내 써도 줄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이 평등공법을 우리가 지금 한철 사는 동안 잘해야 위 조상님들과 아래 자손들 양쪽을 다 건질 수 있고 결국 자유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 삼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이 우주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즉 말하자면 도시냐 시골이냐 이런 차원 밖에는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체를 이름해서 부르는 게 바로 '대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 굳이 이름 붙일 것도 없지만 이름을 짓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으니 그것도 방편이자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부를 하는데 몸은 생각지 마라 이러기도 하지만 사실 몸이라는 것도 방편이자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몸 떨어지면 무얼 갖고 공부하나요? 항상 얘기하듯이 유무가 합해서 100%가 된다고 그랬는데 몸중이 없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넓은 길만이 길이 아니니, 갈대가 많고 산이 험하고, 자갈이 많은 그런 길도 길이라고 합니다. 내 이 속에 스승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대로가 있는데 길이 아닌 데를 길이라고 그러면 그걸 믿겠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대로 나를 내버렸으면, 죽은 것이 무슨 말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내버렸다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내가 산으로 공부하고 다닐 때 온 몸뚱이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도 생각이 하나도 움죽거려지지 않아요. 날 버렸기 때문이죠. 버릴려면 아예 그렇게 버리고…. 안 버릴려면 안 버리고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이미 길을 걸어 본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듣고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그대로 거기 놓고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다 놓으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나중엔 이것도 죽는 거고 저것도 죽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좋은 것이, 그 움집 같은 데나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다리 밑 같은 데요, 그런 데를 보면 아주 싱긋이 웃어져요. 그런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아하, 이것도 착이로구나! 그걸 좋아하는 것도 착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함이 없이 연기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 자체는 그걸 몰라요. 살아오던 습으로 집착이라고 할까, 번뇌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방 걸려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 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어버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이예요. 내가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본래는 이미 그렇게 버려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듣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죽거리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지 않느냐?' 이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고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할 때 자동적으로 '그래'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여보' 할때 남편으로서 대하는 그때가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기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있는 거지 어디 한군데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교' 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배우는 생활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생활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법을 떠나서 부처님 법도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도 어디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불도 생명이 있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체를 먹고 삽니다. 생명체가 있으니까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람으로 흩어지고 물로 흩어지고 원기로 흩어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네 군데로 흩어져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의정이 나는 것도 책에서 보려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물을려고 애쓰지도 말고 당신의 그 광대한 묘법에, 내면세계에 '너만이 알려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두들기세요. 문을 열고 다니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선승이 될 수도 없거니와 공부도 못해요. 그러나 그건 논리에 의해서 문이 있고 없는 거지만 이무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유대로 문이기 때문이며 이 허공이 탁 터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한철동안이 도리를 배워서 세세생생을 얻는다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하면서 아마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3)

창문을 닫아 걸고 햇빛이 들기를 바랄 것인가.

"무명이란 달리 무명이 아니다. 마음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이다.

마음은 그 본성이 거울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아무리 때가 많이 낀 거울이라해도 바탕만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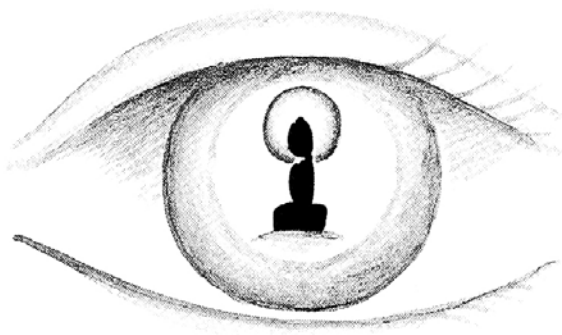
마음은 그 본성이 푸른 하늘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아무리 먹장구름이 두텁게 깔려있다해도 구름 걷히고 나면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저 맑은 거울을, 저 푸른 하늘을 가려놓고 산다. 그러면서 어둡다고, 괴롭다고 한다."

마음의 본바탕은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물들지 않고 여여하다.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명(無明)이다. 밝지 못하고 어둡다. 제 마음의 본바탕이 청정하다는 걸 모르고 찰나에 생멸(生滅)하는 번뇌 망상을 제 마음인 줄 알고 있으니 어둡다. 때가 낀 거울처럼 뿌옇다.

거울이 더러우면 누구라도 이를 닦아내려 한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만은 닦아내려 하지 않고 그 반대로 때를 입히고 있다. 순간 순간에 나고 드는 온갖 상념(想念)들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고 건건마다 붙잡고 늘어진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라고 하면서 애지중지 한다. 누가 다른 생각을 내비치거나 내 주장에 반대한다고 하면 금새 불쾌한 일로 받아들인다. 때로는 배척하고 싸운다. 이른바 나를 지키고자 함이다. 그러니 내게 닥쳐오는 일마다에서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쌓여간다. 무명이란 달리 무명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의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인 것이다.



삶이 어둡고 괴로운 것은 팔자 운명때문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마음 법에는 본래 팔자 운명이란 없다. 없는데도 내가 짓고 만들어서 팔자니 운명이니 이름 붙인 것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마음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을 잃고 다만 찰나에 일어났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일어나는 내 상념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니까 어둡고 편협해 지는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은 허공처럼 맑고 툭 틔어 있다. 그런 마음에다 금을 긋고 벽을 만들어 가는 게 중생의 모습이다.

이른바 내 생각 내 견해라고 하는 그 관념의 세계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있다고 믿어 벽을 만든다. 그리고 갈수록 고정된 세계로 만들어 간다. 그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대로 벽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진다. 마치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장벽을 쌓는 것과 같다.

허공엔 벽도 없고 문도 없다. 그런데 허공에 벽을 쌓고 그 속에 갇혀산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자신이 그러하다. 툭 틔어 맑은 자리에다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이쪽 벽에 부딪히고 저 쪽 벽에 이마를 박으면서 괴롭다고, 아프다고 한다.

괴롭고 고통스런 나머지 왜 내 팔자는 이러냐고, 왜 내 운명은 남 같지 않느냐고 원망도 해보고 탓도 해본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가, 문은 없는가 백방으로 찾아 헤매기도 한다.

문을 열어달라고 여기 저기에 부탁도 해보고 이곳 저곳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구원을 청해본다.

그러나 본래 벽도 없고 문도 없으니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갇힌 사람을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 고정된 그 무엇이 있어야 제거해주든지 없애주든지 할테지만 본래 없는 것이니 도와줄 길이 없는 것이다.

스스로 장막을 걷어내면 된다. 스스로 만든 벽이니 스스로 허물어내면 된다.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마음으로 지었으니 한 생각 바꿔서 지워버리면 그뿐이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괴로움도 눈 녹듯 녹아 내린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내 삶에 어둠이 걷히고 맑고 밝은 햇볕이 가득해 진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 햇빛을 쪼이고 싶다 할 것인가.

벽을 쌓아놓고 밝기를 바라겠는가.

협 찬 : 심 규 하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푸른 산 푸른 물이 다 부처님 설법

☞ 17면에서 계속

우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차원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허허허. 생각들이 말이예요. 왜 좀더 훌쩍훌쩍 뛰어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천년 전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찰나예요. 삼백년 전이라도 현실이란 말이예요. 만약에 우주가 있다면 우주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앞에 갖다놓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묘하고 찬란한 이 공법이 이렇게도 편리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중에 혹시 '아유, 저 스님은 도대체 부처님 경전을 읽어주지 않구선 뭐 저런 말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

"남이 내게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못해 돌멩이 하나라도 부처님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요. 푸른 산은 그대로 부처님 모습이고 흘러가는 푸른 물은 다 부처님의 설법이예요. 모두가 아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부처님 법이고 어떤 건 부처님 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말이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들어놓으면 온젠가 아! 하고 머리에 스쳐간단 말입니다. 비록 뜻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다음 세상에 나올 땐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먹어 보지 않던 거, 자기가 써보지 않던 거, 보지 못하던 거는 생각도 안나요. 하지만 한번이라도 들어놓으면 다음에라도 세상살기가 좀 낫죠. 아파서 울고, 죽네 사네 하고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중간에서 이렇게 살면서 어떤 분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울고, 어떤 분은 안 돌아가셔서 울기도 하죠. 늦도록 안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고통을 주니까 안 돌아가셔서 걱정, 빨리 돌아가시면 그리워서 걱정,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전부 그래요. 거기서 조금 낫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한철 구름같이 살다가 구름같이 떠가는 건데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도리는 꼭 알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태자일 때에 사람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나 하는데 의문을 품었죠.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결국 모두 죽을텐데 이까짓 왕으로 있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어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죠. 그래서 자기를 알고 보니 '아하,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 꼭 알아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진짜 자기 선장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이끌어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이 지금 무너져서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껄껄 웃고 있을 겁니다.

나는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예요. 돈이 다 뭡니까? 내가 돈을 가지려고 애쓰면 돈이 오질 않아요. 필요하다면 주인공에다 맡기고 주인공에서만이 스스로 갖다 주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어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돈이 나한테 놀러 있는 게 아니예요.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내가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딘가 모르게 한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되나가요. 하루를 있다 가든지 한달을 있다 가든지, 나갈 때는 오히려 더 이자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 내 것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잃지만 놔두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천년 만년 수만년이 가도 자기 거예요. 그 왜 도둑맞게 짊어지고 다닙니까? 끌어다 놓고서는 도둑놈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한푼이라도 내가 짊어지고 다닙니까. 짊어지고 안 다녀도 쓸 때 되면 다 들어오고 또 어떻게 살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준 사람들에게 공덕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떤 돈많은 대장부가 어느날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이 돈을 사흘만에 다 쓰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삼일만에 도저히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가더랍니다. 자기는 쑥 빠지고 그 돈 준 사람 이름만 넣으니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너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옷 한벌도 안 사입었느냐. 이 멍청아" 이러더랍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너는 진짜 사람이구나"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마음이 정갈하면, 정갈하다는 것은 '청정하다' 이런 말도 되죠. 바다에 말입니다.

구정물이나 모든 오물이 안 들어간다면 바다라고 할 게 없죠. 안 그런가요? 대천 바다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떠한 물이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이러면 적은 우물과 같고 연못과 같지만 '한바다' 이러면 구정물, 핏물, 고름물, 흙물 이런 것이 다 들어가서 그 바닷물이 다시 수습해서는 맑은 물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바로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쁜 것 옳은 것 또는 더럽고 깨끗한 것, 짧고 긴 것, 못 생기고 잘 생긴 것, 부자든 가난하든 이런 걸 몽땅 한데 합쳐서 우리가 둥글릴 수 있어야만이 그게 청정이란 얘깁니다. 깨끗한게 청정이 아니란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무생물로도 윤회 합니까

문 윤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육도라는 것은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육도로만 윤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이나 나무 같은 무생물로도 윤회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예를 들어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바람과 물에 닳고 닳아서 반쪽이 없어졌다면 그것도 바뀌진 거죠? 이것도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윤회란 꼭 과거 생이나 미래 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등 찰나찰나 역할이 바뀌며 사는 것도 바로 윤회예요. 살아서 윤회가 죽어서도 윤회인 것이죠. 윤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윤회도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나가는 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지는 것도 윤회구요, 금방 말을 했는데 이미 지나가버리고 또 딴 말을 하는 것도 윤회구요, 한발짝 떼어놓고 없어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윤회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조차 없다고 하고 윤회 또한 너무 바꿔지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데가 없는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반은 있고 반은 없어야 윤회라고 할 수 있지 윤회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돌아가는데 무슨 윤회가 거기 붙습니까? 지구가 돌아갈 때에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윤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러니 윤회도 없다 라고 할 수 밖에요.

육도윤회도 방편인지요

문 그렇다면 육도윤회라는 그 가르침은 결국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까?



그림 · 최주현

답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학술적으로 꼭 있어야 배우는 것이고 또 실제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경전이나 교학도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육도윤회니, 팔정도니, 육바리밀이니 다 있는 거지만 단지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것에 걸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걸 보고 배우더라도 그것도 내가 침착하게 한번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도, 내가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만나게 하는 것도,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모두가 그 놈이 하는 거니까요. 자기 자성이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알고서야 그것이 다 해당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아서 그것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마음이 착하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위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나만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 년 동안에 될 거 일년에 되고 일년에 될 거 석달에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면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걱정을 안하나 이러겠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인 그 관습에 의해서 천차만별의 문제를 다 앉은 자리에서 해결을 해라 이겁니다. 하지마라 하라는 게 따로 없이 그대로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행선입니다. 우리 생각에 앉았으면 좌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어날 땐 다 했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죠? 그러니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선은 끊어져 버려요. '좌선을 한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선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섰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누워 잠을 자든지, 와선, 입선 행선, 좌선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둘 아니게 행동 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참선이 돼야죠. 몸이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움죽거리지 않는 좌선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걸 이름해서 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로 경제가 어려운데…

문 요즘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일, 이년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고생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길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가적 위기조차도 공부의 재료, 또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불자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운 고비가 몇 년 간다 이러고, 또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러지마는 집착을 갖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길 가끔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도 안가고 늦게 들어오거나 어디가서 자고 온다 해도 말입니다. '이놈의 자식, 망할 자식, 어쩌구…' 하고 욕을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래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춥지는 않았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안으로 관하고 말을 해줘야 그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기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무는 뿌리끼리 통하고 사람은 마음으로 통하지만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와 뿌리끼리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도 통신이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처럼, 들어오고 싶은 것도 그 마음이 들어오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고장난 걸 어떻게 마음을 떠나서 고치려고들 하십니까? 그렇게 관하라고 일러주면 아이가 돌아왔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 해줍니다.

"들어왔다고 마음 턱 놓지 말고 마음에다가 관하고 부드럽게 해줘라.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거야.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요.

"한생각을 좋고 밝게내야 모두에게 이익"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 IMF한파 극복"

공부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문 스님 법문을 듣고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되고 환희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부해가는 과정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도 마음이 쉬어지는 걸 알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다보면 언젠가는 나를 발견하고 습을 녹이게 될거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있고 보니 조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이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 공부는 어떤 일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놓아지고 쉬어지는 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뭐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보고 듣는 것,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니 둘 아니게 믿는 마음, 즉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그 놈을 믿어라 이 소립니다. 그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죠. 그 근본이 없다면 아마 모두 송장들일 겁니다. 사실 믿으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자기 뿌리와 싹이 붙어있는 건데 뿌리없이 싹나는 것 보셨습니까? 그리고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공부도 음악을 연주할 때 줄을 다루는 것처럼 너무 팽팽해도 아니되고 너무 느슨해도 아니되는 거니,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또 너무 게을러서도 아니됩니다. 부지런히, 안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도달하게 돼있어요. 잘한다 못한다는 양면을 다 놓고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입산해야 공부 잘되는지

문 스님을 뵌지 4년정도 되는데 스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극락에서 사는 기분입니다. 도반들과 공부하다보니 이런 의문이 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산으로 가셔서 공부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산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은 왜 산으로 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아마도 나 아닌 나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끌고 돌아다녔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때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으셨죠. 그리고 나서 또 고행을 하셨는데 그건 왜냐? 나를 위해서가 곧 타의의 나를 위해섭니다. 알고 보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바로 나기 때문에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고행을 이차적으로 하신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산에 간단 얘기를 하셨는데 더불어 사는 세상이 시끄럽다고 떠나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떠나겠다면, 그러면 남이 지은 옷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쌀도 먹지 말아야겠네요. 더불어 사는 도리를 다 내버리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예요. 가더라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둘 아닌 도리를 알고서 체험하러 가는 경우는 있죠. 내가 젊었을 때 왜 산으로 갔느냐 하면요, 물러서지 않는 패기, 두려움 없는 패기, 그리고 둘로 보지 않는 패기! 그런 모두를 기르기 위해서였어요. 그 뒤로는 산이든 어디든 두려움없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길을 걸어보니까 길도 없고 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정상이예요. 내가 다 해보고 나서 여러분한테는 쉽게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나처럼 미쳤다는 소리 안듣고도 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산으로 갈려고 하십니까.

공부는 마음으로 깨쳐야지 몸뚱이만 이리저리 옮긴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편안하고 걱정이 없으니까 말수도 적어집니다. 마음이 뛰질 않게 되죠. 정신 분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되거든요. 인연이 돼서 그 의식의 생명들이 몸뚱이 속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좋은 인연은 이익하게 작용을 해주고, 나쁜 인연은 나쁘게 몸을 망가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병, 무슨 병이니 해도 사실 그것도 이름일 뿐 내 과거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신분열이라도 타의에서 귀신이 들어온 건 아니죠. 자의에서 일어난 건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건 자기의 불성 주인공밖에는 없거든요. 그 의식을 다스리고 내 몸뚱이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일임하고 '너가 그 안에서 그러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다 놓으면 그대로 정신분열증도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꼭 귀신이 나한테 들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때문에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못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거지,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유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 사실은 그것도 없습니다. 다 생각으로 지어서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한생각을 내더라도 좋게, 밝게, 옳게 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을 하셔야만 공덕이 됩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아이구, 유전인가 보다,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고 생각이 이미 그렇게 덜컥 박혀버립니다.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뿐만 아니라 패기도 없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약하게 하니까 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약하게 되고 일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말입니다. 오늘밤에 도둑질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여기 의식들도 그대로 따라주고요, 오늘은 좋은 일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그대로 따라줘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뿐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이 튼튼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가 있고,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죠. 모두가 내 한생각에 달려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갑작스러워 식구들이 아쉬워하고 보고 싶어하면 한사나흘만 있다가 가면 어때요? 똥싸고 받아내고 온통 식구들을 고생시키고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가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할 문제예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바꿀 때 자기 영혼만 딱 빼내면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하면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건 천리를 건너뛰어도 건너뛴 사이가 없는 겁니다. 육체로는 문을 찾아서 열고 닫고 하지만 마음은 문을 찾아서 그렇게 열고 닫고 하지 않아도 천리를 건너뛸 수 있고 그 건너뛴다는 소리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으로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안방까지 그냥 들어가지는 거지, 대문 열고 방문 열고 열쇠구멍 찾고 그럽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 한 찰나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과 밖 할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에게 이익이 가게 한다면, 작게는 내 가정부터 크게는 한나라, 세계, 우주까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원리가 말입니다. 물이나 마음이나 돌고남이 있어야 새물로 바뀌고 발전이 있지 흘러가는 물을 한군데다 가둬놓으면 결국은 썩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모두를 싸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마음의 차원이 한 국가의 차원이라는 걸 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형찬 주인공

단 신

명성여고 교직원 수련대회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이원주)는 구랍 20~21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회 교직원 불교수련대회를 가졌다.



수련대회에서는 30여년간 청소년 교화에 헌신해온 성일스님(신흥사 주지)의 체험담 중심의 특강과 불자 교사의 사명감에 대한 정락스님(용주사 주지)의 설법이 있었다. 또 발우공양, 108배, 반야심경 사경, 참선, 독경, 등 실틈없는 수행일과로 진행됐다.

대불련 36년차 일꾼워크샵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13~16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36년차 지회지부 활동일꾼 워크샵을 개최한다.

50여명의 지회지부장 및 소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대학 내에서의 불교학생회 역할과 전망, 불교통일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 정보통신의 미래사회에 활용가능성과 가치 등에 대한 강의와 도반 느끼기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 36년차 회장의 정책발표와 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서울불청 김인택회장 취임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청(회장 김인택)은 16일 지장빌딩 내 만해교육원에서 제 13대 회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IMF 극복' 주부들도 나선다

교계복지관 취업 프로그램 마련

요리사·이미용 자격증 대비반 개설
홈패션·옷수선 등 부업강좌도 다채

'절약'이 불자 주부들의 화두가 됐다. 아울러 주부들에게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

기업마다 불어닥친 경영합리화 바람 속에 한창 나이의 가장들이 실직자로 내 몰리는 이즈음, 직접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가정경제를 떠받쳐 보려는 주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계복지관들이 한식조리사 자격증대비반, 아이옷만들기반 등 가정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속속 내놓고 주부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도표 참조〉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갑자기 조여드는 현실에 대한 주부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주부취업대비 요리사자격증취득반을 마련했다. 12일 3개월 과정으로 개강한 한식조리사 자격증 대비반이 그것. 또 13일에는 취미요리반도 개강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주부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면서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홈패션, 옷수선 등의 강좌를 내놨다. 살림솜씨 야무진 아내답게 아이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가정경제도 살리고 가족간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 홈패션, 옷수선, 양재 등의 강좌 수료 후에는 부업으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 주부들의 관심을 끈다.

그밖에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의 헤어커트자격 취득반, 자동차정비반, 덕유사회복지관의 종이접기반,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피부관리반 등 주부들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가정·사회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강좌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수강료 또한 2~3만원대로 저렴해 알뜰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필선 기자

◇교계 복지관 취업관련 강좌

복지관	강좌	날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한식조리사	12일~3개월
	자격증대비반	간 월~금
	요리반	13일~3개월
		간 월~금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62	머리미용	월·금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컬트, 종이접기	화
	팔프아트공예	화·목
	스텐실공예	화·목
	머리미용	월·수·금
	피부관리	화·목
두송종합사회복지관 (051)265-9471	홈패션, 양재, 옷수선	화·목
	아이옷만들기	화·목
	무료 파출알선	화·목
중리종합사회복지관 (0551)31-8017	양재	월·수·금
	홈패션	화·목
	헤어커트취미교양반	월
	헤어커트자격취미반	화~금
	지동차정비	목
	스텐실	목
	포그아트	화
	퀼트·페치워크	월
	인형퀼트	화
덕유사회복지관 (032)325-2161	퀼트	목
우산종합사회복지관 (062)266-3853	종이접기	월
	홈패션	화·목
	헤어미용	월~금
	피부관리	월~금
강릉종합사회복지관 (0391)653-6375	종이접기	월·목
분수종합사회복지관 (0662)652-4242	공예	수·금
	꽃꽂이	금
	비용자격증취득반	월~금



◇성도절을 맞아 전국사찰 및 사암연합회 주최 문화예술제가 잇달아 개최됐다. 사진은 지난 5일 구룡사에서 열렸던 다라니합창단의 '남도민요' 연주 모습.

구룡사 문화행사로 성도절 봉축

북춤·수화노래 합창…보리심 다져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울려퍼지는 노랫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무용단의 몸짓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5일 밤10시 양재동 구룡사(주지 정우) 대법당.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절'을 맞아 개최한 문화예술 행사로 열기가 한창이다.

북장단 소리에 맞춰 박수치며 사물놀이팀의 빠른 손놀림에 절로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불자들도 보였다.

구룡사 다라니합창단의 수화노래 '우리도 부처님 같이'로 막을 연 이날 공연은 어린이예술단의 '한국무용', 전국판소리동호인협회의 '소리한마당' '북춤' 등에 이어 '사랑으로'를 1천여 신도들이 함께 수화로 부르며 성도절 전야제를 마쳤다.

공연을 끝까지 지켜본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은 "성도절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모아 불자들이 발심할 수 있는 기쁜날"이라며 "부처님 되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해마다 철야정진에 앞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일〉

건강 365일 〈10〉 인동초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최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로 인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약초가 있어 관심을 끈다. 바로 인동초다.

김 당선자는 스스로를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忍冬草)에 비유했다. 혹독했던 40여년간의 파란만장한 형극의 세월을 이겨내고 대권 도전 4수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자신의 인생역정이 인동초 그 자체와 다름이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추운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인동초. 인동등(忍冬藤)이라고도 한다. 인동초의 꽃은 금은화라 하며 한방에서는 줄기와 잎을 그늘에 말려 염증성 질환에 귀하게 쓰고 있다.

50대 전후에서 생기는 흔한 병 중에 하나는 관절염이다. 사람 누구나 지니고 있으면서 버리려고 애쓰는 삼독심 가운데 으뜸인 탐심이 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키며 위장에 화가 끓어오른다.

위장이란 오곡을 집어넣는 창고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위에 탈이 생기고 위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이 생긴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며, 명치에 무언가 매달린 것 같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 같으며, 입이 마르고, 변비가 온다.

소양인 체질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위장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 즉 정액을 생산한다. 이 진액이 부족하면 무릎관절염이 생긴다. 또 자궁에 염증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위장신경이 자궁과 무릎관절에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이같은 증상에는 인동덩굴이 특효다.

덩굴은 무릎 관절염에 특효
토종닭과 달여 10일간 복용

병은 원인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염진통제나 호르몬으로 아플 때마다 모면하는 식의 치료로는 관절염을 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용법 인동초 600g과 털, 내장을 모두 제거한 토종닭 한마리를 찜통 속에 넣고 3시간 정도 달여 식힌다. 기름을 모두 걷어낸 후 하루에 두차례 커피 한잔 정도씩 10일동안 꾸준히 복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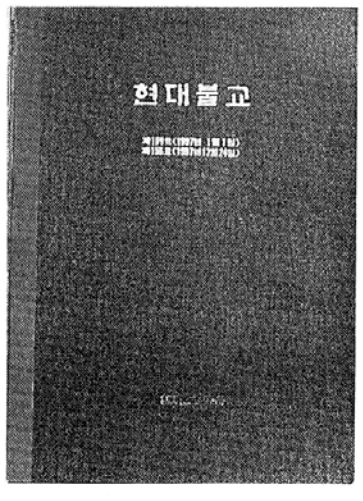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7년 합본집

'97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예약접수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97년 한해를 총집결한
합본 '97년판을 발간합니다.

■ 합본집('97년판) : 제109호(1997년. 1.1)-제156호(1997.12.24)
■ 가 격 : 60,000원(발송비 별도) ※할인가격 : 54,000원
■ 예약접수기간 : '98년 1월 24일까지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代)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자 세상보기

IMF시대 어수선한 사회 초등학생까지 '주술 유행'

얄팍한 상혼·어른모방 심리 '문제'
작년 3백만명 점봐 "어른이 모범을"

불안한 시대일수록 어떤 힘에 의지하고픈 심정은 자연스럽다. 더욱이 요즘처럼 IMF한파가 몰아쳐 실직의 불안이 엄습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불안해소를 자신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주술에 기대려는 심리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의타적인 성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병리적인 현상이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주술적 상혼이 파고 들어 병리적 현상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킨다. 96년 한해 동안 3백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술과 점괘를 보았다는 통계다. 소위 '사주카페'들이 즐비한 서울 신촌지역에서는 운세풀이 뿐만 아니라 취업 카운슬링과 대학진학 안내까지 해주고 있다.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을 강조하는 불교의 일각에서도 정초가 되면 부적과 '삼재풀이' 등의 책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까지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얄팍한 상혼이 끼어 들어 어린이들을 부추기고 있는 면도 있지만, 어른들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반성이 촉구된다.

"샬라샬라…"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 귀신을 쫓는다며 유행하는 뜻도 모를 주문이다. 소원을 적은 쪽지를 입에 물고 10분 정도 있으면 희망을 이룰 수 있다거나, 여럿이 함께 연필을 잡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말도 떠돈다. 자기 얼굴 그림에 유리구슬을 붙여놓으면 시험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것을 모르면 같이 어울리기도 힘들다. 이같은 주문과 기이한 행동의 출처는 최근 출간돼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10여종의 '어린이용 주술서'. 대부분 일본인 저자이거나 아예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책표지에는 '미래를 알아본다' '소원을 들어주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인상을 준다. 이런 책들은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의 어린이서적 코너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돼 미숙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며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어른들의 불안감도 아이들을 미신에 의존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미신을 멀리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성운 기자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는 어린이들에게 주술을 부추기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어른들의 얄팍한 상혼과 무관심이 어린이들의 주술유행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눈 "자신을 등불삼고 의지하라"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모든 변화하는 환경의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진리)을 등불 삼고 법에 의지할 것이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대열반경〉

또 〈대아미타경〉에서는 정진을 당부하고 있다. "큰 바다도 한 사람이 말(斗)로 헤아려 무한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지심으로 구도하여 정진해 마지않을 경우, 무슨 구함인들 얻지 못하며, 무슨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감원바람 여성에 거세다

차별해고 부당…합리적 기준 필요

직장마다 감원바람이 불면서 퇴직 1순우로 맞벌이여성과 장기근속미혼여성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승진차별 등이 주종을 이뤄왔던 여성직장인들의 상담내용이 지난 12월 이후 해고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한 대형광고회사의 여직원은 "소속부서 직원 10명에게 이틀내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는데, 8명이 여성이고 이중 7명이 기혼녀"라고 말했다. 한 보험사 직원은 "자녀를 2명 이상 가진 여직원은 감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여성퇴직 우선 발상은 과거로 후퇴하는 하향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위안부 보상 광고 '파문'

국내 일간지게재…외무부 강력 항의

일본의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아시아 평화기금)이 6일자 우리나라 일부 일간지에 '이것이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업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 게재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이 광고에서 위안브 피해자 1인당 5백만엔의 사과금과 의료복지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와 피해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국가배상, 일본국회의 사죄결의, 관련자 색출 및 처벌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당자들은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 "이같은 광고행위는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에서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려는 또다른 역사왜곡"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외무부도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지급에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웃온정 더 뜨거워졌다

IMF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웃돕기 운동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을 중간점검한 결과, 5일 현재 1백17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백9억원보다 8.1%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낸 모금액은 35%에 그쳤으나 일반국민들의 모금액은 1백3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8.3% 늘어났다.

이웃사랑에 재기한 장애인

전재산을 도둑맞아 실의에 빠진 금은방 주인이 이웃사랑으로 일어서고 있다. 서울 정릉1동에서 '고명사'란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함승수씨는 10여년 동안 모은 돈으로 금은방을 차렸으나 지난해 말 도둑에게 전재산을 털렸다. 이웃주민 20여명은 6일 1백만원을 모아 함씨에게 건네며 격려했다. 함씨는 "저도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며 재기를 다짐했다.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

우리나라의 유명희박사(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가 7일 세계 여성과학자들의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 격년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1회 헬레나 루빈스타인상을 수상했다. 유박사는 호흡기종을 일으키는 혈장저해제 '앤티트립신'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해 단백질연구분야와 의학계에 크게 기여했다.

IMF 충동적 범죄 급증

감원바람과 장기불황에 떠밀린 평범한 시민들의 충동적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은 7일 불합리한 인사고과 때문에 해고됐다며 상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회사원을 비롯 생활고를 못이겨 생필품을 훔친 주부, 일자리를 잃고 음란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김모씨 형제 등을 붙잡았다. 또 경제위기에 따른 혼란을 틈탄 신종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우리 사회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종금사 과장 고객돈 빼돌려

종합금융사 직원이 39억원에 이르는 고객 및 회사돈을 횡령, 해외로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D종금사 과장 고모씨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초까지 고객의 인감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돈을 빼낸 뒤 홍콩으로 달아났다.

日 순시선 독도영해 침범

일본 해양순시선이 7일 동해에서 표류중인 국적불명의 선박을 예인한다며 한국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도 영해를 침범했다. 외무부는 영해 침범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환경관리공단 무더기 특채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환경부간부 등이 환경관리공단에 자신들의 친인척 등 20여명을 특별채용토록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7일 드러났다. 이 공단의 복진풍이사장도 13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정보

가족열람실에 가보세요

어린이용 도서는 물론 부모가 볼 수 있는 잡지와 신문, 교육용 CD롬, 비디오, 장난감블록 등을 갖춘 시립도서관내의 '가족열람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있는 가족열람실은 중계도서관 유아실, 목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가족열람실, 마포도서관 모자열람실, 개포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생선으로 심장마비 예방

미국 보스턴의 크리스틴 엘버트박사는 7일자 미국의학협회저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주일에 한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장마비 발생가능성이 5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들었다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苦盡甘來).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轉禍爲福). 국가적인 경제난을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극복한다면 희망찬 선진 한국의 미래를 열어 제낄 수 있다. 보다 단단한 강철은 뜨거운 화롯불과 수 많은 망치질에 의해 완성되듯이 일등국민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탄생된다는 의미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위기극복 인과율따라 사물 바르게 인식

▨사람을 미혹해서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길이 다섯가지 있다. 첫째로 현실을 잘 관찰하고 인과율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에 있고, 그 욕망과 집착은 인과율을 무시하고 사물을 이기적으로 판단한 데서 오기 때문에, 사물을 바로 인식하고 욕망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둘째는 현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잘못된 인식과 그 인식에서 오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5관(눈 귀 코 혀 피부)의 작용과 그 작용에 뒤따르는 정신반응으로 생기는 욕망을 버리면 세속적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셋째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쓰는 것이다.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속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넷째는 참을성을 기르는 일이다. 더위와 추위,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학대와 모욕을 당해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제 몸을 불태우는 세속적 번뇌를 없애는 길이다. 다섯째는 위험을 직시하고 피하는 것이다. 마치 현명한 사람이 사나운 말이나 미친 개를 멀리 하듯이, 사악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고 현명한 사람이 피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행동을 이렇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면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속된 번뇌의 불이 꺼진다. 〈일체류경〉

▨물질 속에는 조만간에 산산이 부서져 흩어질 덩어리밖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세상 사람이 다 고난을 겪어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 가르침을 따르면 고통을 면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유행경〉

▨숭고한 진리를 터득하고 숭고한 도를 따르는 사람은 무지의 암흑을 씻어 버릴 지혜의 빛을 가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숭고한 진리를 다만 암시함으로써 중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암시에 따라 진리를 잘 터득한 자는 깨달음을 얻어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용기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사람이 네 가지 숭고한 진리를 체득하면 속된 번뇌의 근원이 말라 버린다. 〈42장경〉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 때나 남들이 제게 적의를 보일 때나 의식주가 부족할 때에도 순결하고 광온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선행을 계속하면 그 사람을 착하다고 한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심신을 닦은 자라야 정말 착하고 정숙하고 평온한 사람이다. 〈거유경〉

▨불제자가 애써서 비탈길을 올라갈 때는 그것을 이 미망의 세계를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광탄한 길을 갈 때는 그것을 불성에 접근하기 위해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화엄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 된다. 〈육킹예경〉

불교학인모집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5일 ~ 2월 15일까지
2. 모집과정 및 정원 : ①전문학부 (통신반) 200명
②연구과정 (통신반) 30명
3. 입학자격 전문학부 : ①대졸이상의 학력자
②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불교 정법을 알고자 하는자
연구과정 : ①승가대학원 졸업자
②불교관계 박사과정 수료자
4. 교육기간 : 전문학부·연구과정·각3년(6학기)
5. 졸업혜택 : 각종 자격증이 수여됨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편지로 청구하면 보내드립니다.

UN · NGO · IAEWP · 협동학교
한국승가대학원
(우)701-600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 (053)952-8711 · 017-501-871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福을 위하여 승진 · 사업번창의 幸福을 위하여 안성지법 무병장지의 영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우지족송 시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지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①

정신적 공황 대비하자

정신적 공황(恐慌)이 걱정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님도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며 범부들도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보고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두번째 화살 피한다

일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아 여유있는 맑은 삶을 사셨지만 범부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구속의 삶을 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경·箭經〉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첫번째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두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두번째 화살마저 맞게 된다."



성 열

〈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

요즘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 전문가나 된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 문제로 이야기의 물꼬를 연다.

크던 작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부도를 걱정하게 되었고, 가장은 실업의 불안에 떨고 있으며 주부는 장차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근심하게 되었다.

어디 그뿐이랴. 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해고시켜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일로 고민하게 되고, 일터에서 내쫓길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감원 처분을 받을지 좌불안석이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스트레스에 휘말릴 판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파장 또한 엄청나리란 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당면한 경제적 위기가 자칫 정신적 공황으로까지 번져나가지는 않을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면모는 서로 연민하는 마음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마저 모두 잃게 됐다면 과연 이 사회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평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다고 평을 받아 왔던 가장이 갑자기 직장에서 감원을 당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도 처음에는 남편의 기를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도 하고, 막연하지만 조금 쉬고나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을 하며 보냈지만 날이 갈수록 그 해법을 찾을 길이 막막하게 되자 점차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아내와 자식들은 괜스레 남편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려 불똥이라도 튀지 않을까 남편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남편은 남편대로 벌것 아닌 일로 짜증을 자주 내게 되자 가정의 화목은 꿈같은 옛날이 되었고 삭막함만이 감도는 가정이 되어 버렸다.

이쯤되자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반가운 게 아니라 꼴도 보기 싫어지는 단계를 넘어 차라리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하여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IMF사태가 앞으로 우리네 가정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예라 하겠다.

누구의 잘못이 되었건 그 많은 빚을 갚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짐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 너나 할 것

인간성마저 상실되면 더 큰 국가위기 초래

없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빚을 갚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그동안 펑펑 써대던 소비의 삶에서 절약과 검소의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처럼 삶의 자세를 바꾸자면 먼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고 물었듯이 우리 역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논설고문과 논설위원 8명의 신년연속 시론 'IMF 극복의 지혜'를 싣습니다.

열린마당

해인골프장 허용 판결

지난 12월 23일 대법원이 '가야산 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 건설 전면 백지화' 상고를 패소판결한 이후 해인총림대책위를 비롯한 각 환경 사회단체들의 반발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국립공원과 문화유산이 무차별적인 경제논리앞에 희생돼야 한다는 두려움마저 폭넓게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되어야 하는가. 각계의 반응과 대책, 해인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가야개발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해인골프장 관련 주요일지

90년 성주군, 가야개발을 가야산국립공원 개발사업주로 지정
94.12.24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95. 3.18 골프장 건설저지, 고령군민 궐기대회
95. 5.27 해인사 총림대책위 결성
95. 6.22 불교범종단 대책위 결성
95. 7. 5 문체부,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취소
95. 8.24 가야개발, 서울고법에 사업계획취소처분 취소소송
96. 6.19 서울고법, 취소처분 취소 결정
96. 6.28 대구지역 40개단체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백지화 공동결의문 발표
96. 7. 1 각계대표 110인 해인골프장백지화 요구 선언발표
96. 7.18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백만인 서명 시작
96. 9.18 해인사 문체부, 대법원에 상고
96.11.14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 1백만명 돌파
97.12.23 대법원, 해인골프장건설 백지화 상고 패소판결
98. 1. 9 해인총림대책위등 74개 단체, 서울 범국민결의대회

후손에 불이익 미칠 법판결 재고돼야

능관〈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장〉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생태경제학연구소에 따르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할 때 연간 33조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연구소의 로버트 콘스탄자 박사는 '생태계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며, 인간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생태계와 역사적인 문화재 보존으로 얻는 이익이 매년 2배의 가치를 넘는다고 했다.

우리 국민 가운데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해인사의 가치와 그 주변의 자연경관은 우리들에게 정신문화의 고향이자 최고의 휴식처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정신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졌다. 사업주체는 스스로 아집과 미혹으로 칠통에 덮여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

모든 법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신이 후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입힐 개연성이 있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경제 가치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해인골프장 건설철회는 국민의 도리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인사 경내에 내걸린 '가야산골프장 건설 반대' 현수막.

내무부장관 상대로 승인무효 심판청구

전재경〈한국법제硏 연구실장〉

경상북도의 해인골프장 허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허가당시 시행규칙에 명시도 되지않는 골프장을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허가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연공원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법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인골프장 문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경북도에서 허가된 것도 그렇고 문체부가 행정심판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하면서 내린 결론도 이치에 어긋나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허가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앞으로의 대안은 골프장 건설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있고, 체육시설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문체부장관이 아닌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접근방법을 바꾸고 법의 맥락을 짚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해결의 관건이라고 본다.

대법원판결 상식밖 국민여망 무시처사

무문〈해인총림 대책위원〉

일부계층의 전유물이란 인식이 강한 골프장을 국립공원안에 짓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일로 법조문 해석을 떠나 상식이하의 소치이다. 대법원판결은 IMF시대에도 역행하는 반경제적 반환경적 판결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연말연시와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해인골프장 반대서명에 동참한 1백만 국민의 여망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에 서명했고 국민회의 소속의원들도 대부분 서명한바 있다.

해인총림대책위는 행정무효 확인소송이나 사찰환경분쟁조정법등의 새로운 법률적 대응을 강구중이다.

가야개발측이 당분간 착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 상태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의 습도와 온도등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해인사의 수행풍토는 크게 저해될 것이다. 법적 정치적 대응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인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

미생물 농약사용 환경피해 최소화

김영덕〈가야개발 총무부장〉

가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자체의 세수입은 증대되고 관광수요는 늘어나는 등 좋은 점도 많다. 일본에서 개발된 미생물농약을 사용하여 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 줄여 나가겠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던 만큼 대법원 적법판결은 이미 예상했던바다.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손꼽히는 골프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상 금융거래가 어렵고 건설경기가 좋지않아 당장의 공사착공은 어렵다. 시간을 두고 건설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인 만큼 법규상 용도변경이 곤란해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토목공사비와 건축비를 합쳐 약 3백~4백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인골프장 문제의 해법은 없는가, 저지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해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나서는 길이다. 총무원이 나서서 해인총림대책위의 저지운동에 힘을 보태주며 정부당국과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내무부장관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만나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의지와 지역여론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백지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국민회의 소속 다수 의원들이 지난해 해인골프장 반대 서명을 했고 대선 당시 사찰환경권 보호를 중시했던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

해법은 없는가

조계종차원 노력 절실 법조항 개정운동 전개 민족유산 인식 제고

또다른 방법으로는 법적대응이 권장되고 있다. 해인골프장은 허가 당시부터 자연공원법을 위배했다는 점을 근거로 경상북도의 행정처분(허가)을 취소시키거나 고법과 대법에서의 판결문을 법률적으로 재검토해 행정행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가야개발측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한후 국립공원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한 법조항의 개정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이다.

그밖에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상당히 폭넓은 대국민 운동을 벌여 가야개발측의 건설의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민족문화유산의 파괴가 가속화 될 위험을 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 가야개발의 도덕성을 묻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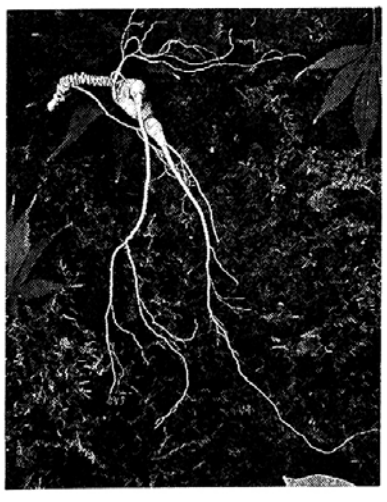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퀸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는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謹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정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상 문의상담(상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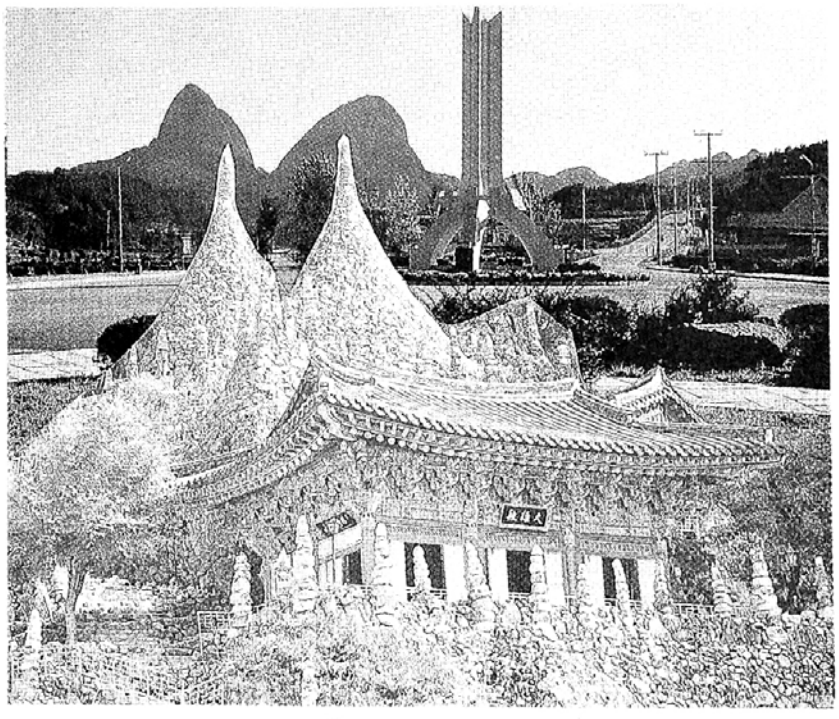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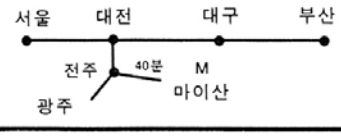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종단소식

조계종

'한민족 공동체' 모금 법회

총무원(원장 월주)은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 대법회를 성도절인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하고 5백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개최한 모금법회는 부처님 오신날까지 봉은사 도선사 구룡사 한마음선원 능인선원 등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돕기와 북녘동포돕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기금으로 사용된다.

태고종

안정사 어린이회 수련

안정사(주지 벽파)는 구랍 31일부터 3일까지 3박4일간 안정사 관음전에서 불교어린이회 신년맞이 수련법회를 열었다.

'밝고 맑은 자비의 실천을' 주제로 모두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수련법회는 신년 새벽기도법회, 새해 설계와 다짐 발표, 포크댄스 및 율동 발표회, 달력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강원교구 올해사업 확정

강원교구종무원(종무원장 백운)은 7일 춘천 석왕사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춘천 세종호텔에서 교구 산하 각 사암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대충대종사 탄신 법요식

총무원(원장 운덕)은 3일 구인사 삼강전에서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정하모 단양군수, 관내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충대종사 73회 탄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국운융창기원, 헌화 및 분향, 봉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9개사찰 주지 신임발령

총무원은 구랍 26일 구인사 삼보당에서 태백 등광사 등 9개사찰 주지를 새로이 발령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축년 동안거 해제

총무원은 2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불기 2541년도 정축년 동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한달간 진행된 이번 동안거에는 모두 1천1백73명이 입제해 10명이 탈락하고 1천1백63명이 이수했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해제식에서 46개 사찰의 신도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각종

불우이웃에 담요 450장



성초 통리원장은 구랍 29일 성북구청을 방문하고 진영호 성북구청장에게 불우이웃들에게 보내달라고 담요 4백50장을 전달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전달식에서 "세태가 각박해질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해맞이 월초불공

통리원을 비롯한 전국 각 심인당은 5일부터 11일까지 일제히 신년맞이 새해 월초불공을 봉행했다.

남북평화통일과 나라경제 살리기 기원을 겸해 봉행된 이번 불공은 하루 네차례씩 4부정진으로 진행됐으며, 종단간부 및 전국 심인당 스승과 교도 등이 모두 참가했다.

전국 청년회 '97 회향제

전국청년회는 구랍 27~28일 경주 한화콘도에서 '97총회 및 회향제를 개최하고 제22대 회장에 선상신씨(불교방송 기자)를 선출했다.

이어 열린 제11회 올해의 주인공 시상식에서는 지혜인상에 신향화(서울청년회), 용기인상에 박만근(포항청년회), 자비인상에 경주청년회가 각각 선정됐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캄보디아에 불교학교 건립

미타종 불교문화원도…한국어 · 기술교육 실시

캄보디아에 한국불교를 포교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릴 불교학교와 불교문화원이 설립된다.

미타종(사무총장 권성우)은 이와 관련 캄보디아 승왕 테퐁스님과 지난해 12월 1차 협의를 마친 상태며, 조만간 2차 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건립공사 착수는 당초 3월 예정에서 하반기나 내년초쯤 국내경제사정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학교 · 문화원 건립은 지난해 6월 미타종 초정으로 방한했던 테퐁스님이 미타종측에 학교건립을 요청하고 미타종측이 학교건립과 함께 한국불교문화원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현재 합의된 내용은 불교만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문화원을 건립하되 운영권은 학교의 경우 캄보디아가, 문화원은 미타종이 갖는다는 것이다. 또 부지는 캄보디아 불교문화원에서 제공하고 건립비용은 미타종이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캄보디아 불교문화원(원장 테퐁)은 이를 위해 현재 프놈펜 시내에 4천여평 규모의 부지 3곳을 선정, 미타종측의 실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건립비용을 2억5천여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미타종은 한국어 교습과 한국불교포교 외에도 신도회로 하여금 현지인에 대한 기초기술교육도 실시토록 하는 등 신도들의 사업기반도 다진다는 복안이다.

권성우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는 3년여동안 캄보디아 불교와 지속적인 교류끝에 얻어진 결실"이라며 "불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적인 교류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 되신날' 봉축

성도절 봉축법요식이 6일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육법공양 상공 법성도요잡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주지 무공스님, 대구사원련회장 원명스님을 비롯 최동원 신도회장, 유상증 대구신행연회장, 문흐갑 대구시장, 김상연 시의회의장, 이해봉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대구 반야포교원 개원

시연스님 설립…근로자 · 장애인 포교 주력

탁아소 · 예식장 갖춘 종합복지관도 추진



대구 이소외된 저층을 위한 포교당이 개원한다.

18일 오후2시 대구시 달성군 농공읍 조흥은행빌딩 4·5층에 신년맞이 소원성취 기원대법회를 겸해 개원하는 반야포교원은 1백평 규모로 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 시연스님〈사진〉이 주변공단 근로자들과 장애인 포교를 위해 마련한 것. 특히 노비구니 스님인 혜명스님(세수 77세)을 주지로 추대하고 포교원을 증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법회에서는 박완일 前조계종 신도회장이 참석하여 강연할 계획이다.

시연스님은 또 인근 아파트에 한 가구를 입대하여 복지원을 개원해 왜소증 환자 5명을 입주시켰으며 앞으로 1가구를 더 임대하여 수용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연스님은 최근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돋우기위해 먹었던 원기대보탕, 노화를 억제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한방식초, 혈액순환을 원활히하는 보혈청신탕등 3종의 건강식품을 출시했다.

스님은 건강식품 판매수익금으로 경주시내에 무료탁아소 무료예식장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자비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돈황유물 찾기 운동

中 정부 · 문화재 전문가

세계적인 불교문화유산 돈황석굴 발견 1백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잃어버린 유물 되찾기에 나섰다. 중국의 문화재 전문가들은 최근 베이징대학에서 회의를 갖고 관계당국과 힘을 합쳐 잃어버린 돈황유물 되찾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돈황석굴은 1900년 중국 감숙성에서 발견돼 4-5만권의 불서들과 약 1천여점의 불과가 봉안돼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75%가량이 외국으로 밀반출돼 현재는 돈황유물연구소에 약 3백권의 불서만이 남아있다.

우수단체에 감사패

금강정사 창립 7돌 법회

경기도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벽암)는 27일 대웅전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금강정사 발전과 포교활동에 기여한 불자와 신행단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상받는 단체는 지역단위 포교조직인 철산동법등, 한신아파트법등, 하안동 주공11단지법등과 천수법등(자원봉사자 모임), 거사림회, 어린이회 등이다.

"남생각해야 참 불공"

상무대 무각사 송년법회

한국불교원각종 호남종무원(원장 정암)과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는 구랍 28일 장성 상무대 무각사(주지법사 전창응)에서 무각사 신도회장 서정근 대령 등 장병불자와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특별법회를 거행했다.



◇이대원성보살의 금강경 사경에 동참한 회원들은 탑돌이 후 성금을 모아 의료원 · 법당 등에 회향했다.

사경공덕 이웃에 회향

이대원성보살 1년간 금강경 14권 사경

동참금 1천4백만원 사찰 · 단체에 보시

7일 청도 운문사 대웅전 앞에서 2백여 사부대중의 간절한 탑돌이가 있었다. 이대원성보살(이정옥 · 54)의 〈금강경〉사경에 시주금을 낸 회원들의 탑돌이.

이대원성 보살은 97년 9월부터 금강경사경을 시작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품씩을 사경하고 이 동참회원들의 축원기도를 올려왔던 것. 이렇게 씌여진 금강경은 모두 14권이다.

7일에는 2백여명의 동참회원들의 정성금으로 모아진 1천4백여만원을 자명, 도범스님과 부산불교중고등학생연합회,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등에 골고루 회향하고 운문사 학인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이 금강경 사경회원들은 이대원성보살이 다른 이를 위한 기도를 행하는 방편으로 시작한 금강경 사경에 한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날 탑돌이에 손자를 업고 며느리와 함께 한 홍불국화보살은 가족 7명이 같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 동참회원들은 이번 시주금 동참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들도 금강경 사경을 시작, 자성을 밝히는 방편으로 삼겠다고 발심하기도.

이대원성보살은 "스님도 수행자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같이 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공덕을 회향했다.

이보살은 이번 사경기도 외에도 3년전부터 보현봉사회 회장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주력해왔다.

부산=천미희 기자



◇KBS1 TV 수요다큐에서 옛 불교계 비화를 방송, 눈길을 끌었다.

신미화상 가사복원 · 쌍계사 범종 추적

KBS 방영 '산중일기' 눈길

KBS1 TV는 수요다큐멘터리 '3백년만의 발굴 산중일기'를 통해 감춰진 불교계 비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중일기〉는 조선시대 유학자 우담 정시한선생이 1686년부터 3년동안 전국을 다니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담은 여행기이다.

14일 오후 11시40분에 방송될 '6천리 사라진 것과의 대화' 편에서는 양산의 한 암자에서 만난 연희스님이 목각 경관을 수천판이나 새겨오고 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행방을 추적해 통도사 장경각에서 연희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관을 발견하는데 성공한다.

또 6.25 직전까지 남아있던 쌍계사 범종과 십대왕상의 행방도 알아본다.

7일 방송에서는 속리산 복천사 신미화상의 가사가 불에 타지않는 천 화완포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근거로 화완포를 복원해 화제가 됐다.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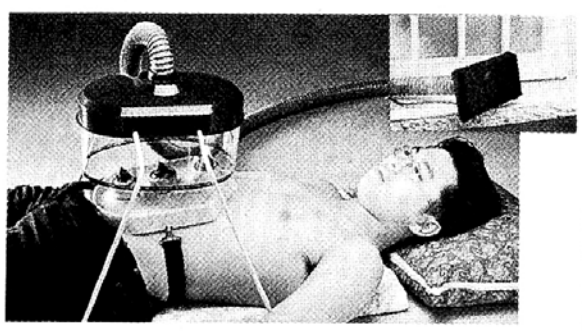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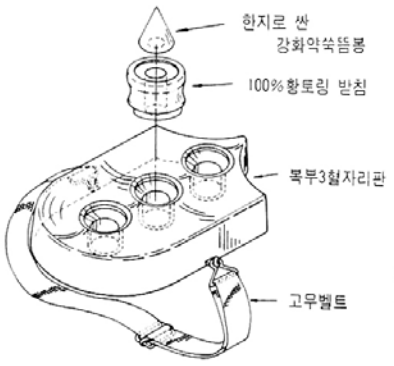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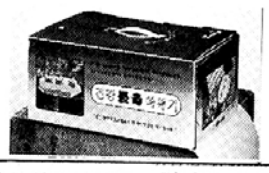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 · 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관람료사찰 수입 절반이상 감소 '운영苦'

신도조직화등 자구책 시급

IMF시대를 맞아 각 관람료사찰이 수입격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체질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백양사의 경우 운영비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관람료수입이 50% 감소했으며 대둔사의 경우 80%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교강세지역인 영천 은해사도 최근 일주일간 관람객이 고작10여명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상황에서 그동안 관람료수입에 의존해온 교구본사사찰의 운영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신도포교강화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람료인상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홍역을 겪은바 있는 교계 내부에서도 일부 관람료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었다. 관람료폐지 주장은 사찰이 관람료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신도포교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좋은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중포교 프로그램 시행에 등한시했다는 분석이다.

위기가 기회이듯 IMF가 관람료사찰에 새로운 바람으로 작용했으면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의 관행을 반성할 때가 됐다는 의미이다. 사찰운영에 거품을 제거하고 포교팀등 실질적 운영을 통해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며 신도확보와 조직화도 앞장서야 할때라는 분석이다.

이를위해 교계에서는 도심사찰의 신도조직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회를 활성화하여 신도조직을 강화고 재정수입의 안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방안은 사찰이 특성을 살려 신도들을 지역적으로 나눠 점조직형태로 운영 조직을 확장하고 대형시주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신도들이 매주 법회에 참석하여 시즉하는 형태로 사찰수입을 안정화 시키자는 것.

모 본사사찰의 재무국장스님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허황되게 살아왔다"며 "이제부터라도 관람료에 의존하지않는 토대를 이루도록 신도포교에 나서야 할때"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염불만일회 8월 재결성된다

고성 건봉사 주축 전국 규모…매년 성지대회도

1905년 한일합방으로 맥이 끊어졌던 고성 건봉사를 주축으로 한 전국 규모의 염불만일회(추진대표 보광·해장스님·김재일법사)가 재결성된다.

전국염불만일회는 발원대법회 세미나 등 준비모임을 거쳐 8월3일 공식 출범한다.

발징화상(삼국시대)이 795년 건봉사에서 처음 결성한 이후 원효스님으로 이어지며 삼국통일의 과업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됐던 염불만일회. 정신을 다시 재현하는 전국염불만일회는 1년동안 각 가정에서 회원들이 〈아미타삼부경〉 봉독 및 사경, 사불, 염불, 108배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1년에 한 번 2박3일동안 건봉사에 모여 성지대회를 연다.

공동추진대표인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은 "염불만일회는 역사적으로 국난이나 불교탄압시, 종단이 부패 했을 때에 많이 활성화됐다"며 "현재 각 사찰에서 하고 있는 백일, 천일회향기도도 염불만일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봉사는 지난 1~2일까지 1박2일동안 주지 해장스님을 비롯 김재일법사 등 동산반야회 소속 염불만일회 희망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불만일대발원 토론회' 및 '등공대 탑돌이' 행사를 개최했다.

뉴스 & 뉴스

부산청소년자원봉사단 발족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일 제5대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8일 거리청소, 껌떼기 활동을 펼친 1백50명의 봉사단원들은 2박3일간 해림사에서 사찰예절교육, 발우공양, 묵언 등의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대구 도성암 객사 전소

대구광역시 유기면 비슬산 도성암(조실 승찬)에 7일 새벽 4시30분경 화재가 발생, 객사 20여평을 전소시키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청소년지도자 정예화 추진

파라미타 청년협회(회장 현근)는 구랍 27~28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1차 불교청소년 지도자 일반연수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는 불교청소년 지도자들을 정예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 불교학, 신행활동, 청소년학, 수련활동 등 26시간에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 교계 청소년지도자 연수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대불청 회장 이·취임

대한불교청년회는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18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대씨가 제 19대 회장에 취임한다.

중앙신도회 회보 창간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5일자로 '중앙신도회보'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법어와 송회장의 창간사, 각 교구신도회장의 축하메시지, 기획특집-중앙신도회에 바란다 등을 실었다.

중앙신도회는 회보를 매월 타블로이드판 12면 분량에 법문, 시론, 칼럼, 교구신도회 소식, 신행단체 소개 등으로 꾸며 5천부씩을 발행할 계획이다.

전국교사불자련 18일 창립

회장 임완숙씨 내정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법회가 18일 오전10시 금산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서울·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전주·전북, 강원, 제주지역교사불자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원장 임완숙씨(서울·경인교사불자회장)는 "불교세계관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교사불자들의 인격도야와 유대강화,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포교에 기여키 위해 전국모임을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대회장에는 창립준비위원장인 임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계종포교원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6~18일 금산사에서 제3회 교사불자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참선수행과 강의, 불교학생회 운영사례 발표, '교사불자회의 역할' 주제의 분과토론, 수계식 등으로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불자 나서자"

종단협-조계종 등 '불교참여 호소문' 발표

나라 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불교계도 발벗고 나섰다. 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은 한국방송공사, 주택은행,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8일 '불교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를 더 큰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모두가 금모으기 운동에 수희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본말사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로 금모으기 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종단협도 9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금모으기 창구를 각 종단마다 개설키로 했다.

범종소리 없는 길상사

주거시설 타종 불가

개원 한달째 '침묵'

고급요정에서 청정수행도량으로 탈바꿈, 구랍 14일 3천여명이 모여 성대한 개원식을 치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

개원이후 길상사를 찾고 있는 이들은 범종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는 길상사가 대원각시절 등록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 성북구청 건축과 이춘만계장은 "현재 길상사는 용도변경 심사중에 있다"며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길상사 주변지역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타종은 법률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길상사 총무 덕조스님은 "길상사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타종을 금해야 하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이다"며 "하지만 타종은 사찰에서 행하는 경건한 의식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한 허락하여 줄 것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불교대 '자비의 걷기운동'

불교사회硏 '따뜻한 손내밀기'

이웃돕기 캠페인 '훈훈'

경제적 불안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시행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잔잔한 화제.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이 '자비의 걷기운동'을 실시한데 이어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이 '따뜻한 손 내밀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남불교대학은 구랍 27일 대구시내 일원에서 자비의 걷기운동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을 펼쳤다. 남구 봉덕동 영남불교대학에서 출발해 반월동 대구백화점을 거쳐 시민회관까지 진행된 이날 걷기운동에서 모금된 성금 전액은 지역내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은 구랍 20일부터 '따뜻한 손 내밀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불우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이란 주제의 이번 캠페인은 무기한으로 실시된다.

보시금은 은행계좌(국민은행 604-01-0457-311)와 우편과 전화(0561-41-0762)로 접수받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보시금은 소년소녀가장, 통도자자비원, 청송교도소 등의 시설을 방문, 겨울나기 생필품과 생활금으로 전달된다. 연구원측은 "작은 정성이 모으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중앙일보 시카고지국

불교 의도적 편향

조계종포교원 해명 요구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2월29일 중앙일보 사장 앞으로 '중앙일보사 종교편향 사례에 대한 해명요구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내 최근에 있었던 중앙일보 시카고지국의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포교원은 이 공문에서 △중앙일보 시카코지국이 98년도 '중앙일보 한인업소록'을 발간하면서 종교란 부분에서 불타사 불심사 봉불사 선련사 등 4개 사찰을 제외 △97년도 한인업소록에 불타사와 광고신탁을 계약하고 광고료까지 수령하고도 광고를 게재치 않았으며 △이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스님들에게 이 지국의 사업국장이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사 사장 비서실은 8일 포교원의 공문과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를 곧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소리

이웃사랑 거품없다

이 윤 호 〈대구 주재기자〉

"유명사찰이나 인연닿는 기업체에 후원을 부탁해 보았지만 대부분 'IMF 때문에…'라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미안했지만 일단 그말만 나오면 더이상 말문을 열수가 없었습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의 한 간부는 예년과 달라진 세태를 이렇게 전했다. 이 불자회는 형편이 어려운 회원가족을 돕기위해 간부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먼저 불교대구방송 게시판에 무료로 후원광고를 내고 있으나 아직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는 실정. 후원자도 직접 물색하고 다녔다. 맹인회원들이 서로의 눈이 되어 후원해온 불자들을 찾아 인사하고 새로운 후원자 인연짓기에 나선 것이다. 예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

지난 연말 법회를 이끌어주는 만권스님이 50만원 상당의 김장을 시주했으며 선본사 갓바위와 오뚜기식품에서 쌀 2가마와 라면 20상자를 각각 보시한 것이 전부이다.

소쩍새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쌀 한가마반 분량의 식량이 필요한데 부쩍 줄어든 후원손길로 쌀마저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또 대구불교사회복지회도 매월 자동이체 후원금이 20% 줄었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복지단체를 향한 후원자 행렬이 신문지상의 한 모서리를 장식하지만 올해는 IMF한파가 그 발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의 보조금과 사회단체의 기부후원금 등으로 연명하는 복지단체들은 후원금 모집을 위한 행사성 사업을 자제하는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후원자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복지단체는 자구책으로 '석유 1ℓ 후원자 모십니다'는 홍보전단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배포했다.

"오는 설날에는 부득이 회원들에게 양말과 식료품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맹인불자 가족끼리 정을 나누는 연중행사중의 하나였는데…."

모진 한파는 세밑온정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면 물질은 그에 상응하게 마련.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돕는 온정은 어떤 한파도 녹일 수 있는 난로이다. 이웃사랑에는 거품이 있을 수 없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불국사·석굴암 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대담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장엄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 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장지현 정사 황해도 성불사 참배기 본지 단독입수

"풍경소리 언제다시 들을까"

지난 연말,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의 짧은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상임부회장으로서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북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북한 내에 불교계 명의의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이번 방북에서 나는 분단 이후 남측 불자로서는 최초로 꿈에도 그리던 황해도 성불사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가곡 '성불사의 밤'으로 알려진 성불사(북한 국보유적 87호) 극락전. 응진전과 함께 6·25때 화재로 건물 일부가 소실된 것을 보수했다. 좌우로 당간지주가 서있고, 앞의 5층석탑은 국보유적 제279호로 지정됐다.

빼어난 경관에 詩心 일어

성불사는 가곡 '성불사의 밤'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그 절이다. 북한은 성불사를 국보유적 87호로 지정 보존하고 있다. 평양을 떠나기 하루 전인 12월29일 불교도연맹측의 배려로 불현듯 달려간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 시내에서 8㎞ 떨어진 정방산, 정방산성 내에 고즈넉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란중 불탄 극락·응진전 최근 복원
"국수공장 가동되면 부처님께 첫 공양"

일요일임에도 하천 보수작업과 농경지 정지작업으로 동원된 군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성불사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경. 성불사에 도착해서 내가 제일 먼저 가진 느낌은 '이렇게 아름다운 절을 왜 이제야 보여주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니 그 의문은 빼어난 주변 경관이 최근에서야 유원지로 다듬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내 풀리고 말았다.

성불사는 과연 가곡 '성불사의 밤'이 아니더라도 이 골짜기에 드는 운수납객이라면 누구든지 시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아름답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도량이었다. 일주문을 대신한 산성문(山城門)이 그러하며, 역사의 이끼가 완연한 정방산성이 다칠세라 사방을 꼭 품에 보듬고 있는 모습이 그러했다. 겨울철이라 지금은 물줄기가 말라붙었지만 극락전 정면에 위치한 정방폭포는 통일을 고대하는 부처님의 시름을 달래주기에 한여름에는 제격일 듯 싶었고, 한때 임꺽정이 기거했다는 산성 동굴은 절 뒷켠에서 금방이라도 덕수염의 장수가 뛰어나올 것처럼 그 경사가 다급하게 보였다.



◇성불사 일주문. 북한은 2~3년전 진입로 주변에 휫집 낚시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관광지로 복원했다.

'주승도, 그윽한 풍경소리'도 지금은 간곳이 없는 성불사에서 50년 만에 찾아온 귀하디 귀한 남쪽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안내원도 관리인도 아닌 달구지를 끄는 한마리 소였다. 수레가 너무 무거웠던지 절 입구에서 길을 가로막고 넘어져 있던 소는 그 절에 머물던 어느 식솔의 후생이었을까. 그는 잠시 낯선 이방인을 주시하며 큰 눈을 껌벅이더니 곧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다.



◇성불사의 목어. 빛바랜 단청이 천년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주승도 객승도 간곳 없어

성불사는 주승도 객승도 살지 않아 온전한 신앙행위는 인정치 않지만 문화유적만큼은 제대로 보전하려는 북측 당국에 의해 그 외형만큼은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사리원에서 올라온 문화유적관리소 유용철이라는 조사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극락전과 응진전 일부는 전쟁시기에 지붕이 불타고 그을린 것을 새로 장엄했고, 응진전 외벽의 탱화는 최근 새로 그려넣었다는데 힘찬 모습이 예의 역동적이었다. 극락전 앞의 두 개의 당간지주, 그리고 역시 국보유적인 5층석탑은 풍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쪽에서 인정하는 한 종단의 정규 교역자로서 해외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도량의 외형 못지않게 법당 내부의 부처님 안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극락전과 응진전의 법당을 잇따라 참배한 불자로서는 참으로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려왔다. 촛불은 고사하고 전등도 들어오지 않는 법당. 오십년 동안 공양 한번 받지 못하고 절 한번 받지 못한 부처님전에 외투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은 불제자를 굽어보는 성불사 부처님의 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 향불 하나 꽂지 못하고 어둠 속의 부처님을 친견하는 불제자의 등뒤로 싸아한 골바람이 시린 물소리를 끼얹고 있었다.

50년간 공양 못받은 부처님

어둠이 깃든 성불사 골짜기를 빠져 나오면서 이번에 우리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 설립한 국수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먼저 국수 한그릇을 성불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이내 수심에 잠기고 말았다. 통일은 어서 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사슬에 묶인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실 성불사 부처님의 안위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남과 북의 불자들이여! 통일의 새 날을 고대하자. 우리에게 뿌리깊은 역사의 질긴 인연이 있는 한 또 다시 내일의 새로운 연(緣)은 싹트고 꽃필 것이다.

신행수기 당선작

〈대 상〉

자등명 법등명 ①

나는 1남1녀의 자녀를 둔 49세의 주부다. 더불어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5평 남짓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인이기도 하다.

지금의 내가 있기 전, 나는 남편의 교통사고와 운영해 오던 의상실의 경기 침체, 뒤늦게 배운 미용기술의 거듭되는 낭패로 계속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알콜 중독자라는 부끄러운 명예를 쓰고 살았다. 또 설상가상으로 겹친 갑상선 항병증 등의 병마와 싸우며 수년간 망연자실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한 때의 수렁에서 스스로 헤쳐 나올수 있었던 것은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터다. 그동안 참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몸을 빌어 절에 다닌것 같다. 불교가 모태 신앙인 셈이다.

혜화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만난 남편과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절에 다녔지만 그것은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 행위였다. 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주체적인 신앙심 없이 우리 집,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저 기도하고 경을 외웠던

교통사고·알콜중독등 집안엔 우환의 연속 한때 개종마저 생각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기적이기 그지 없지만 당시 나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했다.

결혼 전부터 혜화동에서 양장점을 운영하면서 사치와 술에 젖어살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나는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화사한 봄날도 잠깐, 서서히 불행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의 놀음으로 속상해 하고 있을 때 빌려준 돈을 사기 당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내가 붓고 있던 계마저 깨져 낭패를 봤다.

불행이 연이어 닥쳐오자 나는 다시 알콜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었고, 의상실과 가정은 엉망이 되었다.

그래도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고자 혜화동에서 독산동으로 이사를 했다. 의상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동안 10여년의 세월 속에 남매를 두었고 남편은 해외취업을 나갔다. 그즈음 독산동 법성사 스님의 도움으로 집을 사게 되었다. 갖은 사고와 실패로 집을 살 형편은 아니었지만 스님 말씀만 믿고 전세대신 신월동에 연립주택을 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미용실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

연립 베란다에 '예원의상실' 간판을 달고 양장점을 하면서 금강사 스님을 뵙게 되었다. 무리한 집 마련에 남편도 없이 힘겨워 하는 나에게 스님께서는 전생의 업 때문이니 전생의 빚을 갚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원망심에서 벗어나 관세음보살기도로 업을 닦으라고 용기를 주셨다. 또 수계법회에서 '법등심'이라는 불명도 주셨다.

스님의 따사로운 격려와 함께 불명을 받고 보니 마음속엔 참회심이 서서히 일었다.

'모두 내 탓이다. 내 업이구나. 어제의 모든 것 이젠 다 잊어 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나로 인하여 태어난 저 남매에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며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기성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상실 운영이 순탄치 못하면서 또 다시 시련이 다가왔다.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해외가족 특혜를 받으며 독산동 부녀복지관을 다녔다. 뒤늦게 시작한 일이라 여러번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힘겨울 때가 많았지만 그 때마다 스님의 가르침 대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하루하루를 노력하며 보냈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 39세에 미용실을 개업해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용실 개업초기, 미용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차츰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남편이 4년만에 귀국했다. 남편은 다시 해외로 나가



그림 · 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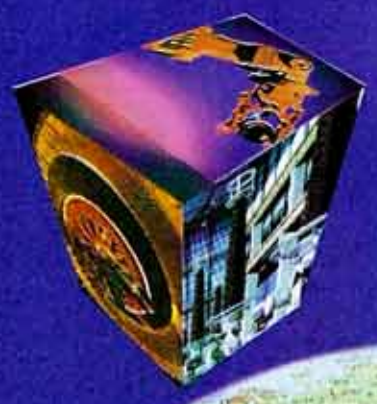
질 않고 택시회사에 취직해 영업용택시를 몰았다. 그것이 불행의 화근이었다. 계속 이어지는 남편의 교통사고는 내 마음을 흔들었고, 새로운 분출구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개종에 대한 유혹이 가장 먼저 마구니로 다가왔다. 절실히 의지할 데가 필요했던 나는 뚫뚫 뭉쳐다니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형제자매가 되어주는 그들(기독교 신자들)의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 바로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눈 속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켜야 할 지경이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편과 손님은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항상 남편과 같이 했던 차에 걸린 염주 때문이었을까. 사고현장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운이 좋다며 입을 모았다.

남편이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두 차례 수술을 받는 동안 나는 매일같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스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도 장사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장사속으로 잠시나마 타종교로 개종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던 나의 어리석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내게 어떤 재침을 주시기 위해 남편을 살려 주셨다는 것을….

이태순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사업부
초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사업부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ttp://www.hico.co.kr